

# 세계유산연구

## Journal of World Heritage

제 2권 2호 2016년 12월

문화유산 보존 관련 국제원칙과 지향점  
..... 최재현 · 김숙진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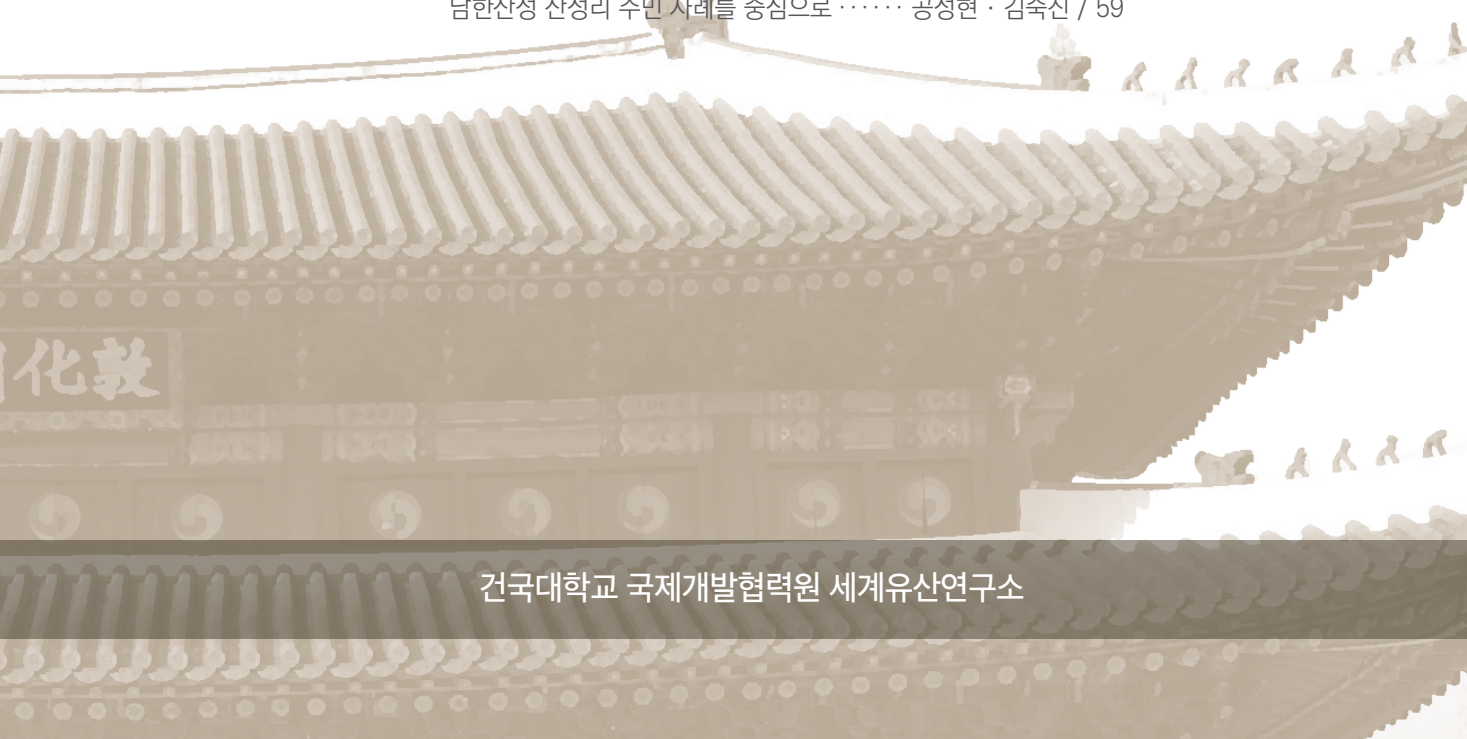
국제협력으로서의 세계유산: 세계유산협약 국제지원금 사업 현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언 ..... 조유진 · 김숙진 / 11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ODA)의 전략과 방향:  
방글라데시 마하스당가르 유적지를 중심으로 ..... 김 귀 배 / 19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도시재생에 관한  
핵심이해당사자의 선호도 특성 연구 ..... 김 현 재 / 27

종묘의 안내·전시체계 및 활용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 김 수 정 / 43

세계유산의 관리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의 필요성:  
남한산성 산성리 주민 사례를 중심으로 ..... 공성현 · 김숙진 / 59





# 문화유산 보존 관련 국제원칙과 지향점

최재현\* · 김숙진\*\*

## Changing Direction of International Principles on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Jae Heon Choi\* · Sook Jin Kim\*\*

**초 록:** 이 논문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련한 국제 원칙과 국제 현장의 내용을 고찰하고 국내 문화유산 보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문화유산과 관련한 국제적인 현장과 원칙으로는 아테네헌장의 보존 정신과 ICOMOS 출범의 배경이 된 베니스현장, 워싱턴현장과 버라현장, 그리고 ICOMOS에서 제정한 나라문서와 나라+20, 스톡홀름 선언서, 파리 선언서 등이 있으며, 영국과 유럽 등의 지역 단위나 개별 국가 등에서 제정한 원칙 등이 있다. 이들 국제원칙은 시간에 따라 유산보존의 개념이 유형적인 원형보존에서 주변 환경의 보존과 유무형 가치와 장소 및 문화적 의미로 확대되고 있었다.

**주요어:** 문화유산 보존, 국제원칙과 현장

**Abstract:** This paper intends to find out the general trends and directions of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by examining major international principles, charters and declarations in cultural heritage, including Athene Charter, Venice Charter, Washington Charter, Burra Charter, Nara Document, Nara Document +20, Stockholm Declaration, Paris Declarations and other documents made by continental scale and regional scales. The results show the shift of heritage preservation from individual heritage value towards environmental settings surrounding heritage site, tangible and intangible values, and places-based cultural significance of cultural heritage.

**Key Words:**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international principles and charters

### 1. 서론

우리의 생활공간에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많은 문화유산들이 자리하고 있다. 산책길에서 여행길에서 수많은 문화유산 들을 마주치며 그 유산의 보존 상태를 보고 감탄과 탄식을 반복하게 된다. 문화유산의 보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과거의 모습대로 흉내를 내는 것일까? 아니면 과거의 모습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일까? 깊이 생각하면 문화유산의 보존은 보존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대 어떤 층위를 보존할 것인가와 관련한 보존의 가치와 철학의 문제로 직결됨을 알 수 있다. 즉, 문화유산은 단순

한 개체로서의 유산 자체가 아니라 그 유산과 연결되어 있는 무형적 가치와 당시의 시대상을 대변하는 총체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에서는 각 나라의 문화유산 중에서 세계인이 공유하고 함께 보호하여야 할 유산으로서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유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유산의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재기준을 하나이상 충족하고, 거짓 없는 정보의 출처를 의미하는 진정성(authenticity), 유산의 전체 구성요소를 온전히 포함하면서, 적절한 지

\* 건국대학교 지리학과/대학원 세계유산학과 교수(Professor, Geography Department, College of Science/World Heritage Studies,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choijh@konkuk.ac.kr).

\*\* 건국대학교 지리학과/대학원 세계유산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Geography Department, College of Science/World Heritage Studies,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sjkim@konkuk.ac.kr)

리적 규모에서의 보호책과 위협요소가 없으며 손상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완전성(integrity), 그리고 적절한 보존관리대책의 수립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망라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세계유산제도는 향후 2018년 2월 이후부터 등재신청 건수를 제한하는 등 새로운 유산의 등재보다는 기존 유산의 보존관리에 더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보존원칙에 대한 이해는 더욱 중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국제사회의 보존원칙을 적용하여 국내 유산을 관리하는 능력이 많이 결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존현장에서 아직도 재건(reconstruction)과 복원(restoration)의 개념이 혼동되고 있으며, 고고학 유적의 경우에도 추론을 통한 재조립이나 복원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적인 원칙에 반해서 추정에 의한 복원이 마치 당연하게 여기지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곽의 보존 문제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지자체 단위로 정비 사업을 통하여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사업 시행 절차에서 국제적인 보존 원칙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료에 대한 원형 고증이 없고, 축성술의 원형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재건축이 일어난 경우가 많다. 발굴 조사와 학술 조사이후에 성곽복원 정비 사업을 통해 현대적인 모습으로 재건축된 것이 태반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원형에 대한 진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문화유산에 대한 복원은 유산 가치를 공인 받을 수 있도록 진정성과 완전성을 고려하면서 국제적인 원칙을 준수하고 표준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적인 원칙을 고려하여야 하는 이유는 자국민에 의해 평가되는 유산 가치를 벗어나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유산 가치로 확대되어야 유산 관광 시장에서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보존 가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성을 상실한 문화유산은 더 이상 문화유산이 아니라 재현품이나 모조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철학적 윤리적 기반위에서 문화유산을 다루어야 할까? 즉, 이것은 문화유산 전반에 걸쳐 어떤 보존 윤리를 갖추고 접근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문화유산의 보존은 의료행위에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표준화된 기술을 하지 않으면 환자의 목숨을 잃는 것 같이 윤리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보존건축가인 Bernard Feilden(1982)은 문화유산 복원에서 윤리적 표준 원칙은 건물에 대한 어떤 인위적인 조치 이전에 건물의 전체 상태와 함께 조치한 자재와 방법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을 파괴되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되며,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minimum intervention)하고, 미적이나 역사적, 물리적인 완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어떤 인위적 개입도 주의 깊게 통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네 가지 원칙에 더하여 John Warren(1996)은 인위적인 개입이나 재사용은 최선책(paramount virtue)을 지향하여야 하고,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reversible)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윤리강령(2002)에서도 표준화된 국제적인 원칙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 체계적인 연구결과에 바탕을 두지 않는 문화유산의 보존 행위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영원히 상실하게 할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련한 국제 원칙과 국제 현장을 살펴 보면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와 향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지향점을 찾아보고, 이를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2.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한 국제원칙과 국제 현장

### 1) 보존 관련 국제 현장과 원칙의 성격

문화유산 보존 분야는 의학, 법률 등과 마찬가지로 합의를 통하여 최선의 보존 원칙을 찾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유산에 대한 최선의 보존 원칙은 국제적인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현장(charters)이나 협정(conventions)이고, 다음으로 이차적인 원칙(principles)이나 국가 현장을 들 수 있다. 이런 원칙은 표준안(standards)에 의해 명료해지고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며, 표준안이 실제 보존 행위를 규정하는 지침서(guideline)의 바탕이 된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지역적인 문화 다양성을 반영하는 우수한 모범사례(best practices)로서 이해되는 것이다. 문화유산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현장과 협정은 대체로 UNESCO나 ICOMOS가 제정한 것이다. 유네스코 협정은 국가 간 조약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방법론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ICOMOS 현장은 국제적 기준으로 인정하는 최선의 모범사례들을 높은 수준에서 일반화하여 제시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보통 ICOMOS 현장은 ICOMOS 총회에서 수용되며 개최 도시와 회의의 성격을 반영한 이름으로 명명된다. 예를 들어 베니스 현장(Venice Charter, 기념물 및 장소의 보존 및 복구에 관한 국제 현장, 1964), 플로렌스 현장(Florence Charter, 역사정원에 관한 현장, 1982) 등은 도시와 현장의 성격에 의해 명명되었으며, 강제사항이 아닌 장려 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으로 국가들에 의해 자체적이고 자발적으로 발간한 단독 성격의 문서들이 있다. 예를 들어 차이나원칙(China Principle, 2004)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 유산지역 보존을 위한 원칙(Principles for

the conservation of Heritage and Sites in China, 2004), ICOMOS 인도네시아(2003)의 유산보존 현장 등은 개별 국가에서 발간한 현장이다. 그 중에서 호주의 버라현장(Burra Charter: The Australia ICOMOS Charter for Places of Cultural Significance, 1979 초판, 2013 개정)은 자국에서만 기준을 받은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지침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현장들은 그 이전의 현장들을 계승하여 문화유산의 이론을 확대하거나 보존 기법 향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사회 발전을 반영하기도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에 초점을 맞추어 재료의 복구를 주로 다루고 있는 베니스 현장(1964)으로부터, 문화유산의 유형학적 가치를 함께 다룬 버라현장(1979), 유형유산의 보호를 다룬 유네스코 협정(2003), 그리고 사회적 이윤과 지속가능성의 장려를 다룬 영국 유산 보존원칙(2008)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현장들에서 보존 개념의 변천을 확인할 수 있다. ICOMOS 웹사이트 (<http://icomos.org>)에서는 ICOMOS 국제위원회 총회에서 채택한 14개의 현장(Charters), 15개의 선언문

〈표 1〉 문화유산 보존 관련 국제 현장과 표준안

종 류	이 름
ICOMOS 총회에서 채택된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니스 현장(International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s and Sites, (The Venice Charter - 1964</li> <li>• 플로렌스 현장(Historic Gardens, The Florence Charter) - 1981</li> <li>• 워싱턴 현장(Charter for the Conservation of Historic Towns and Urban Areas, The Washington Charter) - 1987</li> <li>• Charter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Archaeological Heritage - 1990</li> <li>• Charter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 1996</li> <li>• International Cultural Tourism Charter - Managing Tourism at Places of Heritage Significance - 1999</li> <li>• Principles for the Preservation of Historic Timber Structures - 1999</li> <li>• Charter on the Built Vernacular Heritage - 1999</li> <li>• ICOMOS Charter - Principles for the Analysis, Conservation and Structural Restoration of Architectural Heritage - 2003</li> <li>• ICOMOS Principles for the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Restoration of Wall Paintings- 2003</li> <li>• ICOMOS Charter on Cultural Routes - 2008</li> <li>• ICOMOS Charter on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 2008</li> <li>• Joint ICOMOS - TICCIH Principles for the Conservation of Industrial Heritage Sites, Structures, Areas and Landscapes - 2011</li> <li>• 발레타 원칙(The Valletta Principles for the Safeguarding and Management of Historic Cities, Towns and Urban Areas) - 2011</li> </ul>
결의안과 선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solutions of the Symposium on the introduction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into ancient groups of buildings, at the 3rd ICOMOS General Assembly(1972)</li> <li>• Resolutions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Conservation of Smaller Historic Towns, at the 4th ICOMOS General Assembly(1975)</li> <li>• Tlaxcala Declaration on the Revitalization of Small Settlements(1982)</li> </ul>

〈표 1〉 계속

종 류	이 름
결의안과 선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claration of Dresden on the “Reconstruction of Monuments Destroyed by War” (1982)</li> <li>• Declaration of Rome (1983)</li> <li>• Guidelines for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Conservation of Monuments, Ensembles and Sites (1993)</li> <li>• The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1994)</li> <li>• The Declaration of San Antonio (1996)</li> <li>• Principles for the recording of monuments, groups of buildings and sites (1996)</li> <li>• The Stockholm Declaration: Declaration of ICOMOS marking the 50th anniversary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98)</li> <li>• Xi’an Declaration on the Conservation of the Setting of Heritage Structures, Sites and Areas (2005)</li> <li>• The Quebec Declaration on the Preservation of the Spirit of the Place (2008)</li> <li>• Lima Declaration for Disaster Risk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2010)</li> <li>• The Paris Declaration On heritage as a driver of development (2011)</li> <li>• Florence Declaration (2014)</li> </ul>
국가 위원회가 채택한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inciples for the Conservation of Heritage Sites in China: English language translation, with Chinese text, of the document issued by China ICOMOS. 2nd Printing with revision. Los Angeles: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2004.</li> <li>• Indonesia Charter for Heritage Conservation / Piagam Pelestarian Pusaka Indonesia (ICOMOS Indonesia) - 2003</li> <li>• The Australia ICOMOS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of Places of Cultural Significance - (The Burra Charter, Australia ICOMOS) - 1981</li> <li>• Charter for the Preservation of Quebec's Heritage (Deschambault Declaration, ICOMOS Canada)</li> <li>• Appleton Charter for the Protection and Enhancement of the Built Environment (ICOMOS Canada) - 1983</li> <li>• First Brazilian Seminar About the preservation and Revitalization of Historic Centers (ICOMOS Brazil) - 1987</li> <li>•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of Places of Cultural Heritage Value (ICOMOS New Zealand, text revised and approved by the Executive Board of ICOMOS NZ on 4 September 2010)</li> </ul>
기타 국제 표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thens Charter for the Restoration of Historic Monuments (Athens Conference, 21-30 October 1931)</li> <li>• Final Report of the Meeting on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Monuments and Sites of Artistic and historical Value held in Quito, Ecuador, 1967</li> <li>• Declaration of Amsterdam (Congress on the European Architectural Heritage, 21-25 October 1975)</li> <li>• European Charter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Council of Europe, October 1975)</li> <li>• UNESCO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s</li> </ul>

(Declarations)과 결의서(Resolutions), ICOMOS 각국 위원회에서 채택한 7개의 현장(Charters), 그리고 다른 국제기구에서 채택한 유관 현장과 보고서, 선언, 협정 등을 게재하고 있다(표 1).

## 2) 주요 보존 관련 현장

### (1) 아테네 현장(The Athens Charter, 1931)

역사 기념물의 복원을 위한 아테네 현장(1931)은 문화유산의 국제 보존과 관련한 첫 번째 현장이다. 아테네현장은 ICOMOS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 기념물 건축가 및 기술자 국제 총회 (International Congress of Architects and Technicians of Historic Monuments)에서 채택되어 다음과 같은 7개의 결의

안으로 구성되었다.

- ① 복원을 실행하고 자문하기 위한 국제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 ② 복원 사업들은 구조물의 역사적 가치와 특징을 훼손하지 않도록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비판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야 한다.
- ③ 역사 유적의 보존 문제는 모든 국가에서 법률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 ④ 즉각 복원 대상이 아닌 발굴 유적은 보호를 위해 복토를 우선해야 한다.
- ⑤ 복원 사업에 현대적인 기술과 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 ⑥ 역사 유적에는 엄격한 법적 보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 ⑦ 역사 유적을 둘러싼 지역을 보호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테네현장은 역사적 장소와 유적에 대하여 기록을 남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역사적인 조식을 복원하기보다는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아테네 현장의 핵심인 전문가적인 식견과 국가적 차원의 법제화, 역사적 장소와 물질적 맥락에서의 보존, 그리고 보존작업에 현대적 기술과 자재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은 이후에 나타나는 베니스 현장 등의 다른 현장들에서 바탕이 되었다.

### (2) 베니스현장 (The Venice Charter, 1964)

베니스현장은 유산 보존에 있어 가장 권위가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으며, 공식 명칭은 ‘기념물과 유적의 보존·복원을 위한 국제헌장(International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s and Sites)’이다. 베니스에서 열린 ‘제2차 ‘역사기념물 건축가 및 기술자 국제총회’에서 세계 61개국에서 모인 600명의 참가자가 아테네 현장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된 베니스현장을 채택하였으며, 이 회의를 기반으로 1년 뒤인 1965년 ICOMO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설립되었다. 베니스현장은 1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존, 복원, 역사적 유적, 발굴, 출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역사적 기념물의 개념을 확장하여 기념물에 도시와 농촌의 입지 환경을 포함하도록 한 점, 그리고 복원에 기념물의 과거 가치와 보존하고 나타내는 특별한 활동 들을 모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사고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베니스현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역사적 기념물의 개념은 위대한 예술 작품 뿐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서 문화적 중요성을 얻게 된 과거의 평범한 작품에도 적용한다. (제1항)
- 근대 과학과 기술의 사용을 허용한다. (제2항, 10항)
- 기념물의 일부나 전부의 이동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 (제7항)
- 복원은 원래의 재료와 출처가 분명한 문서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추측이 시작되는 순간

중지하고, 새롭게 작업한 부분은 오래된 부분과 구분하고 당대의 작업이라는 표식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제9항)

- 기념물의 건설에 기여한 모든 시대의 요소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11항)
- 제거 대상을 결정하는 작업을 사업 책임자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제11항)
- 없어진 부분에 대한 대체는 반드시 전체와 조화로운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원래의 것과 반드시 구분하여야 한다. (제12항)
- 발굴과정에서 모든 추측에 의한 재건축 작업은 사전에 배제하여야 한다. (제15항)
- 모든 작업에는 반드시 도면과 사진을 갖춘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보고서 형태의 정밀 문서 작업이 수반하여야 한다. (제16항)

베니스현장은 그 이후 모든 국제현장의 기반이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모범 보존사례의 기반이 되고 있다. 베니스현장의 탄생은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에서 집중적으로 재건이 이루어지는 시대적 상황으로 하였다. 파괴된 건물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법론을 이용하는 비판적 시각의 예술가적인 복원 작업이 필요하였으며, 복원 이론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베니스현장을 근거로 하여 1960년대부터 문화유산보존이 공식적인 학문분야가 되었으며, 1962년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UM)’이 설립되고, 1966년 미국 국립역사보존법(US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제정이 이루어졌으며, 1970년대에 들어와 유산 관련 법령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대학에 건축 보존을 가리키는 전공과정이 생겨났고 교과과정이 설치되었다.

### (3) 플로렌스 헌장(Florence Charter)

역사정원에 관한 플로렌스 헌장(Florence Charter for Historic Gardens, 1982)은 역사정원을 역사적이고 미학적 견해에서 대중의 관심을 끄는 조경이나 정원 조성으로 정의하고, 살아있는 기념물로서 조경의 독특한 특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살아있는 식물이며, 이들은 썩거나 재생 가능한 대상으로서 계절의 순환과 자연의 소멸, 예술가와 장인의 불멸에 대한 욕망 사이에 균형을 이룬 모습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특히, 플로렌스 현장은 관리와 보전, 복원과 재건, 용도, 법률과 행정적 보호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식물이 주재료이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현 상태 유지를 위해 즉각적인 교체와 함께 일정 주기로 재생하는 장기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며(제11조), 복원 작업도 정원의 연속적인 진화와 발전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복원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파괴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남아있는 정확한 자료나 거절할 수 없는 기록적 증거를 갖추고 재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제16조). 또한 역사정원은 관상이나 산책을 위해 조성되지만 크기와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는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물리적인 조성이나 문화적 메시지를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제18조). 플로렌스 현장은 문화경관일 널리 평가되기 이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고안된 경관(designed landscape)’인 조경의 물리적 조성을 연관된 문화적 의미보다 더 강조한 측면이 없지 않다.

(4) 워싱턴헌장(The Washington Charter, 1987)

워싱턴헌장은 급격한 도시화와 난개발 현상에 대응하여 역사지구의 보존을 위하여 ICOMOS가 채택한 헌장(Charter for the Conservation of Historic Towns and Urban Areas)으로서 베니스헌장에서 더욱 확장된 개념을 제시하였다.

- 역사도시와 다른 도시 지구의 보존은 도시와 지역계획 뿐 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적 발전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과 반드시 통합하여야 한다. (제1항)
- 역사도시와 다른 도시 지구의 역사적 특성과 이 특성을 표현하는 물질적 정신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항)
-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여는 보존 프로그램의 성공에 필수적이며 장려하여야 한다.

워싱턴헌장은 보존과 도시계획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역사적 특징과 정신적 요소의 가치, 보존 계획에 주민참여를 고려한 첫 번째 ICOMOS 문서로 평가된다. 또한 워싱턴헌장에서는 광범위한 사회적이고 학제적인 맥락에서 현재 도시 수요를 충족하고 공동체와 관계를 맺고 보존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시하고

있다.

- 보존계획에서는 고고학, 역사, 건축, 기술, 사회학, 경제학을 포함한 관련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제3항)
- 주거 개선은 보존의 기본 목표 중 하나로 포함되어야 한다. (제9항)
-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현대적 요소의 도입은 그 특징들이 지역의 풍요로움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막아서는 안 된다. (제10항)
- 역사도시나 도시지구내의 교통은 역사지구 내 주위 환경과 도시조직을 훼손하지 않도록 반드시 통제되어야 하고 주차장을 계획하여야 한다. (제12항)
-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보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모든 연령층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5항)

(5) 버라헌장(The Burra Charter, 1979 제정, 1981·1988 수정, 1999 전면수정, 2013년 7개의 실천 성명을 부가하여 다시 전면 개정)

버라헌장은 문화적 의미를 갖춘 장소를 위한 호주 ICOMOS 헌장을 줄여서 부르는 말로 호주의 보존이론과 실천행위를 이끌어 가고 있다. ICOMOS 호주가 만든 것이지만 많은 국가에서 국제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헌장이다. 버라헌장은 장소(place)와 문화적 의미(cultural significance)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고 평가된다. 2013년 개정판에서 “장소는 지리적으로 정의된 지역을 의미하고, 요소, 객체, 공간, 그리고 경관을 포함하며, 유형적이고 무형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다(Places means a geographically defined area. It may include elements, objects, spaces and views. Place may have tangible and intangible dimensions(제1.1항)”고 제시한다. 버라헌장의 개념에 따르면 장소는 베니스헌장의 ‘기념물과 유적’을 대체하는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되며 문화적 의미에 의해 보완된다.

문화적 의미는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미학적, 역사적, 학술적, 사회적, 정신적 가치를 의미한다. 문화적 가치는 장소 그 자체와 재질, 입지, 용도, 연계성, 의미, 기록, 연관된 장소와 객체에도 내재되어 있다(제1.2항). 버라헌장 1979년 판본에서는 “보

존은 현존하고 있는 재료에 대한 존중에 기반을 두고 물리적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재료를 제공하는 증거를 위조하지 말아야 한다(제3항)”고 제시하였다. 이후 나온 1999년 개정판에서는 제3항에 재료 뿐 아니라 용도, 연계성, 의미도 포함시킴으로써 변화를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보존은 현존하고 있는 재료, 용도, 연계성의 의미를 존중하여야 하며,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필요한 변화에 대하여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2013년의 최신 개정판에서는 “보존의 목적은 한 장소의 문화적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제 2.2항)라고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즉, 바라현장은 보존 원칙에 대한 개념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데 가치를 강조하면서, “장소의 보존은 모든 문화적이고 자연적 의미를 지닌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다른 것을 희생하며 어느 하나의 의미만을 부당하게 강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5.1항)라고 정리하고, “장소는 서로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다양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제1.2항)라고 하면서 가치의 다양성을 제시하고 있다.

바라현장의 배경에는 원주민과 유럽 이주민, 그리고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호주라고 하는 특수한 지리적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바라현장의 실천 성명에는 “바라현장에 원주민 문화에 의미를 가진 장소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바라현장에서는 지금까지 물리적인 성격만 강조하던 방향에서 비물질적이고 무형적인 특성을 포함하여 용도와 연계성, 의미 등을 동일하게 다루는 새로운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특히, 암묵적으로 원주민 문화를 포함하여 지역공동체의 다양성과 그들의 가치를 존중하는 경향이 잘 나타나고 있다.

#### (6)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1994)

일본이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1992년에 일본의 역사도시인 나라에서 개최한 회의 결과물이 바로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1994)’이다. 나라문서는 주기적으로 목조건축물을 해체하고 새로운 재료를 써서 재조립하는 보존의 개념을 국제 사회가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 결과이다. 일본 목조건축물의 보존 방법은 전통적으로 서구 사회에서 원재료를 유지하는 보존방법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나라문서는 아시아적인 관점에서의 진정성과 문화적 가치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나라문서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에 의해 만들어진 유산의 다양성을 강조하며, 문화 다양성은 무형적인 표현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서구 유럽 유산에 기반 한 물질적인 가치와 보편성을 받아들인 베니스현장에서 벗어나고 있다. 즉, 나라문서는 가치와 진정성을 논하면서 문화상대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있다고 평가된다.

나라문서에서는 진정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거짓 없는 정보의 진실한 출처를 강조하였다. 즉, “문화유산의 보존은 그 유산에 부여된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이해하는 능력은 부분적으로 그런 유산 가치에 대한 정보의 출처가 신뢰할 수 있거나 진실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에서는 정보의 거짓 없는 출처인 진정성을 증명하여야 하는 구성 요소로서 형태와 디자인(form and design), 자재와 구성 물질(materials and substance), 용도와 기능(use and function), 전통·기술·관리체계(traditions, techniques and management system), 입지와 환경(location and setting), 언어와 무형유산의 다른 형태(language and other form of intangible heritage), 정신과 감정 그리고 다른 외부와 내적 요인들(spirit and feelings and other internal/external factors)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진정성은 가치에 대한 필수적인 자격이며, 문화유산에 부여된 가치에 대한 판단과 관련 정보에 대한 신뢰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문화에 따라서, 심지어는 같은 문화에서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각자의 문화 속에서 유산 가치의 개별적인 성격과 관련 정보 출처의 신뢰성과 진실성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된다.

나라문서에 대한 반응으로 발표된 것이 ICOMOS 미국에 의한 산안토니오 선언문(1996)이다. 이 문서에서는 미국적인 조건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이 제기되었다. “문화유산의 진정성은 직접적으로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 “한 유산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역사와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진정성을 확인하는데 매우 근본적인 요소이다.” “문화유적의 물질적인 조직은 진정성에 대한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진정성은 아시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2005년 중국 시안에서 개최한 ICOMOS 총회에서는 아시아에서 유산 보존의 모범을 위한 호이안 의정서(Hoi An Protocols for Best Conservation in Asia)를 채택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아시아에서는 유산보존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가치를 조정하는 협상의 결과물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 (7) 나라+20 권고안(The Nara + 20 Recommendations, 2014)

나라문서가 나온 지 20년이 지난 2014년에 나라문서의 성과를 회고한 '나라+20'(2014)이 플로렌스에서 열린 ICOMOS 총회에서 발표되었다. 이 문서에서는 문화 가치와 진정성의 개념 측면에서 나라문서가 문화유산의 범위를 확장하고 문화적 맥락과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전문적인 성과를 이루어 왔다고 평가하면서 실행이 필요한 5개의 핵심 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유산 과정의 다양성: 문화유산의 개념이 다양한 형태와 과정을 전제로 한 사회적 과정이고 새로운 보존 방법론과 기술에 진보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 ② 문화가치의 진화가 주는 시사점: 문화유산이 연속적으로 진화하면서 유산관리의 도전과제가 나타났고 보편적인 보존원칙 보다는 공동체 합의를 통한 새로운 가치 수용과 진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 ③ 다수 이해당사자의 참여: 유산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 ④ 주장과 해석의 갈등: 유산 가치의 갈등 해소를 위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갈등 해소 과정이 필요하다.
- 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유산의 역할: 문화유산이 사회 경제적 이익에 합당하도록 활용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나라+20의 해설서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세계의 경제와 사회 환경의 변화상을 언급하면서 교리적인 문서가 아닌 개방적인 토론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아이디어를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섯 개의 구체적인 사례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

시하였다.

- ① 첫 번째 사례는 유산 과정의 다양성에 대한 사례로 두바이에 주목하여 에미리트 내 역사 도시 지역의 복원과 재건 문제에서 발생하는 진정성과 재건 사이의 중간적 접근을 다루었다.
- ② 두 번째 사례는 가치의 진화와 관련한 사례로 부탄의 고대 불교 사원에서 베니스현장의 재료의 진정성이 현지인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이유로 고대 가치를 보존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에 따른 가치를 수용하는 곳으로 사원을 이해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③ 세 번째 사례는 다층위적 이해당사자 참여와 관련하여 칠레의 옴베르스톤과 산타로라 초석 광산이 유적지를 관리하는 공동체 의식의 유무에 대한 보존 상황이 달라진다는 점을 들었다.
- ④ 네 번째 사례로는 주장과 해석의 갈등과 관련하여 캐나다 노바 스코티아의 그란프레 국가역사 유적지가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어떻게 유산 가치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였는지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 ⑤ 다섯 번째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스페인 알라바 주에 있는 벨레 사라도 데 아나나(Valle Salado de Anana) 내륙 소금 생산지가 회생 과정에서 전통적인 생산 방법과 세대 간의 전승, 공동체 재활성화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 (8) 기타 보존관련 국제 선언서와 문서

스톡홀름 선언(stockholm Declaration)은 1998년 ICOMOS 50주년 기념행사를 맞이하여 스톡홀름에서 보편적 인권과 관련하여 발표한 선언서이다. “ICOMOS는 문화유산의 권리가 인권의 종합적인 부분으로서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무형 전통으로 구성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위협받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런 권리는 개인과 공동체뿐만 아니라 국가와 여러 기관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권리를 보호하는 일은 미래 세대의 권리에 대한 보존이기도 하다”. ICOMOS 문서는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만 하였지만 평등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많은 유산 보호 활동에서 영향력을

미쳤다.

비엔나 양해각서 (Vienna Memorandum on World Heritage and Contemporary Architecture-Managing the Historic Urban Landscape)는 2005년 UNESCO에 의해 비엔나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며 역사도시경관(Historic Urban Landscape)이란 개념을 사용하여 장소에 바탕을 둔 현재와 과거의 사회적 표현양식과 개발을 내재시켜 전체적인 토지이용과 패턴에서 구체적인 건축기법, 현대건축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전통적으로 개발과 보존의 이원화된 장벽을 뛰어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비엔나 양해각서는 역사도시경관에서의 핵심 논점이 사회 경제적 변화와 성격을 포함한 개발의 동태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과거로부터의 전승과 경관의 환경을 존중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에 민감한 접근양식을 택하고,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자문과 전문가의 지식을 함께 결합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임을 밝히고 새로운 보존의 개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파리 선언(Paris Declaration on Heritage as a Driver of Development)은 2011년 파리에서 개최된 ICOMOS 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물리적이고 비물질적 문화유산을 결합하여 지속가능성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인식하고 좀 더 인간적인 얼굴의 개발을 다루고자 하였다. 유산이 개발을 장애하는 요소가 아니라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런 맥락에서 지역발전의 맥락에서 유산에 대한 재고, 예술 건축으로의 회귀, 관광과 개발, 유산과 경제의 4가지 주제를 다루면서 유산의 개념을 세계화 시대에 개발을 촉진하는 동축진제로서의 확장하였다.

한편, 유네스코는 정부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유산 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유산의 보존을 위한 공식적인 계획의 필요성, 정부 주도의 위험 유산 관리를 위한 자문기구와 유산 보호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구성, 역사적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개발, 공공기관을 통해 오래된 건물 재생을 위한 건축 정책 입안, 경관보호와 역사적 장소 환경 보존을 위한 규정 정비, 문화적 가치를 보유한 현대 집합 건물군 보

호, 보호에 수반하는 재생정책 수립, 보호 지정에 상응하는 보수 지불. 역사적 장소 소유자에 대한 세금 혜택, 정부의 특별지원금이나 보호기금을 통한 재정 지원, 역사적 장소 이용을 위한 현대적인 표준안 마련과 지원금, 보조금, 대출금 등 장려, 민간과 공공부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과 재생을 위한 저금리 장기 대출 장려, 현대의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건물과 화재 예방을 위한 적절한 대체물이 적용되고 보존과 호환할 수 재생사업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륙 규모에서 제정된 유산의 보호 원칙은 1975년에 유럽의회에서 채택한 건축 유산에 대한 유럽 헌장(European Charter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에서 찾아볼 수 있다.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유럽의 건축 유산에 대한 내용은 기념물적인 가치와 도시와 마을에 있는 건물군에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건축물과 그 주변 환경간의 유기적 관련성과 함께 건축물이 정신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 도심과 유적지는 조화로운 사회적 균형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점과 교육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3. 결론, 보존 관련 국제원칙의 적용과 지향점

보존관련 국제 헌장과 원칙은 국제헌장과 국제협정, 표준안과 지침서, 모범사례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제조항이 아니라 자발적인 장려와 권고안의 성격으로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개념적 진보와 확장이 이루어져왔다. 주요한 보존 헌장으로 는 역사적 장소와 유적에 대한 기록의 필요성과 함께 복원보다는 원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아테네헌장과 유산보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서인 베니스헌장을 들 수 있다. 베니스헌장은 16개 조항에서 기념물의 개념, 근대 과학 기술사용의 옹호, 이동 불허, 추측에 의한 복원 불가, 모든 시대적 요소의 중시, 전체와의 조화성과 정밀 기록의 중요성 등을 보존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나온 워싱턴헌장은 역사지구 보존을 위한 원칙으로 계획기제의 도입, 역사적 특징과 정신적 요소의 가치 부각, 주민참여를 고려하였으며, 주변 경관과의 조화, 유산해석의 중요성 등을 적

시하였다. ICOMOS 호주에서 제정한 바라현장은 4차에 걸친 수정을 통하여 장소 개념과 문화적 의미를 새로운 유산의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보존은 특정 대상뿐만 아니라 이것과 연계되어 있는 객체를 모두 망라하고 무형의 가치까지 포함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라문서는 진정성에 대한 개념을 거짓 없는 정보의 출처로 정의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또한 2014년에 나라문서를 재검토한 나라+20에서는 유산과정의 다양성, 문화 가치의 진화, 다수 이해당사자 참여, 주장과 해석의 갈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유산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진정성과 다양성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

이밖에 스톡홀름선언에서 강조하듯이 문화유산은 인권과 미래세대의 권리와 관련되어 있으며, 비엔나 양해각서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와 현대적인 경관과 건축물, 보존기법을 모두 망라하는 역사도시경관의 시각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 파리선언문에서 보듯이 유산의 개념은 단순히 개발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촉진하는 새로운 동인으로서 그 개념을 확대하여 적용 가능한 것이다. 또한 유산의 보존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역할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유산의 가치가 단순한 유산 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가치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국제적인 현장과 원칙을 통한 변화 과정을 보면 베니스현장에서 문화 유적에 대한 원재료의 보존과 물질적인 원형을 강조하는 추세에서부터 워싱턴현장에서와 같이 유산 주변 환경에 대한 보존으로 개념이 확대되고, 바라현장에서 보이듯이 장소와 문화적 가치로 유형유산의 가치뿐 아니라 무형유산 가치로 보존의 개념이 확대되었다. 보존에 대한 보편적 원칙이 아니라 지역적인 다양성과 문화적 상대주의가 더욱 강조되는 방향으로 국제 보존원칙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유산의 보존은 최소 개입의 원칙, 온전한 정보의 기록, 추론에 의한 복원 금지 등의 국제적인 보존 윤리에 입각한 원칙을 준수하면서, 지역적 특색에 부응하는 유산의 보존방법과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무형의 가치를 발굴하며, 유산의 해석을 통해 유산 관광산업 등을 촉진하여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방

향에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통합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산의 보존관리를 지역계획의 일부로 통합하여야 하며, 유산의 보존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유산 가치 창출 체제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 문헌

- 최재현, 2016, 아시아 성곽네트워크 구축의 정당성과 구체적 전략 연구, 남한산성 연구총서 7권,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104-129.
- 최재현, 2016, 성곽유산 보존 관련 국제원칙과 지향점: 국내 성곽유산 교류 네트워크 구축의 의미, 아시아 성곽유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2016 남한산성 국내학술 심포지엄 기조연설, Proceeding, 2-16.
- Feiden, Bernard M., 1982, "Conservation of Historic Buildings," ed. Gilian Lewis and Derek Linstrum, Technical Studies in the Arts, Archaeology and Architecture, London, Butterworth Scientific.
- Kalman, Harold, 2014, Heritage Planning: Principles and proces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Warren, John, 1996 "Principles and Problems: Ethics and Aesthetics," in Stephen Marks ed. Concerning Buildings Studies in Honor of Sir Bernard Feiden, Oxford, Butterworth-Heinemann, 34-54.
- <http://www.icomos.org/en/>
- 교신: 김숙진, 05029,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대학원 세계유산학과  
(이메일: sjkim@konkuk.ac.kr)
- Correspondence: Sook Jin Kim, Dept. of Geography, College of Science, Konkuk University,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Korea 05029  
(e-mail: sjkim@konkuk.ac.kr)

투 고 일: 2016년 12월 9일  
심사완료일: 2016년 12월 15일  
투고확정일: 2016년 12월 16일

# 국제협력으로서의 세계유산: 세계유산협약 국제지원금 사업 현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언

조유진\* · 김숙진\*\*

## World Heritage a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ternational Assistance under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Sugges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ugene Jo\* · Sook Jin Kim\*\*

**초록:** 세계유산기금의 국제지원금은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이상을 실현시킬 대표적인 제도이다. 본 논문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세계유산기금의 지원내역을 분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공동체 참여와 같은 협약의 주요 추진 정책이 어느 정도 국제지원금 사업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분석결과 세계유산기금의 국제지원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신규 등재 지원에 상당부분 치우쳐져 있는 경향을 보여 보존관리에 역점을 두는 협약의 기본적인 목적에도 상당부분 위배되며 최근 협약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지역공동체 참여와 같은 주요 정책을 확산시키는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15년간의 주요 목표로 수립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류의 사업을 우선시하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실제로 지역 공동체 훈련 사업 등에 심의 가산점을 주는 방법, 그리고 국제지원금을 신청하는 주체가 지속적으로 지역공동체에 대한 사항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청 양식에 해당되는 항목을 서술하게 하는 방법 등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주요어:** 세계유산기금, 국제지원금, 국제협력,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공동체, 참여

**Abstract:** International Assistance under the World Heritage Fund is a system apt for fulfilling the idea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protection of World Heritage. By analyzing fund projects under International Assistance from 2010 to 2016, this paper examines how International Assistance has reflected recent policies that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mplemented such a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mmunity participation. The result shows that the recent increases in preparatory assistance to help the nomination files for new properties' inscription not only run counter to the spirit of the Convention to protect heritage but also have limitation to push forward the recent policies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mmunity participa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Convention need to prioritize and fund projects complying with U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rovide additional points in evaluation to local community empowerment projects, or request a State Party to describe how their project includes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ir application form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Key Words:** World Heritage Fund, International Assist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community, participation

### 1. 서론

세계유산협약은 대체로 전 세계의 가치 있는, 유명한 문화나 자연유산을 등재하는 것으로 지명도가 높은 국제협약사업이다. 세계유산(World Heritage)이라

는 명칭은 이제 하나의 관광 브랜드로까지 확장되었고 등재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이 많아지면서 많은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자국의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세계유산협약의 본 명칭은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 건국대학교 세계유산학과 박사과정(World Heritage Studies,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dawnlorn@naver.com)

\*\* 건국대학교 지리학과/대학원 세계유산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Geography Department, College of Science/World Heritage Studies,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sjkim@konkuk.ac.kr)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으로서 협약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유산의 “보호”에 놓여있다. 유산의 등재는 보호할 대상을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진행되는 선행과제이고 협약의 핵심은 이렇게 선별된 유산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이 모두 함께 보호를 한다는 것에 있다.

유산의 국제적인 보호를 이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활동을 할 수 있는 금전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문적인 인력이나 기구, 기술적인 방법을 투입하고 적용하고자 하여도 실제로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세계유산협약은 이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협약 내에 세계유산기금(World Heritage Fund) 설립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의 보호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세계유산기금의 운영을 위해서 협약에 가입하는 회원 국가는 모두 연간 단위의 협약 의무분담금을 제공해야 하고, 분담금 액수는 각 회원국의 경제수준에 맞춰서 설정이 된다. 물론 모든 회원국은 세계유산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수준이 발달한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서 지원 기회를 활용하곤 한다. 따라서 세계유산기금은 세계유산협약의 주요 목적인 유산의 보호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세계유산협약은 총 38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이 중에서 세계유산기금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이 15조에서 18조, 그리고 이 기금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지원금(International Assistance)에 대한 내용이 19조에서 26조를 차지하고 있다(UNESCO, 1972). 전체 협약 내용 중에서 31%에 해당하는 내용이 세계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과 이를 활용하여 어떠한 보호활동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꾸려져 있다. 이는 그만큼 세계유산협약이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고 실제로 세계유산기금이 그 보호가 가능하게끔 역할을 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세계유산협약의 취지에 맞는 주요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사업은 바로 이 세계유산기금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금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국제지원금 사업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으로 세계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상을 실현시킬 뿐 아니라 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이다.

최근 협약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 방향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도모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유엔이 2000년부터 추구하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만료되는 시점이었던 2015년 개발의 새로운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를 설정하면서, 유네스코에서도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절차 내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정책 문서를 만들기로 결의하고 이 문서가 2015년 제20차 세계유산협약 총회에서 채택되었다(조유진·김숙진, 2016). 지속가능한 발전이 전체 유엔 차원의 발전목표로 설정된 것은 2015년이지만 이미 그 이전에도 MDGs의 한계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가 여러 분야에서 있어왔으며, 세계유산 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유산의 관계에 대해서 천착하여왔다. 예를 들어 세계유산위원회는 2005년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6항과 119항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포함시켰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유산의 관계에 대한 학술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한 바 있다(조유진·김숙진, 2016).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2000년대 이후 세계유산분야에서 두드러진 큰 흐름의 변화는 바로 유산의 보호와 관리, 활용에 있어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 뉴질랜드에서 열린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2002년 부다페스트 선언에서 제시된 세계유산협약의 전략목표인 4C, 즉 보존(Conservation),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신뢰도(Credibility), 그리고 소통(Communication)에 덧붙여 공동체(Community)를 추가하여 5개의 전략목표로 수정하였다. 이는 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이상을 실현시킬 대표적인 제도인 세계유산기금의

국제지원금 사업은 현재 협약에서 우선적으로 내걸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도모하는 정책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가? 본 논문은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2005년에 포함되었고, 세계유산협약 전략목표로 공동체가 추가 도입된 것이 2007년이라는 점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세계유산기금의 지원내역을 분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공동체 참여와 같은 협약의 주요 추진 정책이 어느 정도 국제지원금 사업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향후 협약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 반영되는 동시에 이러한 정책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세계유산기금의 사용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 2. 세계유산협약 내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의 채택

새로운 세계유산의 등재가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세계유산협약은 유산 분야에 있어서 규범적인 내용을 주도하는 제도로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유산의 종류, 유형, 범위에 대한 부분을 확장시켜 나가기도 하고 이와 더불어 유산의 효과적인 보호 정책과 방법을 새롭게 제안하는 국제장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런 정책적 발전으로는 유산의 물리적 요소에 대한 보호 뿐 아니라 주변 경관에 대한 보호, 직접적인 재료에 대한 보호 뿐 아니라 유산에 깃든 정서, 기풍, 의미를 보호하는 방법으로서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이런 제도적 발전에 더해 세계유산협약은 이제는 유산의 보호에 있어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점을 채택하여 주된 정책의 기본적 체계로 삼고 있다.

유네스코는 국제연합(UN)에서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는 유일한 기구이기 때문에 폭넓은 유엔 차원에서의 정책 논의 결과를 자체의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네스코가 운영하고 있는 세계유산협약의 정책들도 2015년 범 UN 차원에서 설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기본 방

향에 맞춰서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유네스코는 이런 UN 차원의 목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세계유산협약의 절차 내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 반영에 관한 정책(Policy on the integration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 into the processes of the Convention, 이하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을 담은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제까지 운영되어 온 세계유산협약의 체계 안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점이 잘 녹아들고 투영될 수 있게 하는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문서는 협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이 향후 세계유산을 보존하는 관리체계나 관리계획 수립, 이행의 과정과 유산 보호에 관한 국내법의 제·개정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사항들을 반영하고 삽입을 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유산 분야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과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침들에 대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때 명심해야 할 원칙 세 가지로 인권, 평등,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성을 꼽는다.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을 꾀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포괄적인 사회 발전과 경제 발전, 그리고 평화와 안전 조성 등이 포함된다. 이 문서의 특징은 세계유산협약의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점들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이런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들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한 번 더 바라보고, 정책적인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듬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UNESCO, 2015a).

이런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사회, 환경, 경제 발전이 서로 형평성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세계유산협약에서는 보존, 지속가능성과 발전 사이에서 적정하고 공정한 균형을 도모하여 세계유산의 보호가 사회적, 경제적 발전 및 우리 공동체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적절한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즉 세계유산의 보호는 단순히 유산을 보호하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산이 속한 공동체의 삶

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하고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유산 보호에 대한 사회적 당위성을 확보한 것이다(조유진 · 김숙진, 2016).

세계유산협약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협약의 여러 절차에 녹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개념적인 차원에서의 반영은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이를 실질적인 사업으로 뽑아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허한 정책으로 남지 않고 실제로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할 때는 세계유산기금의 활용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세계유산협약에서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로 제시되는 유산의 보존을 이루어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세계유산기금의 지원 심의와 지원 방침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3. 세계유산기금의 구성과 지원내역

세계유산기금은 연간 약 4,000,000 USD의 규모로 구성이 되며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의무분담금으로 충당된다. 각 국가는 유네스코에 가입함에 따라서 국가의 국민총소득(GNI) 수준에 따라서 산정되는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하는 국가는 유네스코 분담금과 별도로 세계유산협약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한다. 협약의 분담금은 협약 제 16조에 의해서 회원국 총회에서 2년마다 적정한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국가가 내는 유네스코 분담금의 1%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사실상 현재 이미 모든 국가가 유네스코 분담금의 1%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행된 지 오래인 지라 현실적으로 국가별 액수가 더 이상 상향 조정될 수 없는 상황이고,<sup>1)</sup> 이미 지구상 거의 모든 국가가 가입한 상황이라서(193개국) 국가 확충에 따른 기금 확충도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각 국가의 의무분담금으로 이루어진 세계유산기금은 매년 세계유산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협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는 국제지원금 신청 양식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매년 허용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을 받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는 국제지원금의 취지와 맞으면서 지원하는 사업분야에 적합하여야 한다. 만약 허용된 예산 한도를 벗어난다면 사업 선택에 대한 우선순위를 적용하는데 가장 최우선은 UN 개발정책 경제사회위원회 기준으로 최빈개발국(Low Income Economy)이나 저소득경제 지수(Low Income Economy)로 따져서 가장 낮은 국가가 차지한다. 그 이후로는 세계은행 기준의 하위 중간소득 국가(Lower Middle Income Country), 군서도서개발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 그리고 분쟁 후 상태에 있는 국가 순서로 지원이 된다.

2016년 현재 국제지원금에서 지원된 사업은 총 2041건으로 1978년 첫 세계유산이 등재되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총 43,043,631 USD가 각종 사업에 승인되었다.<sup>2)</sup> 국제지원금으로 지원되는 사업 분야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긴급지원(Emergency Assistance), 보존관리(Conservation and Management), 그리고 준비지원(Preparatory Assistance)을 들 수 있다. 긴급 지원은 말 그대로 재난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에 타친 유산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자금의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확보된 금액이다. 보존관리는 세계유산 사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보존관리 행위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다. 그리고 준비 지원은 날로 방대해지고 전문적으로 발전하는 세계유산 등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사업 항목이다. 이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72%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협약의 주된 목적을 이행하는 보존관리 분야이다(표 1). 그리고 긴급 지원이나 보존관리 분야 내에서 지원된 사업내역을 유형별로 분석한다면 기술협력에 관한 사업이 41%, 훈련 사업이 51%, 그리고 홍보 사업이 8%를 차지한

〈표 1〉 국제지원금 지원 사업 분포 (1978년-2016년)

분야	긴급지원	보존관리	준비지원
비율	8% (172건)	72% (1525건)	20% (422건)

출처: 세계유산센터 국제지원금 항목 웹사이트(<http://whc.unesco.org/en/intassistance/action=stats>)

〈표 2〉 사업유형별 지원 비율 (1978년-2016년)

유형 비율	기술협력	훈련	홍보
	41% (641건)	51% (775건)	8% (126건)

출처: 세계유산센터 국제지원금 항목 웹사이트(<http://whc.unesco.org/en/intassistance/action=stats>)

〈표 3〉 항목별 지원가능 액수와 결정과정(단위: USD)

구분	준비지원	보존관리			긴급지원
		기술협력	훈련	홍보	
세계유산센터 소장 결정	5,000 까지	5,000 까지	5,000 까지	5,000 까지	5,000 까지
세계유산위원회 위원장 결정	5,001-30,000	5,001-30,000	5,001-30,000	5,001-30,000	5,001-75,000
세계유산위원회 심의 결정	해당없음	30,000 초과	30,000 초과	해당없음	75,000 초과
한도액	30,000	없음	없음	10,000	없음
자문기구 검토	5,000 초과 필수	5,000 초과 필수	5,000 초과 필수	5,000 초과 필수	5,000 초과 필수
국제지원금 심의위원회 검토	5,000 초과 필수	5,000 초과 필수	5,000 초과 필수	5,000 초과 필수	해당없음

출처: 세계유산센터 국제지원금 규칙(<http://whc.unesco.org/en/intassistance/#rules>)

다(표 2). 이 때 개별 사업건수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준비지원 사업 중에서도 일부 기술협력이나 훈련에 포함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가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예산안을 수립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청한 뒤, 작은 액수일 경우에는 세계유산기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만으로, 또는 큰 액수일 경우에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사까지 거쳐서 필요한 금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심사를 받아야 하는 액수는 분야별로 다르고 협약의 본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하는 기술협력이나 훈련연구 분야는 상한액이 없는 것에 비해서 준비지원금이나 교육 홍보사업은 각각 30,000 USD과 10,000 USD로 상한액이 제한되어 있다. 긴급지원금이나 5,000 USD 이하의 소액 지원의 경우는 연중 아무 때나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제지원금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세계유산센터로 신청을 해야 그 다음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표 3). 국제지원금 사업만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사무국과 자문기구 그리고 세계유산위원회 의장으로 구성된 소규모 심의위원회이다. 심의위는 모든 신청이 접수되고 난 이듬해 1월에 한번 모여서 심의를 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4월에 심의를 마무리해서 해당년도에

배당된 예산을 집행하는 일정으로 움직인다.

모든 사업은 사업의 적합성과 충실성을 비롯해서 예산수립의 합당성까지 평가를 받게 된다. 실제로 세계유산협약의 정책적 방향성과 이행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이 승인되지 않고,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집행되지 못하고 회수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 하지만 사업의 성격이나 그 규모로 보아서 세계유산기금의 사용처와 지원내역은 사실상 세계유산협약의 가장 주된 목적이자 이상을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 초기부터 지금까지 기금에서 지원된 여러 사업 내역을 살펴봄으로서 협약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가늠할 수도 있다.

#### 4. 2010-2016년간 국제지원금의 사용 내역

최근의 국제지원금 지원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국제지원금의 사업내역을 분석해보면 총 134건의 사업이 승인되었고 그 중에서 긴급지원 사업은 19%, 보존관리 사업이 49%, 준비지원 사업이 3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표 4).

이를 1978년부터 현재까지 집행된 전체 국제지원금의 분야별 지원 건수 비율과 비교해보면 보존관리 사업이 축소되고 오히려 신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표 4〉 2010-2016년간 국제지원금 사업유형별 승인건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긴급지원	7	4	5	1	1	6	1	25
보존관리	기술협력	6	5	4	3	10	10	45
	훈련	4	4	1	1	3	1	15
	홍보	4	0	0	0	0	0	6
	소 계	14	9	5	4	13	11	66
준비지원	7	6	9	6	8	3	4	43
합 계	28	19	19	11	22	20	15	134

출처: 세계유산센터 국제지원금 항목 웹사이트(<http://whc.unesco.org/en/intassistance/action=stats>)

〈표 5〉 기간에 따른 분야별 국제지원금 승인건수 비율 비교

구 분	긴급지원	보존관리	준비지원
1978-2016	8%	72%	20%
2010-2016	19%	49%	32%

출처: 세계유산센터 국제지원금 항목 웹사이트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http://whc.unesco.org/en/intassistance/action=stats>)

〈표 6〉 기간에 따른 유형별 국제지원금 승인건수 비율 비교

구 분	기술협력	훈련	홍보
1978-2016	42%	50%	8%
2010-2016	68%	23%	9%

출처: 세계유산센터 국제지원금 항목 웹사이트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http://whc.unesco.org/en/intassistance/action=stats>)

준비지원 사업이 최근 들어서 매우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 계속해서 매년 새로운 유산이 신규로 등재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매년 국제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유산은 늘어난다. 실제로 2010년부터 최근 7년간 새롭게 등재된 세계유산은 162건이다(세계유산센터 세계유산목록 웹사이트). 그렇다면 지원 대상이 되는 세계유산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와 관련된 사업보다 새로운 세계유산의 등재의 지원을 위해서 준비되는 사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세계유산 협약이 그 원천적인 목적은 보존관리에 있다고 천명할지 몰라도 실제 이행되는 방식은 등재에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존관리 사업에서 지원되는 사업의 항목들을 살펴보면 기술협력과 관련된 사업들과 훈련에 대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6). 홍보 사업도 지원되지만 사실상 매우 제한적이며 실제 승인될 수 있는 액수도 최고 10,000 USD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사업에 비해서 건당 액수도 훨씬 소규모이다. 사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기술협력 분야의 사업이다. 이를 다시

한 번 전체기간 중의 유형별 사업 비율과 비교를 해 보면 홍보는 거의 그대로인 반면, 훈련 사업에 대한 지원이 거의 반으로 줄고, 기술협력 관련 사업 비율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표 6).

기술협력으로 분류되는 사업은 세계유산협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건축물 내의 온도 조절시스템의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거나, 특정한 유산 지역의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 또는 완충구역과 유산구역의 경계선 설정을 검토하여 조정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유산의 원활한 보존관리를 이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들이고 절대로 이러한 사업들의 필요성이나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한 사업은 실제 유산관리자의 역량을 장기적으로 증진시킨다거나, 유산에 대한 지역 공동체의 인식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환경과 맥락을 조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흔히 할 수 있는 비유로는 빵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종류의 지원이 아니라 빵을 직접 사주는 종류의 지원인 것이다.

2015년 공식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책 문서가 채택되었는데 이런 정책문서가 채택되기 위

해서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관련 주제에 대한 회의를 하고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있었다. 또한 2012년 협약 채택 40주년의 주제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역할이 선택되어 앞으로 세계유산 분야에서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이해관계자로 지역주민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다. 이런 전반적인 정책의 흐름과 변화 맥락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세계유산기금으로 지원되는 국제지원금의 사업 내역도 이와 비슷한 궤적을 가지고 흐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사업 내역을 보면 이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훈련 분야 사업을 보면 2014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 매년 1건만이 지원되고 있고 그나마도 그 내역을 보면 대부분 기술적인 역량을 증진시키는 훈련 프로그램들이지 전반적인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공동체 훈련 프로그램이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사업 등은 매우 드물다. 2010년에 지원된 4개 훈련 사업 중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하나의 사업만이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종교 공동체의 역할(Role of Religious Communities in the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Properties)에 대한 것이었고, 2011년에도 4건 중 1건만이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존과 활용에 대한 국제 역량강화 워크숍(Orga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capacity-building workshop “World Heritage properties : conservation and u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지원이었다. 그러나 이나마도 2012년부터는 2016년까지는 훈련 사업이 1건으로 줄어들면서 공동체의 역량강화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하는 사업들은 지원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3건의 훈련사업이 지원되었던 2014년에 탄자니아 응고롱고로 보호구역의 야생동물 보호 및 생태계 관리와 조화롭게 지속가능한 생활을 위한 지역공동체와 이해관계자 역량강화 사업(Building the capacity of local communities and stakeholders for a dialogue towards sustainable livelihoods in tune with wildlife protection and ecosystem management in Ngorongoro Conservation Area)이 최근 들어 수행된 유일한 지역공동체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업이다.

## 5. 결론: 협약의 방향성이 반영된 세계유산 기금의 사용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이 모두 일정부분 기여해서 조성된 세계유산기금에서 제공되는 국제지원금은 협약의 가장 주된 목적과 중심적인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중요한 예산 수단이기 때문에 협약의 이상이나 목적을 달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사업 분야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의 분야나 유형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부분 협약의 정책 흐름과는 상반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국제지원금은 하나의 사업에 지원되는 액수가 단일한 사업 예산으로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 지원금을 기반 삼아 추가로 해당 국가에서 국내 예산을 받는다거나 외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의 사업을 지원하느냐가 협약의 정책에 대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지원된 국제지원금의 사업 내역은 근래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지역 공동체의 역량 강화, 참여도 증진과 같은 내용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국제지원금의 사업 내역은 철저하게 기금을 신청한 주체인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신청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협약 전체의 방향에 부합한 사업이 시기적절하게 맞춘 듯이 신청되기는 쉽지 않고, 해당 국가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사업들이 신청된다는 한계는 있다. 하지만 이런 지원사업의 경향은 그동안 유네스코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개별 국가들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큰 파급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제지원금의 지원 우선순위에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우선순위 뿐 아니라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사업 유형에 대한 사항도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향후 15년간의 주요 목표로 수립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류의 사업을 우선시하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실제로 지역 공동체 훈련 사업 등에 심의 가산점을 주는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국제지원금을 신청하는 주체가 지속적으로 이런 지역공동체에 대한 사항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청 양식에 해당되는 항목을 서술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국제지원금의 경우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신청서 양식을 채워야 하는데 여기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사업 제목, 장소, 어떻게 세계유산에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시간 계획, 사업의 필요성, 목표, 예상 결과, 예상 과정, 평가 및 보고 계획, 사업 수혜 주요 대상자, 예산 내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UNESCO, 2015b). 여기에 실제로 지원 사업에 대한 지역 공동체의 참여 여부와 전반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에 동 사업이 기여하는 바 등을 서술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유효한 방법일 것이다.

세계유산기금의 국제지원금 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세계유산협약의 정책 흐름에 맞는 사업들은 거의 지원받고 있지 않으며, 신규 유산 등재가 아니라 보존관리에 역점을 두는 협약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마저도 상당부분 위배하는 양상을 보인다. 앞으로 세계유산협약이 효과적이고 수준 높은 유산의 보호 체계와 정책을 제시하는 규범 도구로서의 역할을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세계유산기금으로 실시되는 사업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주

- 1) 세계유산협약은 현재 총 192개국이 가입한 협약으로서 협약의 내용을 수정한다면 192개 국가가 국내 검토를 거쳐서 다시 한 번 모두 가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협약의 조항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2) 세계유산센터 국제지원금 항목 웹사이트 (<http://whc.unesco.org/en/intassistance/> 2016.12.16. 접속), 승인금액의 총액과 실제 지원금액은 사업 집행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승인금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 문헌

조유진 · 김숙진, 2016, 고도보존육성법과 세계유산 협약의 접점에서 찾은 역사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참여방법: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3).  
세계유산센터 세계유산목록 웹사이트(<http://whc.unesco.org/en/list/&order=year> 2016.12.18. 접속)

UNESCO, 1972.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UNESCO, 2015a, Policy document on the integration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 into the processe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UNESCO, 2015b,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nexes 8. International Assistance Request Form.

교신: 김숙진, 05029,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대학원 세계유산학과 (이메일: sjkim@konkuk.ac.kr)

Correspondence: Sook Jin Kim, Dept. of Geography, College of Science, Konkuk University,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Korea 05029 (e-mail: sjkim@konkuk.ac.kr)

투 고 일: 2016년 12월 5일

심사완료일: 2016년 12월 12일

투고확정일: 2016년 12월 15일

#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ODA)의 전략과 방향: 방글라데시 마하스탕가르 유적지를 중심으로

김 귀 배\*

## Strategy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the field of Cultural Heritage in Korea: Focusing on the Site of Mahasthangarh

Kwibae Kim\*

**초 록:**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입을 계기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으나 대부분 경제, 교육분야의 인프라 개발 위주로 진행되어왔다. 문화ODA는 타분야에 비해 전반적으로 미미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문화 분야중에서도 문화유산ODA의 경우,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몇 해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업이 협력국 세계유산이나 무형유산분야 보존관리지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체계적인 ODA사업의 추진을 위해 심도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유산분야의 ODA사업에 대한 연구는 거의 되어 있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최근 문화유산분야 ODA 사업의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문화유산 ODA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문화유산분야의 ODA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망해 보는 한편, 방글라데시 마하스탕가르(Mahasthangarh) 유적지의 사례조사를 통해 향후 문화유산 분야의 바람직한 한국 ODA사업의 전략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어:** 세계유산, 유네스코, 공적개발원조, 유산등재, 마하스탕가르

**Abstract:** The Republic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creased rapidly after the country joined the OECD DAC in 2010. However, Korean ODA has focused mainly on the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in underdeveloped countries in the economic and educational fields. The Korean Government has allocated a relatively small budget for ODA in the field of culture. Cultural heritage receives a particularly small proportion of the budget, which is mostly devoted to the preservation of world heritag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cultural heritage ODA,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this type of ODA. More in-depth research is required to give the Korea a basis on which to set a desirable strategy for ODA in this field.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overall situation of ODA in Korea and suggests some potential ways to develop a desirable ODA strategy in Korea,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cultural heritage, by examining the case of Mahastahngarh site in Bangladesh.

**Key Words:** World Heritage, UNESCO,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Register, Mahasthangarh

### 1. 서론

우리나라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ODA)은 아직 경제나 교육 등 타분야에 비해서 미미한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에서 문화의 역할이 강조되고 문화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

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 규모나 실행방식에 있어서 선진 공여국에 비해 미약하고 상당부분이 유네스코(UNESCO), 세계관광기구(WTO),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등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사업을 통해 집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화 분야중에서도 문화유산ODA의 경우, 본격적인

\* 건국대학교 대학원 세계유산학과 박사과정(World Heritage Studies,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darongi7@gmail.com)

궤도에 오른 것이 몇 해 되지 않았고 협력국 세계유산이나 무형유산분야 보존관리지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체계적인 ODA사업의 추진을 위해 심도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분야, 특히 문화유산분야의 ODA사업에 대한 연구는 거의 되어 있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최근 문화유산분야 ODA 사업의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문화유산 ODA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유산분야의 ODA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망해 보는 한편, 방글라데시 마하스탕가르 유적지의 사례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아가 향후 문화유산 분야의 바람직한 한국 ODA사업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화ODA와 관련된 각종 워크숍, 심포지엄 등 다양한 학술회의의 보고서를 살펴 보면서 한국의 문화ODA 특히, 문화유산분야 ODA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보면서 유의미한 결론 도출을 시도하였다. 둘째, 지난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관련 워크숍에 참가하여 얻은 결론들을 분석하고 향후 시사점들을 분석해 보았다. 셋째, 공식문서 이외에 전문가들의 발표내용을 포함한 관련정보들을 정리하여 검토하였다.

## 2. 문화유산 ODA<sup>1)</sup>사업의 현황

한국이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한 것은 선진 공여국에 비해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이태주(2014)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87년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을 모델로 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치하였고 1991년에는 일본국제협력사업단(JICA)을 모방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원조 공여국이 되었다.<sup>2)</sup>

한국이 국제개발원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온 것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시대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무역 10대 강국으로서 지구촌이 당면하고 있는 기아, 여성 등 여러 의제 해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후 ODA예산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분야 ODA가 새로운 ODA의 사업 분야로 급부상하게 되었고, Post 새천년개발목표 의제로 문화분야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UN차원에서 논의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분야 ODA사업은 사업규모나 예산에 있어 다른 분야에 비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태주에 의하면 문화관광체육부가 문화ODA를 10대 핵심 추진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역사문화도시조성계획’ 이외에는 한국형 ODA모델이 포함된 협력사례가 아직 없으며, 대부분의 예산은 유네스코와 세계관광기구(WT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을 통한 국제기구 협력사업이 주종을 이룬다.<sup>3)</sup>

문화유산분야는 2000년대초 유네스코를 통해 북한 고구려고분 보존사업에 신탁기금을 제공한 것이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문화유산분야의 ODA자금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4가지 분야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첫째,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를 중점 지원하는 동남아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 둘째,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분야에서 진행되는 협력국 유네스코 유산 역량강화사업 셋째, 라오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 몽골, 미얀마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문화재 보존처리 장비 지원 및 교육사업 넷째,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ODA로 분류할 수 있다.

## 3. 한국 문화유산 ODA 사례

동남아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은 3가지 사업으로 나뉘는데 주로 문화재청의 지원으로 한국문화재재단이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라오스 참파삭 흥낭시다 사원의 보수 및 정비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1년 시작되었는데 주로 발굴조사, 고증연구 및 기초조사 그리고 흥낭시다의 보수가 주를 이룬다. 문화재청 ODA의 핵심사업으로 분류된다. 둘째, 캄보디아 프레이피투 사원 지원사업은 비교적 최근인 2015년 시작되었는데 3개년 계획으로 2018년까지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군내에 프레이피투 사원 5개의 기초조사 및 복원정비계획안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주로

기초조사연구, 복원계획수립, 복원설계 및 사후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미얀마 바간 유적 보존관리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바간 유적내 난파야 사원, 짜 쿠 우민 사원 2곳을 대상으로 보존환경 조사 및 구조안전관리, 유적보존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역량강화사업은 한국문화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등 다수의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주로 협력국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 기준 등에 관한 역량 강화 지원사업으로서, '16년 실시된 라오스, 방글라데시 세계유산 등재준비 지원사업, '16년 라오스 및 캄보디아에서 실시된 무형유산보호제도 구축, 기록화 및 보호 지원사업, 16년 아태지역 10개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기록유산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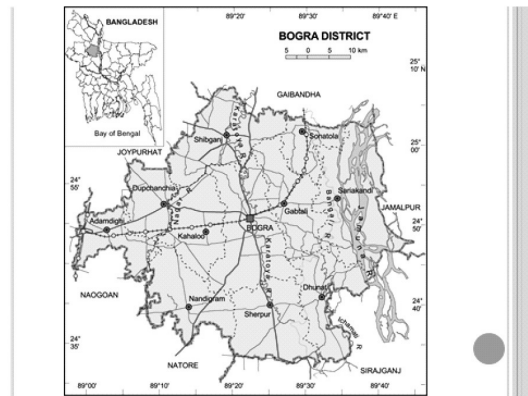
문화재보존처리 장비지원 및 교육사업은 KOICA와 문화재청이 지원하고 한국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보존처리 장비 및 시설 확충을 통해 협력국의 보존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총 7개국을 지원하였다. 2년에서 3년 단위의 중기 지원으로 이루어지는데 1차년도에는 장비 사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고 2차년도 부터는 장비 지원과 현지 기술교육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라오스의 경우, 한국문화재단에서 2015년부터 2017년간 3년 동안 라오스 정보문화부에 장비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방글라데시 국립박물관에는 기자재 지원 및 현지 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ODA사업은 가장 일반적인 것이 국제기구 즉 유네스코(UNESCO), 국제문화유산보존협력회의(ICCRUM),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의 의무분담금 납부하는 방식의 지원이다.<sup>4)</sup> 이외에도 국제기구와 양해각서(MOU)를 통해서 중점협력국에 신탁기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태지역 세계유산 보존·복원 신탁기금으로 40만불을 유네스코에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무형유산분야의 정기보고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에 30만불을 지원하겠다고 지난 12월 무형유산협약정부간위원회에서 약속한 바 있다. 또한 ICCROM에도 아태지역 문화재 보존·복원 신탁기

금으로 20만불을 공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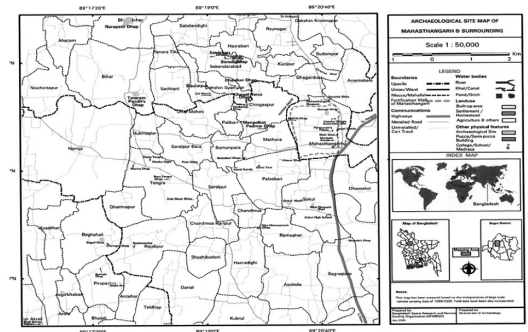
#### 4. 방글라데시 마하스탕가르 유적지 세계유산 등재 지원사업 사례

‘마하스탕가르와 인근 유적’(Mahasthangarh and its environs)는 방글라데시의 가장 오래된 고고학 유적군으로 보그라 지역의 폰드라나가라(B.C.4세기~A.D.16세기)라는 고대도시의 흔적을 담고 있다. 이 도시는 남북길이가 1.524km 동서길이가 1.327km내 있으며 평균 5m높이에 건축되었다. 성채의 전체지역은 149.6 헥타르에 달한다. 성채의 안팎에 사원, 탑, 모스크, 고분 등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는 여러 유적들이 남북 9.65km 동서 8.64km에 걸친 평야지대에 산재해 있다. 이곳에서 은화, 테라코타, 기원전 3세기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브라흐미 문자판 등 여러 유물



〈그림 1〉 보그라지역 지도

출처: 방글라데시 문화부 자료



〈그림 2〉 고고유물 지도

출처: 방글라데시 문화부 자료



〈그림 3〉 마하스탄가르 유적지 사진

출처: 방글라데시 문화부 자료



〈그림 4〉 마하스탄가르 고고발굴현장

출처: 방글라데시 문화부 자료



〈그림 5〉 마하스탄 테라코타

출처: 방글라데시 문화부 자료

이 발굴된 바 있다. 1920년 방글라데시 문화부 고고학부는 마하스탄 성채주위 8km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지역내 42개 구체적인 유산을 보호유산으로 정하였다.

마하스탄가르 유적지는 1987년과 1997년 두 차례 방글라데시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유네스코에 제출하였으나 양식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된 후 다시 작성하여 2005년에야 새로운 양식에 맞춘 신청서

를 제출하여 잠정목록으로 등재하였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리차드 앵겔하트<sup>5)</sup> 특별자문관을 포함한 3인의 전문가팀을 파견하여 마하스탄가르 유적지의 세계유산 등재를 지원하였다. 전문가팀은 방글라데시 문화관광부 고고학부서에서 마련한 초안에 대해 대폭 수정을 요청하였으며 유산관리계획의 준비와 같은 몇 가지 권고안을 마련하였으나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4년 방글라데시 정부는 한국정부에 동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문화재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현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1차 워크숍은 2015년 5월 3일부터 6일까지 방글라데시 보그라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이혜은 ICOMOS 한국위원회 위원장, 최재현 ICOMOS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구오 째 ICOMOS 중국위원회 부위원장, 베아트리스 칼둔 유네스코 다카사무소장이 참석하여 방글라데시 세계유산 등재 유관 전문가, 관련 부처 및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세계유산 등재신청 준비 자문, 관련 강의 및 토론, 현장답사를 진행하였다. 한국전문가들은 방글라데시 세계유산 등재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의 유산에 대해 현장답사를 준비하도록 요청하여 잠정등재추진 후보지인 보그라 지역의 ‘마하스탄가르’, ‘자가달라 비하라’, ‘할루드 비하라’의 답사가 이루어졌다. 현장답사결과를 토대로 유산의 SWOT 분석 도출해 내고 세 후보유산 중 ‘마하스탄가르’ 유적을 차기 등재추진 후보로 선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그룹의 자문에 따라 워크숍 참가

자들은 2018년 제출을 목표로 추후 등재를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전문가들은 워크숍을 통해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보완사항을 방글라데시 문화부에 권고했다.

- 마하스탕가르의 여러 유적들 중 발굴여부 및 보존 상태, 가치정도에 따라 Property에 포함할 지역들의 선별과 그에 따른 유산지역(Property zone) / 완충 지역(Buffer zone)의 재구획 및 지도 제작이 시급함
- 신청서 작성, 지도제작, 보존관리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업무단위별로 각각의 책임자를 두고 팀을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임
- 전략적 논리 구성을 위해 유사한 성격의 타 유산들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함
- 방문지역 대부분의 경우 일반인의 자유로운 유적지 출입이 가능한데, 앞으로 보존관리 차원에서 유산의 훼손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핵심 유산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유산 주변에 마을이 존재하는데, 인근 거주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함. 유산의 중요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ex. 지역위원회 구성 등)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
-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로가 유산지역 주변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는 유산경관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매립 등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존관리에 위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후대에 복원된 부분의 경우 전문가 실시시 원형과 구분하여 복원시점과 방식에 따른 사유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겠음
- 세 유산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 1순위) 마하스탕가

르 2순위) 자가달라 비하라 3순위) 할루드 비하라  
 ※ 다른 유산과 연계는 고려할 수 있겠으나, 단일 유산으로서는 약함

- 워크숍 마지막에 도출된 등재추진일정과 관련, 목표로 한 2017년 신청은 현실적인 여건상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8년도 신청을 목표로 조정할 것을 제안함

2016년 한국은 제1차 워크숍의 성과를 점검하고 신청서의 추가 수정을 위해 제2차 워크숍을 2016년 4월17일부터 18일간 수도인 다카에서 개최하였다. 이 해에는 ICOMOS한국위원회 위원장, 최재현 ICOMOS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참가하여 세계유산 등재준비 절차 안내 및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대한 이해, 한국의 남한산성 등재경험 사례를 공유하였다. 1차 워크숍과 유사한 강의를 다시 반복한 이유는 작년도 워크숍 이후 방글라데시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국장 및 실무자 변경 등으로 인해 세계유산 등재준비 작업이 정체되어 있었다. 이런 이유로 관련 새로운 인사들에 대한 세계유산 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방글라데시 문화부 고위직(고고학국장 등)들이 마하스탕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및 지원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세계유산의 등재는 중앙정부만의 주도로 추진될 경우, 관료의 순환근무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가급적 관료 및 전문가(ICOMOS방글라데시위원회 등)를 아우르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을



<그림 6> 전문가 발표

출처: 방글라데시 세계유산 역량강화사업 출장보고서



<그림 7> 현장답사

출처: 방글라데시 세계유산 역량강화사업 출장보고서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관계자들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관계자 및 유관기관간의 토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세계유산 등재추진 관련 주요 논점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다.

- 유산명칭 변경: Mahastan, the Ancient Pundranagar (마하스탄, 고대 폰드라나가르)
- 등재형태: 여러 유적을 연계하여 연속유산(Serial nomination)으로 등재추진
- 등재추진 관련 조직 구성 및 실행계획 수립 (Action Plan 이메일 발송) - 정부 관료 및 전문가 집단을 포함하는 위원회 구성 - 등재신청서 실무작업단: 세계유산 OUV 설정, 비교연구, 보존관리계획수립의 3개팀으로 구성 예정

방글라데시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새로운 등재추진 후보지에 대한 현장답사와 평가분석을 통해 등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효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적극적인 의지 그리고 지속적인 후속조치 노력이 필수적이다.

방글라데시와 같은 저개발국의 세계유산 등재는 등재의지만으로는 성사되기 어렵다. 세계유산 등재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공여국의 여건이 된다면, 워크숍 종료 이후에도 추진상황 중간점검 및 수정 등재신청서에 대한 원격 Desk Review 등 후속관리를 통해 전체적인 등재준비 일정상의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문화유산 ODA사업은 해외에서 개최하는 만큼 현지 협력기관의 협조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만큼, 대상국 선정시 우리나라와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 중에서도 현지 협력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확보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5. 결론 및 시사점

첫째, 한국형 문화유산 ODA 사업은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 선진 공여국들이 시행초기 하드웨어 지원에 치중했다면 우리는 인프라지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노하우를 접목시킴으로서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국제개발협력은 파트너국가의 자생력을 높임으로써 스스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유네스코가 지정하고 있는 다양한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사업은 지역사회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높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의 등재 노하우를 전달함으로써 유네스코에 등재된다면 수원국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해당 유산의 국제적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여기에 문화유산의 보존준비사업과 활용사업을 지원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둘째, 세계유산분야 ODA사업은 핵심은 장기적인 지원계획이 필수적이다. 방글라데시 세계유산등재역량강화사업의 사례에서도 볼수 있지만, 저개발국의 경우,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저조, 관련 공무원들의 순환 근무, 체계적인 등재시스템 등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수원국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단기간에 등재를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오히려 장애가 될수 있다.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하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행사성 위주의 워크숍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통해 추진상황을 중간에 점검하고, 보완된 등재신청서에 대한 원격 데스크 리뷰 등 후속관리를 통해 전체적인 등재준비 일정상의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처럼, 유산지역에 거점 사무소를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셋째,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의 다양한 기관들간 사업 초기단계부터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이미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또는 준비 중인 정부부처, 전문가, 시민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모아 구체적인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문화유산분야에서는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유네스코아태무형센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들이 현재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관련기관들이 모이는 것은 1년에 1회 정도이며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라오스 참파삭 홍난시다 유적 보수·정비사업 이외에는 대

부분 1억원이하의 소규모 사업이라는 점과 각 ODA 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조정할수 있는 콘트롤 타워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적 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문화유산 ODA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논의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문화 ODA의 예산이 늘었다고 해서 양적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수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즉 현재 여러 기관에서 문화유산 ODA사업을 여러 방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분산되어 있는 여러 문화유산 ODA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 연구하는 단계까지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특히 기존 선진공여국에서 시행한 문화유산분야 ODA사업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본이나 스웨덴도 일찍이 문화유산 분야의 ODA사업을 시행하여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바, 모범사례를 연구하여 한국형 문화유산 ODA를 개발하는데 참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섯째, 국내적으로 문화가 지속가능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담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문화 ODA의 성공적인 수행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문가 양성 및 관련 연구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

- 1) Official Development Assitance: 정부에 의해 개발도상국 국제기구에 공여되는 자금 또는 기술협력.
- 2) 이태주, 2014, 문화와 개발협력: 한국의 중장기정책과 전략방향, 한눈에 보는 유네스코 2014 문화와 발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p.22.
- 3) 이태주, 2014, 문화와 개발협력: 한국의 중장기정책과 전략방향, 한눈에 보는 유네스코 2014 문화와 발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p.38.
- 4) 해당 국제기구의 총회에서 2년마다 분담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된다.
- 5) 전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문화자문관.

## 문헌

- 이태주, 2014, “문화와 개발협력: 한국의 중장기정책과 전략방향” 『한눈에 보는 유네스코 2014 문화와 발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김연수, 한국의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 전략, 『2016 유네스코 유산 개도국 협력 워크숍 자료집』.
- Diries Willems, 2016, “플랑드르와 유네스코”, 『2016 유네스코 유산 개도국 협력 워크숍 자료집』.
- 사오토메 마사히로, 2016, “일본의 문화유산 국제협력”, 『2016 유네스코 유산 개도국 협력 워크숍 자료집』.
- 방글라데시 문화부 고고학부, 2015, 『Nomination of Mahasthan(Ancient Pundragar) and Its Landscape』.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유네스코 문화유산 개도국 협력 전략세미나 자료집(2014).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5 유네스코 문화유산 개도국 협력 전략세미나 자료집(2015).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5, 2015 방글라데시 세계유산 역량강화사업 출장보고서.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6, 2016 방글라데시 세계유산 역량강화사업 출장보고서.
- 네이버 지식백과 웹사이트 <http://terms.naver.com/>  
문화재청 웹사이트 <http://www.cha.go.kr/>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unesco.or.kr/>  
유네스코 웹사이트 <http://www.unesco.org/>  
유네스코 세계유산 웹사이트 <http://whc.unesco.org/>

교신: 김귀배,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대학원 세계유산학과  
(e-mail: darongi7@gmail.com)

Correspondence: Kwibae Kim, World Heritage Program in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Korea 05029  
(e-mail: darongi7@gmail.com)

투 고 일: 2016년 12월 5일  
심사완료일: 2016년 12월 9일  
투고확정일: 2016년 12월 14일



#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도시재생에 관한 핵심이해당사자의 선호도 특성 연구

김 현 재\*

## Analysis on the Key Stakeholder's Preference about the Urban Regeneration of the Seoul City Wall Villages

Hyunjae Kim\*

**초록:** 최근 도시재생의 경향이 역사와 문화를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에서도 한양도성이라는 유산과 지역의 문화를 활용한 보전관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정과 연관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생사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차이로 인해 이화마을의 벽화가 지워지는 등의 갈등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에 대한 핵심이해당사자의 선호 경향의 특성을 알아보는 데 중점을 두어 한양도성 주변 이화, 장수, 북정마을을 대상으로 이해당사자별 선호 특성을 파악해보았다. 성곽마을 지역 재생관련 선호도를 조사해봄으로써 도시 운영과 관련한 사회적인 현상을 해석하고 역사를 활용한 도시재생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주요어:** 한양도성, 성곽마을, 핵심이해당사자, 도시재생, 설문조사

**Abstract:** The presence of 'history and culture-led urban regeneration invites reflection on the aspects that regeneration paradigm has been changed in order to maintain the identity of cities. While the management master-plan has been implemented, the Seoul City Wall Villages has experienced the regeneration project utilized cultures, but there was a gap between the ideas of the residents and the organizers of the projects. In this regard,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the key stakeholder's preferences about the results of the regeneration projects for the Seoul City Wall Villages. This in turn will help to grasp types of preference about the Seoul City Wall villages and to classify the social groups related to common consciousness about an urban space. Understanding this relationship would help to interpret one of the social process of urban management and to present theoretical bases for dealing with urban regeneration using heritage and culture.

**Key Words:** process, World, GuidelineSeoul City Wall Villages, Key Stakeholder, Urban Regeneration, Questionnaire Survey

## 1.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UN정상회의인 Habitat III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과 주거에 관한 정상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도시 성장의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도시의 문화 및 유산

(heritage)을 도시 계획과 운영전략의 최우선 사항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UNESCO는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the Historic Urban Landscape)'라는 국제보존원칙을 공표함으로써 현대 도시가 세계화와 도시화, 개발, 환경 보존 문제에 대응하는 논의에 관한 도시유산(Urban Heritage) 보존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에 관한 논의는 도시를 역

\* 건국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과정(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laboum0910@gmail.com)

사적 다중 층위(historical multiple layers)의 공간으로 바라보고 시공간적 연속성을 보장하는 맥락에서 도시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화와 역사를 활용함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다루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이라는 목적을 두고 일부 마을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마을 만들기’ 등의 사업을 적용시켜 살기 좋은 도시(urban liveability)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2016년 4월, 한양도성이라는 유산 주변 이화마을(서울시 종로구 이화동)의 벽화가 주민들의 손에 의해 지워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문객 증가로 인해 소음공해가 심해진 것이 원인이었으며, 경찰은 무단으로 공공시설을 훼손한 주민들을 입건하는 등의 갈등상황이 나타났다. 이는 도시 환경의 주체가 누구이며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차이에 대한 통합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도시 유산에 대한 국제적 규범이 마련되고 서울시에서도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2014)’을 진행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도심 운영 전략이 도출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의 실제 거주자 및 공동체와의 입장 차이는 공공연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에는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의 도시재생 사업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에 대해 파악해 보는 것이 포함된다. 역사와 문화를 활용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대상이 되는 마을에도 연관된 재생사업 결과물이 입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만족도나 선호도의 파악은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의 목적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논의일 것으로 평가된다. 일방적인 방향성에서 벗어나 직접적으로 연관된 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이해해보는 것은 재생지역에 대한 보완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도시 공간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연계된 하나의 현상으로써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지역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역사성과 공간성이 통합된 도시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 관련 핵심 이해당사자의 선호도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한양도성 인근 성곽마을을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고 유산과 생활공간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로 만들어진 도시 환경에 대한 선호도를 거주민, 방문객, 정부관계자, 관련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또한 선호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조사항목별 공통적 특성을 공유하는 요소들의 가치 군집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대해 다양한 핵심 이해당사자가 성곽마을 지역에서 중요시하는 가치가 어디에 속하며 이에 따라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 재생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하나의 도시 공간에 대한 상호 관계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 2. 본 론

### 1)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의 보전관리종합계획

서울특별시(2014)는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고려하여 주변 지역(buffer zone)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한양도성의 경관관리구역으로써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관리방안을 수립하였다. 관리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요소에는 성곽마을의 역사문화자원(historic and cultural assets)과 생활문화유산(living heritage)이 포함되었으며 관리의 기본원칙의 경우 세계유산의 5Cs원칙에 따라 신뢰성(credibility), 보전(conservation), 역량 구축(capacity-building), 소통(communication), 마을공동체(communities)라는 UNESCO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10대 원칙을 구축하였다. 내용에 따르면 성곽마을의 관리는 역사적 자산 및 경관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의 참여와 주거 안정을 고려하는 등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측면을 비롯하여 경제적, 문화적 측면 또한 아우르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마을별 역사변화과정을 비롯하여 마을과 관련된 인물과 사건에 대한 조사와 특히, 마을별 역사·문화자원과 생활·문화자원, 인적 자원 등을 주요 보전·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항목은 서울특별시의 종합계획상에서 다루어지는 역사·문화자원과 생활·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하였으며(표 1),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표 1〉 이화 · 충신권역, 삼선권역, 성북권역의 역사 · 문화, 생활 · 문화 및 인적 자원

권역	역사 · 문화 자원	생활 · 문화자원	인적 자원
이화 · 충신권역	- 이화장 - 국민주택단지 - 충신동 도시형 한옥밀집지	- 이화마루텃밭 - 이화박물관 - 508 shop - 만물슈퍼 - 이화벽화계단길 - 이화경로당계단길 - 낙산공원 - 낙산공원놀이광장 - 동대문성곽공원 - 이화동주민센터 - 종로5,6가 주민센터 - 동송 어린이집 - 이화경로당	- 마을활동가 - 마을박물관 네트워크 - 한양도성연구소 - 서울디자인재단 - 동대문교회 - 중앙성결교회
삼선권역	- 정각사 - 삼군부 총무당 - 원불교 서울 최초 신축교당 터	- 동네목수 작은카페 - 장수마을 박물관 - 장수마을 사랑방 - 할머니 쉼터 - 도성마당 정자 - 야생화할아버지 집 - 삼선공원 - 낙산공원 및 산책로 - 삼선 어린이집 - 성북구민 정보화센터 - 개구쟁이 어린이집	- (주)동네목수 - 장수마을 주민협의회 - 야생화 할아버지 - 문박세상 - 한성대학교 - 함께사는 성북마을 문화학교
성북권역	- 만해한용운 심우장 - 상허이태준 가옥 - 이중석 별장 - 최순우 가옥 - 선잠단지 - 성락원 - 간송미술관 - 성북동 갤러리 - 한국 순교복자 성직수도회 수도원	- 북정카페 - 성북 다문화 빌리지 센터 - 쌍다리 기사식당 - 북정이밭소 - 새이용원 - 성북동 쉼터 - 와룡공원 - 성북2동 노인정 - 성북1동 어린이집 - 성북동 주민센터	- 성아들 협동조합 - 북정 성곽마을 월월축제 - 내셔널 트러스트 문화유산 기금 - 녹색연합 - 서울 KYC 도성길라잡이

출처: 서울특별시, 2014,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보전 · 관리 종합계획

의 대상이 되는 자원에 관한 내용을 연구지역별로 알아보고자 한다.

(1) 이화 · 충신권역

현재와 같은 모습의 이화 · 충신권역의 기원은 광복 이후 형성된 토막촌 또는 판자촌에 두고 있다. 이후 정부차원의 택지 조성사업과 재개발 사업으로 부분적인 도시환경의 변화가 있었으며 2006년에는 공공미술 시범사업으로 벽화마을이 조성된 지역이다. 이 지역의 역사 · 문화 자원에는 이화장, 국민주택단지, 한옥 밀집지역이 선정되어 있다. 이 중 국민주택

단지는 1960년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조성된 단지로 총면적 9.643m<sup>2</sup>, 104세대가 거주하는 연립주택 단지이다. 건설 이후 단지의 형태는 편의에 따라 불법적으로 개조되기도 하였으며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원형이 남아있는 곳이다. 광복 이후 정부가 건설한 주택단지의 형태를 볼 수 있는 곳으로써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자원으로 판단된다. 또한 충신동에 위치한 도시형 한옥 밀집지는 1980년대에 형성된 보존 논의 이후 현재까지 유산 가치가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다음으로 이화 · 충신 권역의 생활 · 문화자원 중 이화마루텃밭과 이화동 마을박물관의 경우 지역공동

체의 참여적 지역재생의 성격을 보유한 자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화마루텃밭은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에 따라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공터를 활용하여 텃밭과 도시텃밭이 입지한 장소이다. 2012년에 조성된 이후 현재에도 농업적 기능과 더불어 주민들이 쉬어가거나 모이는 장소로서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는 생활자원이다. 그리고 이화동 마을박물관은 마을의 생활사박물관과 작업실 등이 건립된 것이 기반이 되어 마을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2) 삼선권역

삼선권역은 낙산 인근 북동쪽에 자리한 성 밖 마을로 광복 후 형성된 판자집들이 증가하면서 주거지가 형성된 지역이다. 서울특별시(2014)에 따르면, 1960년대 후반부터 주택 개량과정을 거치며 환경이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자연발생적 형태의 골목길과 필지형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마을의 역사·문화자원에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37호인 삼군부 총무당과 원불교 서울 최초 신축교당 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삼군부 총무당은 조선시대 군사업무를 담당하던 삼군부의 건물로 고종 5년 당시 육조거리에 지어졌던 것이 1930년대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조선시대 관아건물의 형태를 볼 수 있는 유산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산이다.

삼선권역의 생활·문화자원에는 동네목수 작은 카페, 장수마을 박물관, 마을 사랑방, 할머니 쉼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을박물관의 경우 마을의 역사와 생활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으나, 현재에는 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비정기적으로 마을주민을 위한 행사에 활용되는 곳이다. 또한 마을사랑방은 마을 주민들이 모여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으로써 커뮤니티 활동의 중심 기능을 하고 있다.

### (3) 성북권역

한양도성 북동쪽에 위치하는 성북권역은 조선시대 성 안으로 식료품 등의 물자를 제공하는 마을이자 풍류의 기능을 담당하던 곳이기도 하였다. 이후 1936년 택지조성사업을 거쳐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었으며, 대사관저와 같은 고급 주택지역도 일부 형성되었

다. 서울성곽과 근접해있는 북정마을의 경우 개발이 제한되어 무허가 서민 주거지역의 모습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성북권역의 역사·문화자원에는 만해 한용운 심우장을 비롯해 상허 이태준 가옥, 이종석 별장, 최순우 가옥 등 20세기 초에 건립된 한옥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고려 성종 때 지었던 선잠단지는 누에신(잠신)을 모시는 오래된 유산으로 이 지역의 역사자원에 포함이 되고 있으며, 의친왕의 별궁으로도 사용되었던 성락원도 유산적 가치를 보유한 자산으로 해당되고 있다.

다음으로 생활·문화자원에는 북정카페, 노인정, 주민센터 등 거주민의 편의를 위한 공간이 해당되며 특히 북정마을의 버스정류장 인근 북정카페는 상업적 기능을 비롯하여 마을 주민들이 모여 일상을 공유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북정마을은 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의 배경이 된 지역으로 마을 재생사업이 시작된 이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

## 2) 성곽마을 도시재생 사업관련 분석 요소

도시재생의 맥락에서 역사적 자산과 장소를 보호하고자 역사성과 장소성을 모두 고려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성곽마을 또한 서울특별시의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보전관리종합계획(2014)’의 내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마을의 역사적, 문화적 자산에 대한 관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 요소의 대상에 이화, 장수, 북정 3개 마을의 역사, 문화, 생활 자원을 포함시켜 이들 요소에 대한 핵심 이해당사자의 선호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에는 기존에 입지하고 있는 마을의 자원 중에서 Lynch의 도시이미지 분류 기준에 따라 통로(path), 경계(edge), 지구(district), 결절(node), 랜드마크(landmark)에 해당하는 요소를 선정하였다. 도시이미지의 요소에 대하여 Lynch(1960)는 지역 공동체의 기억과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치를 강조한바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 따라 이미지의 개념화, 이미지 도출을 위한 방법론적인 연구, 그리고 이를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에 적용하고자 여러 논의를 진행하였다. 실질적으로 그는 도시 이미지(Image of City)에 관하여 단순한 한 장면으로 재현

〈표 2〉 성곽마을 도시재생사업 분석 요소의 분류

이미지 요소	내 용		
<p>통로</p>			
<p>성곽과 접한 마을길, 그림이 그려진 계단, 굴다리 길, 한 명이 지날 수 있는 좁은 골목길, 일반적인 계단 또는 마을 골목, 주차공간이 마련된 도로</p>			
<p>경계</p>			
<p>산책로 울타리, 벽화가 그려진 주택 외벽, 조형물이 설치된 건물 외벽, 서울성곽 모양의 타일이 붙여진 외벽, 화분이 놓인 담벼락, 야간 조명이 켜진 성곽 길, 식물 벽</p>			
<p>지구</p>			
<p>국민주택단지, 마을 텃밭, 한옥밀집지구, 공원</p>			
<p>결절</p>			
<p>버스 정류장, 교차로, 슈퍼마켓, 카페, 마을 박물관, 마을 사랑방, 노인정, 공중 화장실, 마을 센터</p>			
<p>랜드마크</p>			
<p>서울성곽, 문화유산(이화장, 심우장, 삼군부총무당 등)</p>			

되는 것이 아니라 경관 자체가 도시인들이 역사를 통해 ‘인과’, ‘대조’, ‘유추’, ‘일반화’라는 과정을 거치며 종합적 감각의 유형화 합의로 형성된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케빈 린치(Kevin Lynch)의 도시이미지 요소와 관련하여 박영춘(2002)은 도시의 이미지가 도시의

역사성, 경관과 함께 도시의 매력 나아가 경쟁력을 높이는 단서가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종욱·이재환(2002)은 도시이미지 요소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의미, 기능, 역사와 개인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도시를 보는 관점과의 관계에서 주

요한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장진형·유용현(2013)은 도시환경에 대한 인식의 과정과 관련해 도시이미지 요소를 활용하여 공간적 특성을 규명하고자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지역인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의 설문항목 또한 변화하고 있는 도시 환경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인식하는 측면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는데 바탕이 되기 위해 도시이미지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요소로 선정하였다(표 2).

(1) 통로(Path)

통로는 통행 또는 이동의 경로로 도로, 보행자 통로 등이 해당되며 방향성과 연속성의 특성을 가진다. 주로 선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는 개념으로 성곽마을에서는 성곽과 접한 마을 길, 그림이 그려진 계단 길, 한 명이 지날 수 있는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 길, 주차공간이 마련된 도로, 굴다리 길 등을 선정하였다.

(2) 경계(Edge)

경계는 하나의 지구와 다른 지구를 구분하는 연속체로서 건물의 벽이나 울타리 등과 같은 물리적인 경계, 강, 해안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성곽마을에 입지하는 건물의 외벽 중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로 구축된 벽화가 그려진 외벽, 조형물이 설치된 건물 외벽, 서울성곽 모양의 타일이 붙여진 외벽, 야간 조명이 켜진 성벽, 식물 벽 등을 비롯하여 성곽 산책로 울타리나 화분이 놓여진 담벼락 등이 경계 요소에 포함되었다.

(3) 지구(District)

지구는 다른 영역과 구분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공간으로 2차원적인 넓이를 가지고 있다. 주변의 다른 요소들과 관련된 상대적인 특성을 보유하기도

한다. 성곽마을에서는 주거용도로 쓰이지만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국민주택단지, 한옥밀집지구가 포함되었으며, 그 외 마을의 텃밭이나 공원 등을 지구에 해당하는 요소로 선정하였다.

(4) 결절(node)

지역에서 활동이 집중되거나 이동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해당하는 결절에는 교통의 접합점이나 사람들이 특정 활동을 위해 모이는 장소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곽마을의 결절 요소에는 버스정류장, 교차로, 슈퍼마켓, 카페, 노인정 등 마을 주민의 이동과 사회적 연결이 집중되는 지점을 비롯하여 그림으로 꾸며진 공중화장실, 마을 박물관 등 방문객의 활동이 집중되는 곳이 포함되었다.

(5) 랜드마크(Landmark)

방문객 등 외부에서 해당 지역의 상징적인 중요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인지하는 대상이 해당되며 문화유산과 같은 기념물이 포함된다. 성곽마을의 한양도성은 마을의 기원과 더불어 현재의 마을 관리 전략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요소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외 이화장, 삼군부 총무당, 심우장 등 마을별 문화유산 또한 마을의 역사와 관련된 주요 인지 요소로 랜드마크에 해당하는 분석 요소에 포함되었다.

3) 선호도 차이 분석

(1) 설문조사의 방법

성곽마을의 경관 요소를 활용하여 유산과 인근 지역에 대한 다양한 집단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항목에는 연구지역인 이화마을, 장수마을, 북정마을의 분석 요소가 각각 20개

〈표 3〉 설문 디자인

마을	설문 항목		척도
이화	1. 이화마루 텃밭 2. 벽화가 그려진 담벼락 3. 국민주택단지 4. 이화경로당 인근 사거리 5. 한양도성 6. 계단길 7. 조형물이 설치된 담벼락 8. 성곽과 접한 마을길 9. 이화장 10. 마을 골목길	11. 식물 벽(자연발생적) 12. 한옥밀집지역 13. 차도 인근 조형물 설치벽 14. 이화동 마을 박물관 15. 굴다리길과 보행용 계단 16. 성곽 위 울타리 17. 슈퍼마켓 18. 낙산공원 19. 날개벽화 인근 삼거리 20. 동대문 성곽공원	Likert 5점 척도 1점: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5점: 매우 선호한다

〈표 3〉 계속

마을	설문 항목	척도	
장수	1. 성곽과 접한 마을길 2. 벽화가 그려진 건물 외벽 3. 낙산공원 광장 4. 낙산공원인근 버스정류장 5. 한양도성 6. 그림이 그려진 계단길 7. 울타리 8. 삼군부 총무당 9. 삼선공원 10. 장수마을 사랑방	11. 성곽과 이어지는 통로 12. 식물 벽 13. 마을 쉼터 14. 장수마을 표식 15. 건물 하단 성곽모양 벽화 16. 장수마을 카페 17. 조형물이 설치된 벽 18. 가구별 특색있는 대문 19. 벽죽바위 20. 계단길	Likert 5점 척도 1점: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5점: 매우 선호한다
북정	1. 성곽과 접한 마을길 2. 화분이 놓여진 담벼락 3. 개인 텃밭 4. 북정마을 버스정류장 5. 한양도성 6. 계단길 7. 북정카페 및 슈퍼 8. 북정 노인정 9. 시가 적혀있는 벽 10. 한 사람이 지날 수 있는 좁은 골목길	11. 야간조명이 켜진 성곽 12. 그림타일로 장식된 공중화장실 13. 주차공간이 마련된 도로 14. 심우장 15. 비둘기가 그려진 통로 16. 외룡공원 17. 모정 (휴게 쉼터) 18. 벽화가 그려진 담벼락 19. 이웃과 지붕이 이어진 주택지구 20. 전시공간으로 활용되는 주택 외벽	

〈표 4〉 설문지 수합 결과

대상 집단	수합 부수(개)	비율(%): 해당 집단인원/전체인원
지역주민(이화, 장수, 북정마을)	107	26.4
정부관계자(서울특별시, 문화재청)	95	23.9
관련연구기관(성곽유산 관련 기관)	86	21.6
일반 방문객	110	27.6
총계	총 398 부수합	

씩 포함되었다(표 3). 조사는 8월 22일부터 10월 16일 까지 실시하였으며, 3개 마을의 주민 및 방문객, 정부 관계자(서울특별시청, 문화재청), 성곽 유산 관련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대상자가 각각의 경관 항목에 대해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5점: 매우 선호한다)를 활용하였으며 점수를 부여한 이유에 대해서도 기술하게 하였다.

(2) 핵심 이해당사자

설문대상자 집단이 되는 핵심이해당사자에는 지역주민, 정부기관,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마을 방문객 집단이 포함되었다. 첫째로, 이화, 장수, 북정마을의 지역주민의 경우 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로서 공동체가 보유하는 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하여 설문대상에 포함하였다. 둘째로,

정부기관에는 서울특별시청과 문화재청 직원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 성곽마을이라는 개념이 설정되고 이를 계획, 관리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로, 관련 연구기관에는 수원화성, 남한산성 등 성곽유산과 관련된 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기관의 연구원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양도성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지는 않지만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 성곽유산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수원화성마을, 산성마을 등 성곽유산과 인근 지역을 관리하는 관련성이 있는 기관으로 설문 대상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을의 일반 방문객의 경우 한양도성 성곽마을이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고 방문객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마을의 사회적, 경제적 기능에 영향을

주는 집단으로 판단되어 설문 대상이 되는 핵심 이해 당사자 집단에 포함하였다.

### (3) 설문조사의 결과

설문결과 최종적으로 398부의 유효 설문지가 수합되었다. 대상 집단별로 각각 지역주민 107부, 정부관계자 95부, 관련연구기관 86부, 일반 방문객 110부를 수합하였으며 모든 설문항목에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는 제외하였다.

## 4) 조사결과 분석

### (1) 설문대상 집단별 선호도

설문의 결과에 따라 각 대상 집단별로 다시 분류하여 설문항목별 획득한 점수의 평균을 계산하였으며, 평균값이 높은 설문항목은 <표 3-6>과 같이 나타났다. 설문대상 집단별로 각각 다른 요소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마을별로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정부관계자 집단의 경우 이화마을의 자원 중에서는 한양도성이나 이화장 등의 문화유산과 성곽 인근의 낙산공원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의 역사적 가치와 연계되는 요소에 대한 선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장수마을과 북정마을의 자원 중에서는 흥미롭게도 식물벽을 비롯하여 서울성곽 모양의 타일, 벽화, 그림과 시(성북동 비둘기) 등으로 꾸며진 건물 외벽에 대하여 높은 선호를 보였다. 이들 자원은 성곽마을의 재생사업과 관련되거나 사업의 결과물인 자산에 해당되며 이와 연관된 가치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으로 평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 지역주민 집단은 이화마을의 이화마루 텃밭, 이화경로당과 같이 주민들이 모여 일상을 공유하는 공간에 대한 선호와 더불어 거주지로 이동하는 경로 또는 산책로 역할을 하는 성곽과 접한 마을길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장수마을의 자산 중에서는 마을사랑방과 같은 마을공동체 활동의 중심이 되는 요소와 더불어 가구별 특색 있는 대문과 같이 통행의 과정 속에서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이웃의 경관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정마을의 경우 슈퍼마켓과 카페, 버스정류장은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요소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

이며 외부 방문객을 맞이하는 역할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장소에 대한 선호는 주민들의 삶을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의미를 가지는 문화적 자원에 대한 선호일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가 또는 직원의 경우 세 개 마을 모두 마을에 입지한 문화유산이나 역사적 건축물 대한 관심이 높게 드러난 것으로 보였다. 한양도성을 비롯하여 이화마을의 한옥밀집지구, 장수마을의 삼군부 총무당, 북정마을의 심우장은 각 마을에 입지하고 있는 유산으로 역사적 가치를 보유한 마을의 자원이다. 또한 성곽에 면하고 있는 낙산공원이나 삼군부 총무당 인근의 삼선 공원, 북정마을의 야간 조명이 켜진 성곽 길에 대한 선호는 편의 목적의 공공공간에 대한 선호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 방문객 집단은 상대적으로 벽화나 조형물 그리고 상업지구가 발달된 이화마을에서 흥미롭게도 한양도성, 이화장과 같은 문화유산에 대한 선호를 높게 나타내었으며 한양도성과 관련된 낙산공원에 대한 선호를 보였다. 반면 장수마을과 북정마을의 자원에 관련하여서는 그림이 그려진 계단이나 식물 벽, 야간 조명이 켜진 성곽 길, 그림으로 장식된 공중화장실 등 관광 경로 상 볼 수 있는 심미적 요소에 대한 선호를 높게 드러내었다. 문화유산을 비롯한 도시재생 사업 결과로 구축된 관광 요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요인분석

성곽마을 도시재생 사업관련 마을 자산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항목별 공통적 특성을 파악하고 군집화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설문지를 이화마을, 장수마을, 북정마을의 3개 마을로 구분하였고, 해당 설문지의 선호 점수 값을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KMO(Kaiser-Meyer-Olkin) 지수는 3개 마을 모두 0.60 이상의 값으로 측정되었고 Bartlett의 구형 검정지수 역시 0.00으로 측정되어 분석에 유효한 데이터로 평가되었다. <표 5>는 요인 분석에 사용된 변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설문조사 시 활용되었던 마을별 20개 자원의 항목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회전된 성분행렬 값을 바탕으로 경관요소가 공유하는 공통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표 5〉 요인분석에 사용된 변수

마을 번호	변 수			
	내 용	변 호	내 용	
이 화	1	이화마루 텃밭	11	식물 벽(자연발생적)
	2	벽화가 그려진 담벼락	12	한옥밀집지역
	3	국민주택단지	13	차도 인근 조형물 설치벽
	4	이화경로당 인근 사거리	14	이화동 마을 박물관
	5	한양도성	15	굴다리길과 보행용 계단
	6	계단길	16	성곽 위 울타리
	7	조형물이 설치된 담벼락	17	슈퍼마켓
	8	성곽과 접한 마을길	18	낙산공원
	9	이화장	19	날개벽화 인근 삼거리
	10	마을 골목길	20	동대문 성곽공원
장 수	1	성곽과 접한 마을길	11	성곽과 이어지는 통로
	2	벽화가 그려진 건물 외벽	12	식물 벽
	3	낙산공원 광장	13	마을 쉼터
	4	낙산공원인근 버스정류장	14	장수마을 표식
	5	한양도성	15	건물 하단 성곽모양 벽화
	6	그림이 그려진 계단길	16	장수마을 카페
	7	울타리	17	조형물이 설치된 벽
	8	삼군부 총무당	18	가구별 특색있는 대문
	9	삼선공원	19	뽕죽바위
	10	장수마을 사랑방	20	계단길
북 정	1	성곽과 접한 마을길	11	야간조명이 켜진 성곽
	2	화분이 놓여진 담벼락	12	그림타일로 장식된 공중화장실
	3	개인 텃밭	13	주차공간이 마련된 도로
	4	북정마을 버스정류장	14	심우장
	5	한양도성	15	비둘기가 그려진 통로
	6	계단길	16	외룡공원
	7	북정카페 및 슈퍼	17	모정 (휴게 쉼터)
	8	북정 노인정	18	벽화가 그려진 담벼락
	9	시가 적혀있는 벽	19	이웃과 지붕이 이어진 주택지구
	10	좁은 골목길	20	전시공간으로 활용되는 외벽

이화마을의 경우, 요인 1은 이화장, 서울성곽, 낙산공원, 동대문 성곽공원, 한옥밀집지구, 성곽과 접한 마을길 변수로 이루어져 있다. 한양도성을 비롯하여 성곽 보존과 관련이 있는 인근 공원 그리고 국가 유산 변수 등을 포함하므로 이를 ‘유산 가치’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조형물이 설치된 주택 외벽, 벽화가 그려진 외벽, 조형물이 설치된 도로 외벽, 마을 박물관, 벽화삼거리 변수로 구성되고 요인 5는 식물 벽과 굴다리 길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심미적 기

능을 바탕으로 관광객을 유인하는 특성이 있어 ‘관광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슈퍼마켓, 계단 길, 국민주택단지변수로 이루어져 있고, 요인 4는 이화마루텃밭, 이화경로당, 성곽 위 울타리 변수, 그리고 요인 6에는 마을 골목길 변수가 포함된다. 이는 모두 주민 편의와 커뮤니티 활동에 관련된 변수들로 해당 요인을 ‘주민 편의’로 명명하였다.

장수마을의 경우, 요인 1은 벽화가 그려진 외벽, 그림이 그려진 계단, 가구별 특색 있는 대문, 조형물이

〈표 6〉 회전된 성분행렬 (이화마을)

변 수	요 인					
	1	2	3	4	5	6
V9	0.848	0.042	-0.135	0.046	0.099	0.143
V5	0.825	0.077	-0.045	0.057	-0.052	0.092
V18	0.763	-0.069	0.237	-0.125	0.237	0.009
V20	0.701	0.073	0.177	0.039	0.249	-0.338
V12	0.678	0.160	-0.048	0.107	0.094	0.393
V8	0.534	0.103	0.334	0.033	0.162	-0.217
V7	-0.002	0.850	-0.034	0.034	-0.032	0.021
V2	-0.051	0.838	0.104	-0.109	0.119	0.015
V13	0.126	0.696	0.166	0.263	0.041	-0.027
V14	0.375	0.671	0.103	-0.061	0.032	0.356
V19	0.059	0.618	0.391	-0.167	0.199	-0.154
V17	-0.002	0.196	0.795	0.155	0.138	0.027
V6	0.048	0.160	0.760	0.109	-0.023	0.124
V3	0.137	0.002	0.604	-0.048	0.035	0.583
V1	0.237	-0.019	-0.150	0.827	0.188	0.001
V4	0.094	0.036	0.396	0.659	-0.111	0.119
V16	-0.384	-0.016	0.232	0.646	0.124	-0.049
V11	0.187	0.081	-0.107	0.087	0.804	0.196
V15	0.183	0.112	0.207	0.071	0.686	0.057
V10	0.022	0.036	0.179	0.080	0.394	0.726
초기 고유값	4.905	2.815	2.085	1.454	1.335	1.045
추출 제곱합 적재량 (%)	24.523	38.598	49.022	56.292	62.967	68.193

〈표 7〉 회전된 성분행렬 (장수마을)

	요 인						
	1	2	3	4	5	6	7
V2	0.863	-0.043	0.246	0.148	0.045	0.001	0.149
V6	0.844	0.110	0.052	0.206	0.254	-0.036	0.147
V18	0.735	0.067	0.048	-0.349	0.049	0.096	-0.051
V17	0.592	0.429	-0.147	0.062	0.201	0.341	-0.052
V16	0.122	0.854	0.067	0.198	0.087	0.207	0.144
V13	-0.017	0.754	0.463	-0.043	0.161	-0.066	0.038
V12	0.071	0.633	0.141	0.153	-0.211	0.153	0.314
V15	0.417	0.488	0.123	0.230	0.009	0.208	-0.351
V1	0.139	0.027	0.760	-0.036	0.118	0.235	0.199
V11	0.122	0.264	0.709	0.203	-0.109	-0.105	0.044
V14	0.006	0.173	0.610	0.298	0.325	0.271	-0.136
V3	0.016	0.062	0.009	0.861	0.122	0.163	0.178
V7	0.219	0.139	0.319	0.633	-0.032	0.008	-0.367
V4	-0.076	0.303	0.205	0.602	0.048	-0.420	-0.027

<표 7> 계속

	요 인						
	1	2	3	4	5	6	7
V20	0.148	-0.126	0.068	0.092	0.870	0.058	-0.016
V10	0.260	0.471	0.116	0.012	0.711	0.049	0.051
V8	-0.178	0.332	0.157	0.153	-0.039	0.701	0.367
V9	0.356	0.163	0.232	-0.067	0.168	0.681	-0.064
V5	0.140	0.177	0.138	0.002	-0.037	0.053	0.834
V19	0.111	0.363	0.005	0.064	0.262	0.276	0.406
초기 고유값	5.627	2.393	1.915	1.311	1.257	1.158	1.026
추출 제곱합 적재량 (%)	28.135	40.100	49.673	56.227	62.512	68.301	73.429

<표 8> 회전된 성분행렬 (북정마을)

	요 인					
	1	2	3	4	5	6
V18	0.801	-0.006	0.208	-0.033	-0.009	0.076
V15	0.785	-0.012	0.195	-0.021	0.125	0.009
V20	0.782	0.221	-0.052	0.049	0.046	0.113
V9	0.779	0.249	-0.012	-0.098	-0.031	0.091
V5	0.088	0.842	-0.006	0.006	0.092	-0.001
V14	0.211	0.779	0.199	-0.012	-0.149	0.099
V1	0.051	0.598	0.368	-0.222	0.429	0.278
V16	0.194	0.535	0.396	0.038	0.378	-0.303
V11	0.427	0.443	-0.146	0.313	-0.092	0.438
V3	0.104	0.113	0.816	0.119	0.035	-0.134
V2	0.006	0.170	0.783	0.218	-0.086	0.237
V13	0.180	-0.123	0.550	-0.165	0.437	0.283
V4	0.252	0.230	0.504	0.365	0.231	-0.407
V6	-0.144	-0.021	-0.019	0.848	0.172	0.008
V10	-0.009	-0.140	0.215	0.757	0.054	0.092
V8	-0.038	0.291	0.171	0.507	0.250	-0.335
V7	0.265	0.341	0.398	0.439	-0.154	0.145
V17	-0.098	0.138	-0.005	0.143	0.832	-0.278
V12	0.206	-0.082	-0.002	0.439	0.729	0.132
V19	0.287	0.171	0.186	0.087	-0.040	0.797
초기 고유값	5.150	2.906	1.846	1.627	1.530	1.137
추출 제곱합 적재량 (%)	25.750	40.279	49.508	57.644	65.295	70.981

설치된 외벽 변수를 포함하며 요인 2는 카페와 마을 쉼터, 식물 벽, 그림타일로 장식된 외벽 변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변수는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심미적인 요소이자 휴식의 공간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관광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성곽과 접한 마을길, 성곽과 이어지는 마을 통로, 장수마을 표식 변

수로 구성되고, 요인 4는 낙산공원 광장, 성곽 산책로 율타리, 버스정류장 변수로 이루어지며, 요인 5는 계단, 장수마을 사랑방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주민 생활 편의와 관련된 시설에 해당하는 변수로 ‘주민 편의’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6은 삼군부총무당, 삼선공원 변수로 이루어지고, 요인 7은 서울성곽과 마을 뽕죽 바

<표 9> 마을별 추출 요인 및 해당 요소

마을	추출 요인	요 소
이화	유산 가치	- 이화장 - 한양도성 - 낙산공원(성곽인근) - 한옥밀집지구
	주민 편의 가치	- 슈퍼마켓 - 국민주택단지 - 이화마루텃밭 - 이화경로당 - 성곽 위 울타리
	관광 가치	- 그림과 조형물로 장식된 벽 - 마을박물관 - 식물 벽
장수	유산 가치	- 한양도성 - 삼군부 총무당 - 성곽과 접한 마을길
	주민 편의 가치	- 장수마을 표식 - 낙산공원 인근 버스정류장 - 장수마을 사랑방
	관광 가치	- 그림이 그려진 계단길 - 조형물이 설치된 벽 - 장수마을 카페와 쉼터
북정	유산 가치	- 심우장 - 한양도성 - 성곽과 접한 마을 길
	주민 편의 가치	- 주민 텃밭 - 주차공간이 마련된 도로 - 버스정류장 - 북정 노인정 - 한 사람이 지날 수 있는 좁은 골목길 - 이웃과 지붕이 이어진 주택지구
	관광 가치	- 시가 적혀있는 벽 - 전시공간으로 활용되는 건물 외벽 - 그림 타일로 장식된 공중화장실

위 변수로 구성되는 것으로 마을의 역사를 드러내는 요소들로 ‘유산 가치’라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북정마을의 경우, 요인 1에는 벽화가 그려진 담벼락, 비둘기가 그려진 통로, 전시공간으로 활용되는 건물 외벽, 그림과 시가 적혀있는 벽 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 5는 마을 쉼터, 그림으로 장식된 공중화장실이 포함된다. 이들 변수는 마을과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문학적 요소와 심미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요인으로 ‘관광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서울성곽, 심우장, 성곽 산책로, 와룡공원, 야간 조명이 켜진 성곽 길 변수로 이루어져 있어

역사적 자산의 가치를 공유하는 특성이 있어 ‘유산 가치’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마을 텃밭과 화분이 놓인 담벼락, 주차 공간이 마련된 도로, 버스 정류장으로 구성되고, 요인 4는 계단, 좁은 골목길, 북정 노인정, 슈퍼마켓과 카페 변수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변수들로 ‘주민 편의’로 명명하였다.

분석을 종합한 결과 마을별 자원에 대한 요인은 <표 9>와 같이 유산 가치, 주민 편의 가치, 관광 가치를 나타내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각 설문 항목에 대한 선호도와 관련하여 핵심 이해당사자가 어떠한 가치를 더 선호하는가에 대한 바탕을 마련할 수 있었다.

### (3) 심층인터뷰의 결과

장소는 특정한 영역적, 사회적 공간에 대한 연관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핵심적인 측면일 것으로 보인다(Keith and Pile, 1993). 이러한 장소에 대한 생각에는 직간접적인 해당 장소에 대한 경험이 반영될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경험에 대한 이해는 하나의 도시 공간을 바라보는데 있어 해석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지역인 성곽마을의 사례에서도 여러 이해당사자로부터 구축된 다양한 관점이 확인되고 있으며, 설문조사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의 제한적인 측면을 보완하고자 지역주민과 관련연구기관의 연구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는 설문조사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진행하였으며, 주민협의회, 마을박물관 등의 시설에 종사하는 마을주민과 성곽 유산과 관련한 기관의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가 총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진행방식은 직접 대면하는 유형의 인터뷰로 진행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서술은 본 연구자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였다.

심층인터뷰의 결과 성곽마을 보전관리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입장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주민의 경우 사업에 대한 부분적인 만족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구체적인 사업 결과물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나타났다. 장수마을의 식물 벽과 관련한 인터뷰의 내용이다.

“식물 벽은 마을의 좋은 이미지와 경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벽에 심어진 식물이 꽃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주로 꽃은 특정시기에 피는 것으로 항상

예쁘게 피어있지를 못한다. 또한 식물 벽이나 화분에 대한 관리를 지역주민에게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민에게 또 다른 불편요소를 주는 것이다. 처음에 예쁘게 식물 벽을 설치하고 사진 촬영하고 사업의 좋은 결과물로 보고 하면 그만이었지만, 지금처럼 방치되어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마을에 또 다른 식물 벽이 설치된다면 반대할 생각이 크다. (남, 45세)”

이는 도시재생 사업의 사후관리 측면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 가능하다. 주민의 일상에서 항상 마주치게 되는 도시 환경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추가적인 사업 진행에 있어 이와 같은 주민의 입장도 효율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방문객을 비롯해 주민들도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경로이지만 주민들에게 다소 불편함을 주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인터뷰의 내용도 있었다. 북정마을의 성곽 길에 야간 조명이 켜지는 것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이다.

“야간 조명이 켜져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 근데 밤 시간이 되면 불빛이 불편할 때가 많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이걸 보러 오면서 마을 위에 성곽 길을 쭉 걸어다니는데 ..... 가끔씩 소음 땀에 놀랄 때가 있다. 밤이 되면 동네는 어두컴컴하고 조용한데 지나가는 외부 사람들 소리가 너무 신경 쓰인다. (여, 67세)”

성곽마을의 도시재생과 관련한 주민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가의 입장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유산의 가치가 존중되는 맥락에서의 관점은 긍정적이게 평가하나 세부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입장의 인터뷰 내용이 나타났다.

“마을에 벽화를 그린다는 것은 과연 역사 또는 문화를 활용한 재생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한다. 마을의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벽화가 그려져 있거나 주민이 아닌 외부 사람들의 선호에 맞추어진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자주 목격하였다. 이는 마을의 역사적 가치와는 무관하다. 벽화로 꾸미는 것보다 마을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친절히 알려주는 장치나 인적자원이 더욱 필요하다. 벽화마을 사업은 철저히 재고되어야 한다. (여, 43세)”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 공간의 관리는 여러 개인의 경험이 축적된 장소로서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장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지속하는 방향의 전략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이 수립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의 효율성,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재평가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관점에 대한 연구는 효율적인 도시재생 전략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3. 고 찰

#### 1) 핵심이해당사자별 선호도 차이

이화, 장수, 북정 성곽마을의 역사·문화적 자원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도시 환경에 대한 핵심 이해당사자별 선호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결과에 따라 설문대상 집단별로 평가한 우선순위 마을 자산을 확인해볼 수 있었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마을의 자원이 각각 어떠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핵심 이해당사자별로 선호하는 마을의 자원이 어떠한 가치를 보유하는 자원인가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표 10>의 이해당사자의 분류는 설문조사단계에서 선정한 핵심이해당사자 집단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요인분석으로 도출된 인자를 우선 가치 항목에 적용하여 유산가치, 주민편의 가치, 관광 가치로 구분하였다. 선호하는 내용에는 설문조사 항목과 동일한 요인 분석의 변수가 포함되었으며 이들 요소의 성격이 반영된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우선 정부관계자 집단의 경우 성곽마을의 유산 가치와 관광 가치에 선호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성곽을 비롯한 문화재에 대한 선호와 더불어 정부 당국의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물인 심미적 요소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었다. 벽화와 조형물 같은 심미적 요소가 포함된 마을 자원의 경우 성곽마을로 관광객을 유도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치 평가가 긍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화마을의 벽화가 지워졌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과의 갈등 관계를 유발할 수 있는 특성에 대해서도

〈표 10〉 성곽마을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핵심이해당사자별 선호 가치

이해당사자	마을	우선 가치	내용
정부관계자	이화	유산 가치	• 서울성곽 • 문화재
	장수	관광 가치	• 공원 •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물 (심미적 요소)
	북정	관광 가치	•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물 (심미적 요소)
지역주민	이화	주민 편의 가치	•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 산책로 / 마을 길
	장수	주민 편의 가치	•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 산책로 / 마을 길
	북정	주민 편의 가치	• 생활관련 시설
관련 연구기관	이화	유산 가치	• 서울성곽 • 전통가옥
	장수	유산 가치	• 서울성곽 • 문화재
	북정	유산 가치	• 서울성곽 • 문화재
방문객	이화	유산 가치	• 서울성곽 • 문화재
	장수	관광 가치	• 서울성곽 •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물 (심미적 요소)
	북정	관광 가치	•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물 (심미적 요소)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충분한 재고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지역주민의 경우 연구지역인 이화, 장수, 북정마을에서 공통적으로 주민 편의 가치를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의 역사적 자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것은 아니나 이러한 자원이 주민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산책로나 마을길에 선호도를 부여하고 있어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관점은 또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역사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은 지속적인 교육이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물리적으로 구축되는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주민 편의의 관점 또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로 마련된 마을사랑방이나 쉼터, 노인정과 같은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에 대한 선호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주민 편의의 측면이 부분적으로는 긍정적이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결과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관련 연구기관 집단의 경우 서울성곽과 전통가옥, 문화재에 대한 선호를 높게 나타냄으로써 마을 자원의 유산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역사와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에 있어 기존에 입지하고 있던 역사적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장소에 대한 역사성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문객은 이화마을의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에 선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장수마을과 북정마을의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물에 선호도를 표현하고 있다. 북정마을의 성북동 비둘기 시와 그림이 그려진 외벽과 같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와 더불어 관광 경로 상 심미적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선호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 2) 통합적 관점에 관한 논의

사람들은 개인이 살아가는 장소와 관련하여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치에 대해 주목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도시재생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각각의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소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 문화적 자원에 대한 선호경향을 각각의 이해 집단별로 파악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운영 전략에 있어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의 경우,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따라 인근 완충구역(buffer zone)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 ‘성곽마을’이라는 새로운 용어 또는 개념의 사용과 더불어 도성에 근접하여 입지한 마을의 역사, 문화적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운영 전략상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지역의 역사성과 공간성을 아우르는 운영 전략의 방향성은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정부 당국이나 전문 집단뿐만 아니라 일반 방문객도 도성 길을 걷거나 성곽마을의 관광요소를 접하면서 오랜 기간 존재해왔던 유산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의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전략에는 몇 가지 논의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로, 도시재생 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자산에 대한 가치에 대해 핵심이해당사자별로 특성과 차이가 어떠한지에 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책의 방향성과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결정하는데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해당사자의 관점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따라 정책의 성격이 변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지역 자원에 대한 주요 가치를 비롯해 다양한 관점 파악을 기반으로 재생이나 개선이 필요한 대상을 결정함으로써 효율성이 보장되는 도시재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지역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 과거의 지역 역사에만 국한되는 것을 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이에 관한 전략에는 지역 공동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역사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단순히 마을에 관광객이 증가하게 하는 것은 지역의 정체성을 지속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주민 편의를 침해하는 결과만 나타나게 되어 본래의 방향성과는 달리 의도치 않은 결과가

드러날 수도 있다.

셋째로, 지역 주민의 의견만을 우선시하는 경향도 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 주민은 도시재생 대상이 되는 지역의 실질적인 주체일 수도 있지만 이들이 선호하는 가치만을 고려하려는 시도는 기존의 도시 환경에 변화를 주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마을이 보유하고 있으나 드러나지 않았던 가치에 대한 발굴과 이에 대한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방향의 전략이 필요하다. 점차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마을의 자원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매김할 때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의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역사와 문화는 정체된 시점의 산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경험이 축적되는 대상이다. 이러한 경험은 역사·문화적 자원이 입지한 작은 규모의 공간에서부터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마을 그리고 관리 운영의 주체가 되는 지역, 국가까지 다양한 스케일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우리가 보존해야 할 것과 새롭게 추구해야 할 변화 대상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른 관점의 통합적 인식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결론

본 연구는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의 사례를 통해 마을의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 관련 핵심 이해당사자의 선호 특성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 집단별 선호하는 마을 자원을 파악해 볼 수 있었고 요인 분석을 통해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마을 자원의 군집을 추출하여 군집별로 보유하고 있는 가치를 분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마을의 역사적, 문화적 자원의 가치는 유산 가치, 주민 편의 가치, 관광 가치의 세 가지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핵심이해당사자 집단이 어떠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마을 자원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였다. 정부관계자는 이화마을의 유산 가치와 장수마을과 북정마을의 관광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주민집단은 주민

편의 가치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부여하였다. 관련 연구기관 집단의 경우 마을 자원 중 유산가치가 높은 요소에 대한 선호를 높게 나타내었으며, 일반 방문객은 이화마을의 유산 가치와 장수마을, 북정마을의 관광 가치를 보유하는 자원에 대한 선호도를 드러내었다. 선정된 핵심이해당사자별로 마을의 문화적 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의 경향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다양한 관점에 대한 사전 검토와 이를 반영한 정책 방향성의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논의를 수행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고 공간도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에 대한 논의도 마을의 역사·문화적 자원의 변화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같은 역사성과 공간성을 아우르는 논의의 중요성은 지속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문 헌

- 강동진, 2013, “도시재생 관점에서의 도시유산 개념 정의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8(6), 253-267.
- 서울특별시청, 2014,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보전관리종합계획.
- \_\_\_\_\_, 2014, 성곽마을의 자원과 가치
- 박영춘, 2002, “도시의 이미지 측정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7(4), 29-40.
- 여관현, 2013, “마을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성장과정 연구 -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6(1), 53-87.
- 여화선 · 서주환 · 김수연, 2012, “도심 역사문화경관의 경관이미지 및 시각적 선호도 분석 - 경복궁 외부조망점을 중심으로”, 디지털디자인학 연구, 12(3), 11-20.
- 이종욱 · 이재환, 2002, “한국도시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연구 - Kevin Lynch의 이론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 22(2), 615-618.
- 장진형 · 유용현, 2013, “케빈 린치의 도시이미지 요소를 통한 프라운의 공간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33(2), 77-78.
- Burman, P. 2009, Convention and Creativity: conceptual and practical tools to handle the phenomenon of combining heritage of the past with a layer of beauty and interest of the present day. In: Andrzej T. and Simone G. (Eds.), The Image of Heritage: Changing Perception, Permanent Responsibilities, *Edizioni Polistampa*, 93-101.
- Keith, M and Pile, S. (Eds.), 1993, *Place and Politics of Identity*, Routledge, New York.
- Kuchler, S, 1993, Landscape as memory: the mapping of process and its representation in a Melanesian society. In: Barbara Bender (Eds.), *Landscape Politics and Perspectives*, Berg. Oxford, 85-106.
- Lynch, K, 1960, *The Image of the City*, The MIT Press, Cambridge, M.A.
- Rojas, E, 2016, The sustainable conservation of urban heritage: a concern of all social actors, In: Labadi S. and Logan W. (Ed.), *Urban Heritage,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International Frameworks, National and Local Governance*, Routledge, 235-255.
- UN HABITAT, 2016, HABITAT III Zero Draft of the New Urban Agenda.
- UNESCO, 2011, Recommendation on the Historic Urban Landscape.
- \_\_\_\_\_, 2005, Vienna Memorandum on World Heiritage an Contemporary Architecture - Managing the Historic Landscape.
- 교신: 김현재, 05029,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  
(이메일: laboum0910@gmail.com)
- Correspondence: Hyunjae Kim, Dept. of Geography, College of Science, Konkuk University,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Korea 05029  
(email: laboum0910@gmail.com)
- 투 고 일: 2016년 12월 8일  
심사완료일: 2016년 12월 14일  
투고확정일: 2016년 12월 19일

# 종묘의 안내·전시체계 및 활용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김수정\*

## The Improvement Measures of Guidance, Exhibition and Utilization Program of Jongmyo Shrine

Soo-Jeong Kim\*

**초록:** 종묘는 1995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또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의 전승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은 위상을 가진 종묘를 대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정한 세계유산으로서의 OUV나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등재사유가 종묘의 안내 및 전시체계, 활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느 정도로 통합적·체계적으로 기술·해설·구현되고 있는 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세계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기술이나 해설, 그 활용에 있어서는 동일 문화권 내 유사유산들과의 비교를 통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추출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종묘 제도의 원류가 되는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함께 동 문화권의 핵심 축을 형성하고 있는 베트남의 태묘와의 비교가 안내·전시체계 및 활용 프로그램 속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논하였다.

**주요어:** 종묘,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Abstract:** Jongmyo shrine is the first historic site in Korea enlisted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in 1995 and the setting for a Confucian royal ritual dedicated to the ancestors of the Joseon dynasty that encompasses song, dance and music, so it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system is the touchstone for that of other World Heritages of Korea. This paper examines in detail how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Jongmyo shrine and the exceptional value of royal ancestral ritual in the Jongmyo shrine and its music is represented in guidance and exhibition system of Jongmyo. And It explores the problems of guidance and exhibition system of Jongmyo and present the remedies for them.

**Key Words:** Jongmyo shrine, Royal ancestral ritual in the Jongmyo shrine and its music, World Heritag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1. 서론

종묘(宗廟)는 조선(1392~1897)과 대한제국(1897~1910)의 역대 왕들이 선대(先代) 왕들과 왕비들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제의(祭儀) 공간이다. 1394년~1395년 태조가 한양으로의 천도를 추진하면서 법궁(法宮)인 경복궁과 거의 동시에 건립할 만큼 국가적으로 위계가 가장 높은 건축물들 중 하나로, 사직(社稷)과 더불어 조선이라는 왕조국가의 왕권 자체를 상징하기도 했다. 따라서 그 중요성이 일

찍부터 국내적으로 널리 인정되어 1963년 종묘 전체가 사적 제125호로 지정되고, 1985년에는 정전(正殿)과 영녕전(永寧殿)이 각각 국보 제227호, 보물 제821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동 공간을 무대로 600년 이상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이 각기 1975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와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종묘는 1995년 'Jongmyo Shrine'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데 이어, 2008년에는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까지 'Royal ancestral ritual in the

\* 건국대학교 대학원 세계유산학과 박사과정(World Heritage Studies,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libwatch6990@gmail.com)

Jongmyo shrine and its music'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1995년 제19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 결정문을 보면 종묘가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된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상의 탁월한 세계보편적 가치(OUV)는 등재기준 (iv)<sup>1)</sup>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교적인 조상 제의공간의 탁월한 예로서 16세기 이후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되어 온 점, 그리고 동 공간에서는 전통적 무형문화유산들이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었다.<sup>2)</sup> 같은 해 동 총회에 제출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COMOS)의 평가보고서는 종묘의 OUV를 동아시아 세계의 다른 유교 왕실 사당들과 비교하여 세계유산위원회 총회 결정문보다 훨씬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조선 왕조 수 세기에 걸쳐 집적된 괄목할 만한 건축군(群)으로서 동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최고도의 예술적·건축적 성과를 대표한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비교적 완전하게 유지되어 왔고, 유사 성격의 건축물들 중 가장 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어느 나라의 제의공간보다 많은 수의 신주를 소장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보았는데, 종묘의 제도적 원류인 중국의 태묘(太廟)가 당초 7기이던 신주가 9개로 증가하면서 신실도 9개까지 증가하는 하였으나, 14~20세기에 걸쳐 총 9개에 달하는 신실을 가지게 된 종묘와 비교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sup>3)</sup> 한편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은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시 중국에서는 더 이상 행해지지 않는 유교적 제례의 독특한 사례로서 14세기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전승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sup>4)</sup>

이와 같은 세계적 위상과 가치를 가진 유산인 만큼 종묘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역사학과 건축사 분야에서는 세계유산 등재와는 거의 관계없이 창건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조영의 역사와 다양한 건축적 특징들을 조명하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sup>5)</sup> 관광학 분야에서는 종묘를 궁궐과 연계하여 조선 왕조 왕실 유산을 관광차원에서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거나,<sup>6)</sup>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다른 유산들과 함께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sup>7)</sup> 최근에는 세계유

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보존·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sup>8)</sup> 한편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은 국악과 무용학 분야에서 그 세부 특징과 문화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데 연구의 중점이 두어졌다.

그런데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의 OUV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의 등재사유를 종합적으로 국내외 관람객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계에서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sup>9)</sup>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인정된 OUV나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등재사유가 종묘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세계유산으로서의 종묘를 관람하고자 하는 관람객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핵심적 요소임은 부정할 수 없다고 볼 때, 이들 OUV나 등재사유가 종묘의 안내나 전시체계, 종묘에서의 활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느 정도로 기술, 해설, 구현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유산관광 자원으로서의 종묘의 보존·관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의미가 있고, 나아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다른 유산들의 보존·관리 시스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장조사 및 문화유산 해설사 인터뷰를 토대로 종묘 내외부의 안내체계를 구성하는 주요소인 문화재 안내판·리플렛·안내책자의 내용과 문화재안내해설사의 시나리오와 해설내용, 전시체계를 구성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전시관 조성 여부 및 콘텐츠 구현 실태, 그리고 종묘에서의 각종 문화 프로그램 등에서 OUV나 등재사유가 어느 정도로 기술, 해설,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2. 종묘의 안내·전시체계 및 활용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문제점

유산 관광을 함에 있어 관람객들은 해당 유산의 가치를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학습 또는 체득하게 된

다. 그 직접적 매체가 되는 것들에는 문화재 안내판 또는 표석, 안내책자, 문화재 안내해설사의 해설, 박물관 또는 전시관에서 전시와 교육 활동, 그리고 해당 유산 자체를 활용한 각종의 문화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러한 매체들 각각의 교육적 효과는 관람주체가 어떠한 유형의 매체를 선호하는가에 따라 달라 나타나기도 하지만 유산의 관리주체가 관리대상 유산에 대해 어떠한 관람제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만약 관람 시간이나 동선에 어떠한 제약도 가해지지 않는 자유 관람 방식이 채택된 유산이라면 관람객들은 주로 해당 유산에 설치 또는 비치되어 있는 문화재 안내판, 안내책자, 박물관 전시물,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활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산에 대한 기본 정보와 유산 가치를 습득하게 될 것이다. 반면 일정한 시간에 입장하고, 문화재 안내해설사의 안내를 받아 유산을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동선을 따라 관람해야 하는 제한 관람 제도가 운용되는 경우에는 해설사의 해설내용이 관람객들의 유산에 대한 주요 정보원이 된다.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는 종묘의 경우 일주일 중 6일 개관하고 있는데, 5일(월·수·목·금·일요일)은 제한 관람 제도를, 관람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토요일 하루는 자유 관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관람제도가 혼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묘의 OUV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사유는 안내·전시체계, 활용 프로그램 모두에서 명료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종묘에 대한 총 다섯 차례의 현장조사(2015년 9월 14일, 2016년 5월 1일, 같은 해 5월 5일, 9월 3일, 11월 17일) 결과를 토대로 그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안내·전시체계 조성 현황 및 문제점

### (1) 안내체계

종묘의 안내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세계유산 표지석 또는 표석, 문화재 안내판, 안내책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내 손안의 종묘>와 동 어플리케이션이 구현되는 키오스크, 문화재 안내해설사의 해설 등이 있다.



〈그림 1〉 종묘 표지석

자료: 본인 촬영(2015.9.14.)



〈그림 2〉 표지석에 사용된 로고

자료: 본인 촬영(2015.9.14.)



〈그림 3〉 세계유산 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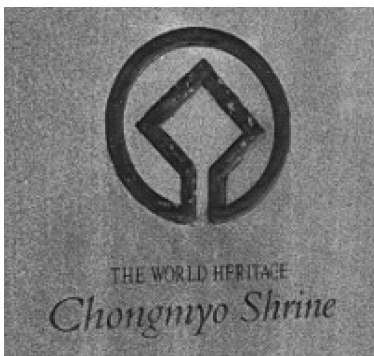
자료: UNESCO WORLD HERITAGE CENTER 인터넷 홈페이지

가장 먼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임을 세계유산 로고를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드러내주는 표지석 또는 표석의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종묘에는 그 진입부를 이루는 종묘공원 앞에 입간판 형식으로 1기, 그리고 종묘 외대문을 들어서서 정전과 망묘루



〈그림 4〉 외대문 내부 세계유산 표석

자료: 본인 촬영(2015.9.14.)



〈그림 5〉 표석에 사용된 로고

자료: 본인 촬영(2015.9.14.)

로 향하는 진입부 갈림길에 또 1기 설치되어 있다. 입간판 형식의 표지석은 별도의 설명문 없이 세계유산 로고와 세계유산 종묘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 종묘로 유도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따라서 이 표지석의 경우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이행지침 부속서 14(Operational Guidelines Annex 14 Table of Uses of the World Heritage Emblem)에서 규정한 로고의 형식을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관람을 유도하는 유산의 진정성을 표시할 수 있는데, 현재 문화재청이 사용한 이미지는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형식의 로고를 자의적으로 변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외대문 내부에 설치된 표석은 로고와 설명문이 결합된 형식인데, 여기에 사용된 로고 역시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이행지침 부속서 14와 배치된다. 그리고 설명문은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 사실, 세계유산의 정의, 종묘의 성격을 국문과 영문으로 간단히 소개<sup>10)</sup>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종묘의 OUV나 등재기



〈그림 6〉 키오스크 원경

자료: 본인 촬영(2015.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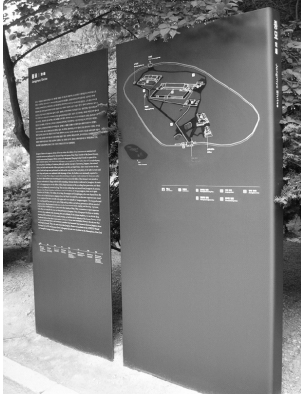
〈그림 7〉 키오스크 근경

자료: 본인 촬영(2015.9.14.)

준 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유산의 역사와 성격, 가치 등에 대한 가장 핵심적 내용이 압축적으로 담기게 되는 문화재 안내판의 경우 종묘에는 외대문(外大門) 앞 이동형 키오스크 1기, 종묘에 대한 전체적 설명이 배치도와 함께 담긴 종합 안내판 1기, 정전 등 각 건물별 개별 안내판 총 8기,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관련 안내판 총 4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중 표석에서 언급되지 못한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의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서의 등재 배경이 설명될 수 있는 것은 키오스크, 종합안내판, 정전의 안내판, 종묘제례 관련 안내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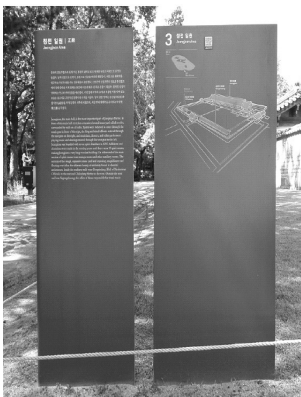
키오스크는 종묘 외부에 설치된 유일한 종묘 관련 안내시설로, 제한 관람 방식으로 내부 관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종묘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외부에 대기하면서 종묘가 어떠한 유산인지



〈그림 8〉 종합안내판

종묘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국가 최고의 사당이다. 조선의 태조가 한양을 새 나라의 도읍으로 정하고 나서 바로 짓기 시작하여 1395년에 경복궁보다 먼저 완공했다. '궁궐의 왼쪽인 동쪽에 종묘를, 오른쪽인 서쪽에 사직단을 두어야 한다'는 고대 중국의 도성 계획 원칙을 따라 경복궁의 왼쪽인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 후 왕조가 이어져 불안해야 할 신위가 늘어남에 따라 몇 차례 건물의 규모가 커져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왕이나 왕비가 승하하면 궁궐에서 삼년상을 치른 후에 그 신주를 종묘로 옮겨 모신다. 정전에는 공덕이 뛰어난 임금들을 모셨고, 영녕전에는 태조의 4대조와 죽은 뒤에 왕으로 추존되었거나 정전에서 신주를 옮겨온 임금들을 모셨다. 정전의 신실 19칸에는 태조를 비롯한 왕과 왕비의 신위 49위를, 영녕전의 신실 16칸에는 신위 34위를 모셔 두었다. 왕위에서 쫓겨난 연산군과 광해군의 신위는 종묘에 모시지 않았다. 종묘제례는 국가의 가장 큰 제사로서 정전에서 1년에 5번, 영녕전에서는 1년에 2번 열렸으며, 왕이 친히 주관했다. 종묘제례에는 왕세자와 문무백관이 참여하였으며, 음악[樂]·노래[歌]·춤[舞]이 일체화한 종묘제례악에 맞추어 진행했다. 현재 종묘제례는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 행하고 있다. 제사 외에도 종묘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일을 알리거나 기원하는 의식을 행하기도 했다. 종묘의 모든 건물은 장식과 기교를 배제하여 단순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단순함 속에서 삶과 죽음의 길은 의미를, 엄숙함 속에서 왕조의 신성한 권위를 읽을 수 있다. 중국이나 베트남과 달리, 한국의 종묘는 건축물과 더불어 제례와 제례악의 본모습을 그대로 보존하여 실현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 종묘는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은 2001년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재되었다.

〈그림 9〉 종합안내판의 국문 문안



〈그림 10〉 정전 안내판

자료: 본인 촬영(2015.9.14.)

종묘의 중심부분으로 길게 지은 정전의 앞에는 넓은 월대를 두었고 사방으로 담장을 둘렀다. 남쪽 신문으로 혼령이, 동문으로 임금을 비롯한 제관들이, 서문으로 제례악을 연주하는 악공과 춤을 추는 일무원들이 출입했다. 1395년에 신실 7칸의 규모로 창건했고 여러 차례 증축을 거쳐 현재는 19칸에 이르러 매우 긴 목조 건물이 되었다. 몸체인 신실의 양쪽에는 창고와 부속실들을 마련했다. 거친 월대 바다와 그 위로 육중한 지붕이 떠 있는 모습은 송고하고 고전적인 건축미의 극치를 이룬다. 남쪽 담장 안에는 공신당(功臣堂)과 칠사당(七祀堂)을 각각 동쪽과 서쪽에 세웠으며, 서문 밖에 제례악을 준비하는 악공청(樂工廳)을 두었다.

〈그림 11〉 정전 안내판의 국문 문안

자료: 본인 촬영(2015.9.14.)

를 미리 학습할 수 있게 하는 주요 도구로 기능할 잠재적 가능성은 있다. 종묘에서 운영되고 있는 콘텐츠 가운데서는 현재 그 내용이 가장 충실한 <내 손안의 종묘>가 구현되는 장비이기는 하지만 현재 1기만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 수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상시 야외에 설치되어 있어 소음에 노출되어 있고 빛 반사 등이 있어 콘텐츠의 내용과 음성을 제대로 인식하기 곤란하다는 점, 그리고 표석과 마찬가지로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등재 배경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다는 점 등이 그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종묘 종합안내판과 정전 안내판은 2008년 문화재청과 재단법인 아름지기가 협력하여 문화유산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궁궐 유산 안내판과 소책자의 재질, 디자인, 문안 등의 종합적 개선사업의

결과물 중 하나이다. 그 이전 시기의 안내판들과 비교할 때 관람객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관람객들이 안내판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들을 보다 짜임새 있고 이해하기 쉬운 문안(국문과 영문)으로 재구성하고, 그래픽과 연표 등을 병치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 가운데 종합안내판의 문안은 세계유산으로서의 종묘의 OUV를 비교적 의식적으로 문안에 표현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중국이나 베트남과 달리, 한국의 종묘는 건축물과 더불어 제례와 제례악의 본모습을 그대로 보존하여 실현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 종묘는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은 2001년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재되었다.”고 기술한 문안에서 부분적이거나 드러난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한편, 종묘 정전의 안내판 문안에도 ‘1395년에 신실 7칸의 규모로 창건했고 여러 차례 증축을 거쳐 현재는 19칸에 이르

러 매우 긴 목조 건물이 되었다.“라고 정전의 주요 건축적 특징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OUV를 구성하는 종묘의 특징들이 중국, 베트남의 유사 유산과의 비교를 통해 집약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문안의 수정이나 다른 매체를 통한 보완이 여전히 필요하다.

한편, 인류무형문화유산 관련 안내판도 배치되어 있는데, 종묘제례 안내판은 정전의 동문 앞에 신위 배치도와 함께 설치되어 있고,<sup>11)</sup> 종묘제례악 안내판은 향대청 앞에 설치되어 있다.<sup>12)</sup> 두 안내판 모두 설명문안과 제례 및 제례악 재현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 문안을 살펴보면 종묘제례의 경우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종합적인 의례이다.”라고만 서술되어 있고, 종묘제례악은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고 2001년에 종묘제례와 더불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라고만 기술되어 있을 뿐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이 중국이나 베트남과 달리 14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단절

없이 온전하게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은 설명되어 있지 않다. 특히 종묘제례 안내판의 경우 해당 유산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사실도 누락되어 있다. 또한 인류무형문화유산 로고도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안들은 제목을 포함하여 모두 국문으로만 작성되었기 때문에 외국인 관람객들이 종묘의 OUV를 구성하면서 그 자체가 인류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한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의 동아시아 문화권 속에서의 가치를 다른 보완 매체 없이는 인식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문화재 안내판은 유산에 대한 정보를 매우 압축적인 문안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정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는 없다. 이때 보완 매체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안내책자이다. 현재 종묘에는 국문·영문·일문·중문 등 4개 국어로 작성된 리플렛과 소책자가 비치되어 있다.

종묘의 리플렛은 앞면만 총 6면의 접이식으로 되



〈그림 12〉 종묘제례 안내판

자료: 본인 촬영(2015.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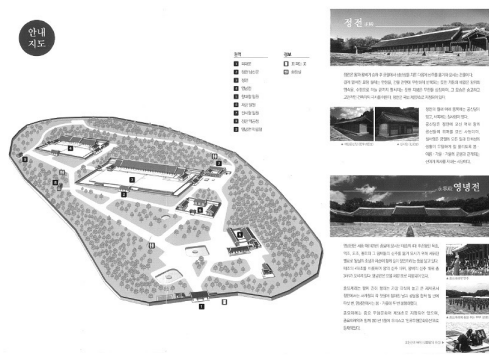


〈그림 13〉 종묘제례악 안내판

자료: 본인 촬영(2015.9.14.)



〈그림 14〉 종묘의 리플렛



어 있는데 부정확한 세계유산 로고가 표시된 표지가 1면, 중요 건물 배치도가 2면, 중요에 대한 전체적 설명이 1/2면, 정전 설명 1/2면, 영녕전 설명 1/2면, 신실 내부 시설 설명 1/2면, 관람정보가 1면으로 구성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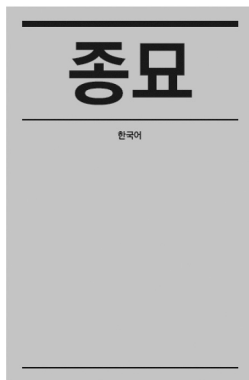
그런데 리플렛의 중요와 정전에 대한 설명문안은 오히려 문화재 안내판 문안보다 전체적으로 소략하다. 특히 세계유산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사유를 기술하면서는 중국과 베트남의 유사사례와의 비교 설명을 생략한 채 “중요는 건물과 더불어 제례 및 제례약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요는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중요제례 및 중요제례약은 2001년에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라고만 표현하여 관람객들이 세계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등재사유 및 가치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가지게 하고 있다. 영문 · 일문 · 중문으로 된 리플렛은 국문으로 된 문안을 직역한 것이어서 동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

중요와 중요제례, 중요제례약에 대한 문화재 안내판과 리플렛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보다 더 상세한 정보는 『중요』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 책자는 중요 대표소에서 500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리플렛과 마찬가지로 국문의 문안을 토대로 영문 · 일문 · 중문으로 번역되어 내용은 큰 차이 없이 동일하다. 가로 8cm, 세로 12cm 크기에 총 19페이지로 된 이 소책자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과 같이 2008년 재단법인 아름지기가 전문가 자문과 문안 작성 작업을 거쳐 궁궐 유산 안내판과 소책자 디자인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문화재청에 기증한

것을 문화재청이 오늘날까지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발간하고 있다.

중요 전체 소개 글이 건물 배치도와 함께 맨 앞에 세 페이지에 걸쳐 배치되어 있고, 뒤이어 향대청 소개 글이 세 페이지, 재궁이 한 페이지, 정전 일원이 세 페이지, 영녕전 일원이 두 페이지, 전사청 일원이 한 페이지, 신실 두 페이지, 중요 제례 한 페이지, 중요제례약이 한 페이지씩을 차지하고 있다. 이 소책자를 읽고 나면 중요가 어떤 곳이고,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유산인지, 그리고 그 안의 각각의 건축물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던 곳인지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세계유산으로서의 중요의 가치와 중요제례 및 중요제례약에 대한 서술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림 16과 그림 17의 하단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소책자의 세계유산 및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설명 부분은 문화재 안내판의 내용과 동일하다. 따라서 소책자의 내용 역시 일반 관람객들이 국가 사적과 중요무형문화재를 넘어 세계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중요와 중요제례 및 중요제례약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게 하는 데는 불충분한 매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문화재안내해설사의 해설은 박희주(2002)가 설문조사를 통해 밝혔듯이 중요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적 측면에서 가장 많은 효과와 만족도를 주는 매체라고 볼 수 있는데, 2010년 관람방식이 제한 관람 방식으로 변경된 후에는 그 중요도가 더 상승하게 되었다. 현재 문화재청 중요관리소에는 총 11인의 문화재 안내해설사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관람객들에게 우리말을 비롯한 총 4개 국어로 해설 서



〈그림 15〉 소책자 표지

**조선왕실의 사람**  
 중요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국가 최고의 사당이다. 왕실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기도 한도시 국가의 도읍지에 세워져 있고, 그 위치나 형식 등도 따로 규정된 제도에 의거해 정해져 왔다. 지금 서울에 있는 중요는 1395년 조선의 태조가 한양을 새 나라의 도읍으로 정한 후에 지었다. ‘궁궐의 왼쪽에 중요로, 오른쪽에 사직단을 두어야 한다’는 주례에 따라 경복궁의 왼쪽에 자리를 잡았다. 지금의 중요는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어 1608년에 중건한 것이다. 건립 후 모시는 신주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차례 건물 규모를 늘려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중요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은 정전과 영녕전이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정전을 중요라 하였으나, 현재는 정전과 영녕전을 모두 합쳐 중요라 부른다. 정전의 신실 19칸에는 태조를 비롯한 왕과 왕비의 신주 48위를, 영녕전의 신실 16칸에는 34위의 신주를 모셨다. 왕위에서 떨어진 연산군과 광해군의 신주는 중요에 모시지 않았지만, 왕위에서 쫓겨났다가 수중 때 명예를 회복한 단종의 신주는 영녕전에 모셨다.  
 중요는 제사를 모시는 공간과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나뉜다. 제사를 모시는 공간으로는 정전, 영녕전, 봉선당, 칠사당이 있고,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으로는 제소, 향대청, 약종실, 전사청 등이 있다. 중요의 모든 건물은 궁궐과 기교를 절제하여 단조로워 보이지만, 이는 존엄하고 신성한 분위기를 위한 의도적인 장치이다. 중국이나 베트남과 달리 한국의 중요는 건물과 더불어 제례와 제례약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요는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중요제례 및 중요제례약은 2001년에 인류 유산 및 무형유산결약으로 등재되었다.

〈그림 16〉 소책자의 중요 전체 소개 부분

**중요제례**  
 宗廟祭禮  
**국가 최대 규모의 제사**  
 중요제례는 유교 예법에 맞추어 정해진 절차, 신을 즐겁게 하는 절차, 신을 보내 드리는 절차로 구분하여 중요제례에 맞추어 행한다. 조선시대의 중요제례는 왕이 친히 행하는 가장 격식이 높고 큰 제사로서 받들어 지냈으며, 왕을 비롯한 왕세자, 여러 계관, 문무백관 등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왕이 직접 지내는 정행을 못 하면 영의정 등 대신이 올리는 신행을 하기도 하였다. 중요제례는 정전에서는 각 계절의 첫달과 음력 12월에 좋은 날을 정하여 일년에 다섯번 지냈고, 영녕전에서는 봄·가을에 두 번 봉행하였다. 지금은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 봉행하고 있다. 제례 이외에도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빌거나 알리는 의식을 중요에서 먼저 행한 다음 시행하였다. 중요제례는 상사(喪事)나 흉사(凶事)가 아니라 길사(吉事)에서 의례도 길례(吉禮)로 발달했다. 중요제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중요제례와 함께 2001년 5월에 유네스코 ‘인류 유산 및 무형유산결약’으로 등재되었다.

〈그림 17〉 소책자의 중요제례 소개 부분



〈그림 18〉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는 관람객들

자료: 본인 촬영(2015.9.14.)



〈그림 19〉 조선왕릉전시관

자료: 본인 촬영(2015.9.14.)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up>13)</sup> 휴관일인 화요일과 자유 관람이 이루어지는 토요일을 제외하고 5일 동안은 관람객들은 약 1시간에 걸쳐 이들 해설사와 동행해서만 종묘 내부를 관람할 수 있게 되므로 이들의 해설 내용의 정확성과 충실도 등은 종묘에 대한 사전 지식과 역사적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관람객들의 종묘의 역사와 건축물별 특징과 용도, 종묘제례, 그리고 이들 유산들의 세계유산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가치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필자가 직접 종묘를 방문하여 청취한 해설사의 해설내용을 청취한 결과, 해설사들은 소책자나 문화재 안내판 등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수준에서 또는 그 내용들을 보다 축약하여 관람객들에게 전달하는 양상을 보였다. 세계유산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는 등재 연도와 등재 사실만 언급하고, 등재 배경과 OUV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2016년 11월 18일 진행한 박연옥 종묘 문화유산 해설사 실장과의 인터뷰 결과, 현재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문화재청의 종묘 해설 시나리오는 종묘 소책자의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한다. 또한 해설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비정기적인 재교육과 국내 유산 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에 대해 세부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유사유산인 중국 베이징의 태묘(太廟)와 베트남의 순화(順化) 태묘 등을 관람하며 종묘와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는 못한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는 해설사 스스로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람객들에게

유산 해설을 하는 양상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 (2) 전시체계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을 다각도로 조사·연구하고, 관련 유물들을 전시하며, 축적된 연구 성과를 대중에게 교육 프로그램이나 연구서적·도록 등 발간 통해 공개하는 등 유산의 가치를 종합적, 효과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는 유적 박물관 또는 전시관을 건립,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종묘의 경우는 2009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태릉·강릉)과 달리 소규모의 유적 전시관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태릉·강릉의 경우 유적 진입부에 지상 1층의 총면적 999㎡ 규모의 <조선왕릉전시관>이 건립되어 세계유산으로서의 조선왕릉의 가치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재 제한적이거나 전시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청 종묘관리소 인터넷 홈페이지와 문화재청이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의 종묘> 등이다. 종묘관리소 홈페이지는 박물관 또는 전시관이 없는 상황에서 종묘와 관련된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집적되고, 일반에 공개될 수 있는 중요한 매체가 될 수 있으나 현재 동 홈페이지는 유산과 관련해서는 리플렛에서 제공하는 정도의 정보만 게시되어 있고, 주로 종묘관리소에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인력을 채용하고자 할 때 동 소식을 게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주요정보는 국문으로 작성되어 있고, 영문·중문·일본 버튼을 누르면 문화재청 세계유산 영문 소개 페이지로





〈그림 22〉 춘향대제 당시 정전 밖에 설치된 스크린  
자료: 본인 촬영(2016.5.1.)



〈그림 23〉 삭망향종묘의 참가자들의 신실 내부 청소 모습  
자료: 본인 촬영(2016.9.3.)



〈그림 24〉 묘현례 재현 모습  
자료: 본인 촬영(2016.5.5.)

레가 그 대표적 예이다. 삭망향종묘의는 2015년 신설되어 현재 3~11월 중 매월 음력 초하루 또는 보름에 총 7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삭망향종묘의의 경우 행사 참가자에게 제사를 직접 실행하고, 또 평소에는 공개되지 않는 신실 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종묘와 종묘제례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여 인식하는 데 효과가 크다.

세자빈이 가례를 마친 후 종묘를 참배하는 의례로서 묘현례도 2012년 이후 종묘에서 5월 금요일~일요일

일 총 3회에 걸쳐 재현되고 있는데 종묘에서 행해지던 의례 중 왕실 여성이 참여하는 유일한 행사를 재현함으로써 세계유산인 종묘를 좀 더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제례 또는 의례의 재현 외에 종묘의 유산 가치를 관람객들과 공유하고자 201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이야기가 있는 종묘제례악’(5·6·9·10월 토요일, 총 10회 시행), 종묘제례악 야간공연(5월 토요일, 총 2회), 종묘대제 제수 진설 체험교육(4·5·9·10월 토요일, 총 8회) 등이 있다.

또한 일반인 대상 종묘 사진 경연대회와 궁궐 속 인문학 강좌, 고궁 청소년 문화학교 등도 시행되고 있는데, 종묘 사진 경연대회는 5월과 11월 연 2회 개최되는데, 이 행사는 세계유산으로서의 OUV를 정확히 반영하는 사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발굴된 사진들이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전시 등을 통해 공개되지 않고 있어 행사를 위한 행사로 변질되고 있다. 궁궐 속 인문학 강좌와 고궁 청소년 문화학교는 종묘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궁궐 순회강연 프로그램이므로 세계유산으로서의 종묘에 대한 집중 조명은 사실상 곤란하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종묘의 활용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종묘제례의 실행과 관련된 왕실 의례 및 행사의 재현 등에 집중되고, 종묘의 건축적 가치를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기획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 3. 세계유산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 1)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로고와 용어의 정확한 사용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이행지침 부속서 14와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이행 협약 운영지침(Operational Directiv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hapter IV.2은 세계유산이나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로고를 회원국이 국내에서 사용할



<그림 25> 세계유산 로고(왼쪽)와 인류무형문화유산 로고(오른쪽)

자료: UNESCO WORLD HERITAGE CENTER와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인터넷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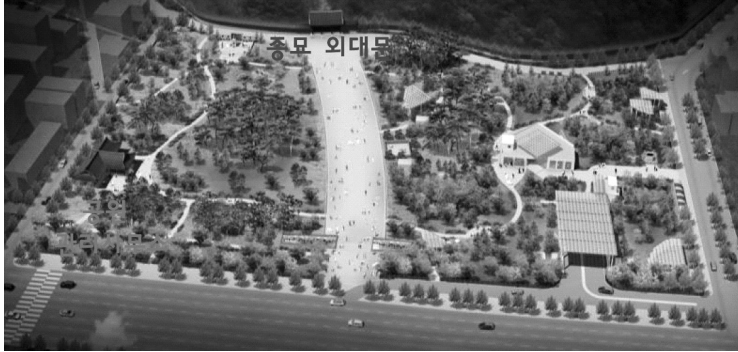
때 동 유산들의 엠블럼을 <그림 25>와 같이 유네스코의 엠블럼과 반드시 결합하여 사용하고, 엠블럼 하단 문구 등도 정해진 형식을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종묘의 경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표지석과 표석, 리플렛,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종묘> 등 세 곳에서만 세계유산 엠블럼을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 유네스코 엠블럼과 결합시키지 않고 단독으로 표시하였으며, 그나마 엠블럼의 디자인과 문안도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이행지침 부속서 14에 반하고 있으므로 유산의 진정성 제고를 위하여 시급히 교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은 건축물로서의 종묘와 함께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나 로고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세계유산 로고를 표시하고 있는 매체들에서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로고를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각 매체들에서 World Heritage와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해당하는 한글 용어를 일정한 원칙 없이 표현하고 있는 바 이는 국내 관람객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재청이 공식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종묘는 ‘세계유산’ 또는 ‘세계문화유산’ 등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유산협약과 동 협약 운영지침에 따라 ‘세계유산’으로,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의 경우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절작’, ‘인류무형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으로 혼용하고 있는 것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안내 및 전시시스템의 체계적 정비

현재 종묘의 각종 안내 매체와 전시 관련 시스템에서는 공통적으로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종묘 및 종묘제례가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사실은 기술하면서 구체적으로 전 세계 인류에게 중요한 어떤 보편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세부적으로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 등재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유산들이 최소한 5~6년 동안의 유사사례와의 비교연구 등을 포함한 학술 조사·연구와 보존관리계획 수립 등을 기반으로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는 데 비해 종묘는 충분한 사전 준비 작업을 거치지 않고 1994년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대상으로 추천된 후 같은 해에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데 이어 1995년 바로 세계유산에 등재됨으로써 등재 추진주체와 관리주체 간에 종묘의 가치를 충분히 공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관리계획이 체계적으로 실행되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묘의 세계유산으로서의 OUV와 등재기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 등재 결정서와 국제기념물협회의 평가보고서에서,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등재사유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므로 종묘 내외부의 안내 및 전시 시스템 전반을 동 문헌들에 기초하여 재정비하되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있는 종묘의 진입공간을 이루는 종묘공원이 최근 재정비되었으므로 두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통합적 안내 및 전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림 26〉 종묘공원 배치도

자료: 서울특별시 제공

### (1) 종묘공원 내 종묘 전시관의 건립

종묘 진입 공간을 구성하고, 어도(御道), 종묘 앞다리·어정(御井)·하마비 등이 위치하는 종묘 외대문 앞 종묘공원은 토지 소유자인 서울특별시에 의해 2007~2016년 재정비 공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정비의 주목적은 노인·노숙자들에 의한 음주가무·도박·매춘 등 심각한 무질서 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것이었고, 동 재정비를 위한 사전 절차로 발굴조사를 시행한 후 어도 등 매장문화재를 보존 조치한 것이므로 세계유산인 종묘의 가치를 조명하거나 그 진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정비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종묘로의 진입공간이 되는 종묘공원은 현재 관람객들을 종묘로 자연스럽게 유도하거나 동 공원 내에서 종묘와 종묘제례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유물들을 전시하며, 연구 성과들을 교육 프로그램이나 서적·도록 등 발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는 등 유산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는 유적 박물관 또는 전시관을 건립,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때 종묘의 경우도 유적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해치지 않는 장소에 종묘 전시관을 건립하여 관람객들이 종묘 관람 전후로 전시관을 방문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현재 종묘에는 공원관리사무소가 1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 관리사무소를 조선왕릉 전시관과 유사한 규모로 확장하여 전시관을 조성하고, 종묘 내부에서 수행하기 힘든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종묘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진정성은 강화되고 관람객들은 종묘의

OUV와 종묘제례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2) 문화재안내해설사의 전문성 향상

현재와 같은 관람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종묘 관람객들이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설사의 해설 시나리오에 대한 업데이트와 해설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계유산 전문가에 의한 주기적 재교육, 해설사들의 해설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선발되는 우수 해설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 내 유사유산 연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설 시나리오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 제도 소개, 세계유산위원회의 종묘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결정서와 국제기념물협회의 평가보고서 번역문, 직접적 비교 대상 유산인 중국 베이징의 태묘(太廟)와 베트남의 순화(順化) 태묘의 건립 및 중수 연대, 건축 규모, 부묘(祔廟) 제도, 제의와 제례악의 특징과 전승 역사 등 비교 자료 등을 수록하여 종묘가 동아시아 문화권 내 유사유산들 중 가장 연대가 오래되고, 건축물로서의 예술적 완성도가 가장 뛰어나며, 독특한 부묘 제도의 운용으로 인해 건축 규모 및 신실 수에서 다른 유산들을 압도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에서는 단절된 무형의 제례와 의례 등이 종묘에서만 600년 이상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해설사 스스로 명료하게 인식하고, 이를 관람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설사가 해설 시나리오의 암기에 그치지 않고 세계유산학, 건축사, 한국사, 무용사, 음악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 의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문화재청이 시행하고 있는 해설사들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우수 해설사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베트남과 중국의 태묘를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귀국 후에는 연수결과를 동료들과 공유하는 교육 시스템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문화재 안내판 재정비 및 안내책자의 개편

종묘의 표석과 안내판은 최근 정비된 종묘공원과 종묘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증설, 통폐합, 위치 변경 등을 추진하고 세계유산과 관련한 불충분한 정보는 문안 재작성 등을 통해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표석은 입장료를 내고 종묘 외대문을 들어와서야 보게 되나 종묘가 세계유산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만큼 종묘 외부로 이전하여 관람객들이 유산 밖에서부터 유산의 성격을 사전에 인식하고 진입하도록 해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리고 종묘 외대문 밖에는 콘텐츠 인식이 곤란한 이동식 키오스크 1기를 보완하여 종묘의 성격과 역사, 세계유산으로서의 OUV,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등재사유 등을 4개 국어로 간명하게 알려주는 종합안내판을 종묘 내부 종합안내판의 디자인과 맥락을 같이 하여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 안내판은 전술(前述)한 것과 같이 약 120m 이격하여 각기 정전과 향대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바 제례 및 제례악이 베풀어지는 공간인 정전 앞에 1기로 통합하여 설치하고, 중복되는 문안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안내책자의 경우 현재 리플렛이나 소책자 모두 지나치게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관람정보를 전체 혹은 부분 삭제하는 대신 종묘의 세계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부각시켜주는 중국 베이징의 태묘와 베트남의 순화(順化) 태묘 사례를 포함시키는 것이 관람객들의 종묘 이해에 더 효율적이다. 특히 리플렛보다 더 많은 정보가 삽입될 수 있는 소책자의 경우 우리나라의 종묘와 중국·베트남의 태묘의 연혁을 세계사의 발전 속에서 정리하고, 세 유적의 규모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하는 동일 축척의 배치도와 동유

적과 유적 내에서의 제의 및 의례 행사 사진 등을 포함시켜 동아시아 왕실 제례공간으로는 유일하게 세계유산에 등재된 종묘의 OUV를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활성화 필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종묘 관련 프로그램들은 상대적으로 유형유산보다는 무형유산에 비중을 두고 기획되었기 때문에 종묘의 건축적 가치를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먼저, 자유관람이 이루어지는 토요일의 경우 종묘와 관련한 주제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현장 대중강연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종묘를 주제로 하는 국제·국내 학술대회를 연 1회씩 개최하여 종묘의 유산 가치를 확장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종묘 내 정전 등 건축물들에 대한 수리·복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정한 주기를 두고 공사 현장을 공개해 수리기술자가 직접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전통기술의 적용을 통한 세계유산으로서의 종묘의 OUV를 진정성 있게 지켜나가는 노력을 설명하고, 관람객들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를 널리 공유해나가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태묘와 구분되는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를 구성하는 수평성(horizontality)이 생겨나게 된 태종·세종·선조·광해군·현종·영조·헌종실록 속 역사적 증축 결정 장면들을 생생하게 스토리텔링을 통해 극화하여 공연함으로써 국내외 관람객들이 세계유산 가치 탄생의 역사적 순간을 체험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 4. 맺음말

종묘는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사적으로서 1995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또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의 전승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다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종묘를 대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

회가 인정한 세계유산으로서의 OUV나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등재사유가 종묘의 안내 및 전시체계, 활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느 정도로 통합적·체계적으로 기술·해설·구현되고 있는 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세계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기술이나 해설, 그 활용에 있어서는 동일문화권 내 유사유산들과의 비교를 통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추출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종묘와 종묘 제도의 원류가 되는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함께 동 문화권의 핵심 축을 형성하고 있는 베트남의 태묘와의 비교가 안내·전시체계 및 활용 프로그램 속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논하였다.

본 논문은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및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에 의해 인정된 종묘의 OUV, 그리고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때의 등재 사유에 기초해 동 내용들만이라도 반영한 안내 및 전시 매체 정비, 활용 프로그램 개편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지만, 종묘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는 등재 당시 충분한 학술연구를 통해 정립된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도 더 정밀한 비교연구와 꾸준한 학술 연구를 통해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그렇게 국내적으로 확장된 가치들이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인정되는 경우 동 가치들에 부합하는 유산의 보존과 정비가 추가적으로 계속 이루어져나가야 한다고 본다.

## 주

- 1) 1995년 당시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상의 등재기준 (iv)는 “be an outstanding example of a type of building or architectural or technological ensemble or landscape which illustrate (a) significant stage(s) in human history”이다.
- 2) The Committee decided to inscribe this site on the World Heritage List on the basis of criterion (iv), as an outstanding example of the Confucian royal ancestral shrine, which has survived relatively intact since the 16th century, the importance of which is enhanced by the persistence there of an important elemen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form of traditional ritual practices and forms.(19COM VIII.C.1 - Inscription:

Chongmyo Shrine)

- 3) Evaluation report(ICOMOS, May 1999)
- 4)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홈페이지(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ttp://www.unesco.org/culture/ich/en/home>)에 소개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5) 한형주(2004), 전찬진·소병익(2006), 조상순(2011) 등이 그 대표적 연구들이다.
- 6) 이종희(2012), 이창근(2015), 박영록(2004)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 7) 김상태(2014), 전명숙(2005), 이주형·전명숙(2003) 등이 그 대표적 연구 성과들이다.
- 8) 강동진·박소현·성기진·명준영(2013)이 그 대표적 연구이다.
- 9) 박희주(2002)가 본 논문과 주제 면에서 가장 근접한 연구이나 본 논문 역시 2002년 당시 종묘 방문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묘가 가지고 있던 교육매체(자원해설자, 리플렛, 안내해설판) 중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관광자원 해설에만 초점을 두고 그것이 방문객들의 학습 증진, 관리의식 증진, 교육성 지각 등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음을 논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 10) 종묘 표석의 문안은 아래와 같다.  
“종묘는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세계유산이란 당해 문화재가 세계적으로 특출하고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보호되어야 할 유산을 말한다. 종묘는 조선 시대 역대 왕과 왕후의 신위를 모시고 제향을 올리는 유교적 전통 신전으로 1395년(조선 태조 4년)에 지어졌으며 그 후 매년 이곳에서 종묘 제례 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 11) 종묘제례의 안내판 문안은 아래와 같다.  
“종묘대제는 조선 왕조의 사당인 종묘에서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의례로 봄·여름·가을·겨울·납일 등 1년에 5번 지냈으나 현재는 매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국제문화행사로 봉행되고 있다. 제향의식 뿐 아니라 제례악과 일부 등 유형과 무형의 세계유산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종묘대제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종합적인 의례이다.”
- 12) 종묘제례악의 안내판 문안은 아래와 같다.  
“종묘제례악은 종묘제례 의식에 맞추어 연주하는 것으로, 기악·노래·춤이 어우러지는 종합예술이다. 악기 연주에 맞추어 선왕의 공덕을 기리는 노래를 부르며, 열을 맞추어 추는 일무를 춘다. 종묘제례악은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고 2001년에 종묘제례와 더불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13) 종묘 문화재안내해설사는 안내 1년 이상 경력,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한국어능력시험(KBS 주관) 2+급 이상,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가평찬위원회 주관)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 지원

가능하다.

## 문헌

- 강동진·박소현·성기진·명준영, 2013, 세계유산의 등재, 그 의미와 보존관리의 현안, 도시경보지, 통권 제374호, 3-21.
- 김상태, 2014, 역사·전통문화 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
- 김지선, 2011, 세계문화유산지의 관광체험 구조분석, 한양대학교박사학위논문.
- 김주연·홍성주, 2016, 세계문화유산 화성행궁 내 관광안내판 보완 수단으로써 이동식 안내판 적용, 여가관광연구, 25, 57-77.
- 김홍남, 2015,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 건축적 기회와 책임", 대한건축학회지, 59(12), 11-15.
- 박영록, 2004, "궁궐문화재 활용 방안 연구: 서울 고궁 및 종묘를 중심으로", 문화재학, 창간호, 155-193.
- 박은경, 2013, 문화유산관광에서의 진정성이 관광객의 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하회마을을 대상으로-, 제주대학교박사학위논문.
- 박희주, 2002, 관광자원해설의 효과분석: 종묘 방문자를 대상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용석·김지선·이훈, 고궁관광 경험 분석, 서울도시연구, 11(2), 181-195.
- 이종희, 2012, "고궁관광자원화, 살아 숨 쉬는 4대궁과 종묘 만들기", 월간 문화재, 통권 제335호, 22-23.
- 이주형·전명숙, 2003, "세계문화유산 관광자원화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연구, 5(3), 47-63.
- 이창근, 2013, "궁궐·종묘 문화유산의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및 종묘의 활용사업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창근, 2015, "문화유산의 활용과 관광자원화 방안: 궁궐·종묘의 활용사업을 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35, 207-232.
- 장은선·박소현, 2011, "세계유산의 통합적 보존관리 실행체계에 관한 연구: 종묘와 창덕궁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466-474.
- 전명숙, 2005, "한국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종합 학술대회 논문집.
- 전찬진·소병익, 2006, "종묘의 건축공간 깊이 표현 기법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 26(1), 129-132.
- 조상순, 2011, "창건과 수리 - 조선시대 종묘의 건축적 고찰", 서울학연구, 43, 149-202.
- 최맹식, 2015, "세계유산의 풍수적 관점: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경주월성 황룡사지 분황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지, 59(12), 34-37.
- 최화열·노하은, 2009,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 종묘와 종묘제례의 문화, 역사적 특징에 대한 고찰", 한국사지리지학회지, 19(4), 27-41.
- 한형주, 2009, "조선전기 종묘 '同堂異室制'의 비판과 重建 논쟁", 韓國史學報, 36, 9-42.
- 황병춘, 2008, "세계문화유산관광자 가치추구 연구: Laddering 기법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박사학위논문.
- 문화재청, 1997, 한국의 세계유산. 『朝鮮王朝實錄』
- 『周禮』
- 문화재청 종묘관리소, <http://jm.cha.go.kr>
- (재)아름지기, <http://www.arumjigi.org>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ttp://www.unesco.org/culture/ich/en/home>
- World Heritage Center, <http://whc.unesco.org>
- 교신: 김수정, 05029,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대학원 세계유산학과  
(이메일: libwatch6990@gmail.com)
- Correspondence: Soo-Jeong Kim, World Heritage Studies,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Korea 05029  
(e-mail: libwatch6990@gmail.com)

투 고 일: 2016년 12월 2일  
심사완료일: 2016년 12월 9일  
투고확정일: 2016년 12월 14일



# 세계유산의 관리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의 필요성: 남한산성 산성리 주민 사례를 중심으로

공성현\* · 김숙진\*\*

## The need for local community's participation in the conservation of World Heritage: the case of Namhansanseong

Sunghyun Gong\* · Sook Jin Kim\*\*

**초 록:** 2007년 뉴질랜드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협약 이행에 있어 공동체의 역할 증대를 강조한 이후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세계유산 남한산성에서는 등재과정에서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와 산성리 주민의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주민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사례 중심으로 세계유산 등재 전후의 지역공동체의 참여 상황과 등재 과정 중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와의 갈등 원인을 알아보았다.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유산지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남한산성에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해결책과 발전방향을 모색해보았다.

**주요어:** 세계유산, 남한산성, 공동체, 참여

**Abstract:** The 31<sup>st</sup>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held in New Zealand in 2007 added a 5<sup>th</sup> C, 'community' to the existing 4Cs to fulfill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since then the role of local community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In the case of Namhansanseong, the local community's participation in th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the World Heritage Site has not been strong because of the conflicts between Namhansanseong World Heritage Centre and local community. This paper analyzes how the local community made an effort to conserve and inscribe Namhansanseong to the World Heritage List and how the conflicts have been created. By introducing some examples in which local community participates in the conservation as well as promotion of World Heritage, the paper seeks to suggest how to increase local community's participation in case of Namhansanseong.

**Key Words:** World Heritage, Namhansanseong, local community, participation

## 1. 서론

세계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은 1972년 제17차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해 파괴의 위협에 처한 유산의 보호, 복구를 통해 보편적 인류유산의 파괴를 방지하고, 세계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이다(조아라 · 김숙진, 2016).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Operational Guidelines)은 의사결정기구인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의 결정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개정된다. 세계유산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세계유산을 지정하고 이를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World Heritage List)에 등재하는 것이다.

200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는 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들 목표들은 정기적인 점검, 개정을 통해 세계유산에 대

\* 건국대학교 대학원 세계유산학과(World Heritage Studies,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simbole2001@naver.com)

\*\* 건국대학교 지리학과/대학원 세계유산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Geography Department, College of Science/World Heritage Studies,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sjkim@konkuk.ac.kr)

〈표 1〉 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중 지역주민 참여 와 관련된 부분

항목	조항	내용
세계유산 등재과정	123항	등재신청 과정에 지역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보존관리	111항	- 모든 이해관계자의 철저한 공동의 이해 -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지속가능한 활용	119항	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호와 보존, 관리에서 관련 공동체와 이해관계자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

출처: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2015

한 위협요인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4C’로 정립되었다(UNESCO, 2002). 4C의 내용은, 세계유산 목록에 대한 신뢰(Credibility)강화, 세계유산의 효과적인 보존(Conservation)의 보장, 당사국의 효과적인 역량 구축(Capacity-building) 촉진,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통한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 참여 및 지지 강화이다.

이후 세계유산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전략 목표는 2007년 뉴질랜드 남단 크라이스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기존의 4C에서 공동체(Communities)의 역할 증대를 추가해 5C로 재정립되었다(UNESCO, 2007). 이는 세계유산의 지속적인 관리와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는 세계유산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다양한 세계유산지역에는 지역주민과의 가교역할이 필수적이다. 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서도 세계유산 등재신청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역할에 대한 그 근거가 명확하게 나타난다(표 1).

현재 세계유산은 총 1,052점으로 전 세계 165개국에 분포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는 총 12개의 세계유산이 있다. 이중 남한산성은 동아시아 무기 발달사와 축성술에서 상호 교류한 탁월한 증거라는 점, 그리고 요새화된 도시로 조선시대 임시수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축조된 산성도시라는 점에서 세계유산 등재기준 2번, 4번에 충족되어 우리나라의 11번째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세계유산 등재 후 이코모스는 남한산성을 관리함에 있어 여러 가지의 조치들을 권고하였는데, 특히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의견 조율을 담당하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전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의 역할을 기존보다 더 강화하고, 산성리 주민과의 세계유산 가치이해 공유 및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주관 활용사업의 참여 장려 등을 명시했다(UNESCO, 2014). 이는 세계유산에

서의 지역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며 2007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개정된 전략목표에서 추가된 공동체(Community)의 역할 증대를 요구하는 근거이다. 특히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과 산성리 주민은 세계유산 등재와 마을의 관광객 유치에 위한 각자의 목표에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2009년 6월 잠정목록 후보 선정이후 2014년 6월 22일 세계유산에 등재되기까지 5년의 기간 동안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을 중심으로 등재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해 산성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계유산등재를 대비한 교육과 문화탐방, 간판조성사업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에서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하지만 세계유산 등재과정에서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와 산성리 지역주민의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주민협력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며, 등재 후에는 이코모스의 권고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와 산성리 주민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남한산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산성리 주민의 참여와 협력 사례를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선방향을 추구함에 있어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유산지역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남한산성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해 산성리 주민의 등재전후 참여 현황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사례조사를 위한 세계유산지역 현지조사(2015년 11월 ~ 2016년 10월)를 통해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자료와 저자가 직접 기술 및 촬영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 2.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싼 산성리 주민의 참여와 갈등

### 1) 산성리 주민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참여와 협력

2011년 2월 8일 국내 잠정 목록 중 우선 등재추진 대상 선정에서부터 남한산성은 본격적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과정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남한산성에 생활하고 있는 산성리 주민과 협력관계는 필수적이었으며 산성리 주민들은 남한산성 주민협의회, 남한산성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남한산성 문화유산 지킴이라는 보존관리 주체 등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았다. 남한산성 주민협의회 및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는 마을 내의 모든 주민들 또는 소유권자들이 자동적으로 회원에 등록되어 마을의 보호·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의 주민참여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정도로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남한산성 문화유산지킴이는 산성리 주민과 남한산성 근방에 거주한 외부인,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및 주변 지자체 담당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 3개의 주체들은 산성리 주민들이 대부분의 구성원을 차지하고 있고,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과 주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주민과 기관의 상호협력

은 필수적이다.

#### (1)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4개의 주체 역할 중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는 산성리 주민들 스스로가 세계유산 등재에 대비하여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나타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산성리 주민의 참여는 마을정비계획, 세계유산 등재신청 등 마을부분 보존관리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반영의 표시였고, 이전 마을관리 체계에서의 공공과 민관의 소통에서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출발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회원들은 마을 홈페이지(<http://blog.naver.com/nhssarang>)를 개설하고, 주민들과 함께 세계유산과 마을관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의 협조와 지원으로 우수 마을만들기 사례지역 답사, 외국인 방문객을 대비한 비즈니스 영어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에 대비한 마을에 대한 책임감과 참여 의지를 나타냈다.

#### (2) 남한산성 주민위원회

남한산성 마을 내의 모든 주민들 또는 소유권자들은 자동적으로 주민위원회의 회원이 되며, 과거에는 주민위원회라는 정식 명칭이 없었지만 1917년 남한산구락부의 설립이후 본격적인 마을위원회가 시작되

〈표 2〉 남한산성 보존관리 주체 중 산성리 주민의 역할

구 분	역 할
남한산성 주민협의회	남한산성 마을내의 모든 주민들 및 소유권자 단체 - 행정상 주민단위로 구성, 주민등록 - 마을관리의 전반적인 부분 총괄
남한산성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생활공간으로써의 남한산성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주민단체 - 주민과 행정기관의 의견조율 - 생활공간인 남한산성 내 마을경관 보호 및 관리, 마을정비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마을만들기 전문가와의 의견교류
남한산성 문화유산 지킴이	지정문화재 보호활동을 하는 주민자치 단체 - 문화재 주변 청소, 정화활동 - 보존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 문화재 화재감시 및 순찰활동 - 문화재보호를 위한 학술활동 등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	학술, 관리·조정, 홍보, 주민참여분과로 이루어진 전문가 위원회 -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사항 심의 - 남한산성 대내외 홍보 - 세계유산 등재 전후 산성마을 발전에 관한 사항 논의 등

출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자료

〈표 3〉 산성리 마을만들기 학술용역을 위한 지원내용

목 차	내 용
추진경과	2012. 2.: 남한산성 마을 미래를 위한 공부모임 생성, 해외사례 1차 조사답사 2012. 4.: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발족 2012. 12.: 해외사례 2차 조사답사
세부내용	마을현황 조사 및 분석 - 마을만들기 사례조사 관련 법규 검토 - 마을만들기 기본구상 및 마을계획수립 -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안제시
기대효과	자발적인 주민의 장기적 플랜 지원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 마련 -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각종 재산권의 규제를 받고 있는 산성리 마을의 합리적 발전방향 제시 - 2013년 본실사에 대비하여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조체계 구축

출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자료 · 남한산성 산성리 마을만들기 계획수립 지원 문서



〈그림 1〉 마치뜨쿠리 마을관계자 남한산성 방문

출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자료



〈그림 3〉 남한산성 문화유산지킴이 회의 사진

출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자료



〈그림 2〉 주민대상 비즈니스 잉글리쉬 수업

출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자료

었다고 볼 수 있다. 위원회는 행정상 주민단위로 구성되며 마을관리의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하고 있다(문화재청, 2013b, 78).

### (3) 남한산성 문화유산 지킴이

2010년 7월 10일부터 시작하여 남한산성 성곽을 포함한 국가지정·도지정 문화재 총 12개에 대해 자발적으로 운영된 시민 자치조직이다. 취지는 관리취약 문화재의 특별 관리 체계 구축, 문화재 훼손의 사전 예방 및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이 주목표이다. 주

업무는 성곽과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남한산성 홍보, 환경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리기관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와 연계하여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고 있다.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지킴이 활동으로 문화재 보호를 수행하는 단체이다. 자격요건은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발적 참여로 신청한 시민들, 특히 이들 중 산성리 주민과 남한산성 근방에 거주한 외부인을 선발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관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총 22인의 남한산성 문화유지킴이가 활동하고 있으며 산성리 주민,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관계자, 주변 지자체 담당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문화재청, 2013b, 78).

### 2) 주민참여과정에서의 갈등과 문제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와 산성리 주민의 노력들은 등재 2개월 전인 2014년 4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와 산성리 주민의 갈등과 오해로 인해 협력사업이 중단된다. 산성리 주민들은 등재과정 이전부터 자연공



〈그림 4〉 산성리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남한산성화관 공사사업단의 공식 답변

출처: 남한산성 미래를 보는 공부사랑방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nhsssarang>

원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본인들의 상권이 위축되고, 자유로운 개발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다(문화재청, 2013b, 29-35). 이런 상황에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주축으로 진행된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산성리 주민들에게 개발 규제 완화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 혹은 규제가 심해지는 쪽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요구사항들을 전달해왔고, 아래의 내용은 질문에 대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관계자의 답변 내용이다.

### (1) 관리 주체에 대한 역할인지 부족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와 산성리 주민 간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산성리 주민들이 민간기관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공무원 조직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사업단의 권한과 책임 밖에 있는 사안들(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등재 이후에 생존권에 위협을 받을까봐 우려 표명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었으며, 센터가 이런 요구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오히려 주민들 사이에서 등재 반대를 추진하는

여론이 일어났다.

### (2) 주변 상권 현황에 대한 이해도 부족

남한산성 주변 다른 완충지역에 대한 개발이 문화재 권역에 있는 산성리 주민들의 상권에 비해 규제가 적어 상대적으로 불평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남한산성 성안과 성 밖의 방문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 사업단의 답변이다. 성안의 경우 주로 등산, 문화재 관람, 간단한 요거 거리가 주목적이라면 성 밖은 나들이, 물놀이, 외식이 주목적이어서 소비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논지이고 이는 규제에 대한 해결책이 문제가 아니라 산성리 주민들이 상권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음식 자체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오히려 더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산성리 주민이 단독으로 해결하는 것 보다 현재 관리주체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와의 협력 속에서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것이 사업단의 입장이다.

### (3) 세계유산 관리 방법에서의 소통 부족

산성리 주민들은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최적인원 수용제’를 도입해 남한산성을 방문하는 입장객 제한 등의 조치로 인해 관광객 감소와 소비수준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남한산성길은 성남·광주·하남으로 가는 교통요지라는 점과 등산로로 이어진 문화재 주변을 통과한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방문객 제한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답변을 전달하였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산성리 주민들은 2014년 3월에 세계유산 등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들을 배제하고 상호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 성곽 보수·복원에 있어서 ‘원형훼손 논란’ 등의 이유로 유네스코

〈표 4〉 산성리 주민들의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반대서한 제출 공식 기사 중 일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이 주민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다. 마을 주민들이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에 등재반대 서한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에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등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 산성리 마을 이장과 상인회장 등은 지난 13일 본보 취재에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하는 항의 서한을 지난주 유네스코와 이코모스에 접수했다”고 확인해 줬다. 유네스코(UNESCO)는 세계유산 등재 업무를 관장하는 국제기구이며, 이코모스(ICOMOS)는 자문실사기구다. 주민들은 “마을 123세대 중 100세대가 항의 서한에 동참한 가운데 93명이 등재반대를, 5명이 등재찬성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또 항의 서한은 지금 공개할 수는 없지만, 성곽 보수·복원의 ‘원형훼손’ 논란, 주민불편 우려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출처: 인천일보 2014년 3월 17일 기사

등 국제기구에 등재반대 서한을 보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산성리 주민들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협력관계는 무너졌으며 등재과정에서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 3) 민·관의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2014년 6월 22일, 남한산성은 한국의 11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코모스에서는 권고사안으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역할을 강화, 산성리 주민과의 세계유산 가치이해 공유 및 참여를 촉구했다. 이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지자체, 그리고 산성리 주민들은 서로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 (1) 산성리 주민행사 지원

현재 남한산성의 대표적인 마을행사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남한산성 문화제’ 행사와 주민 자치적으로 매년 운영되는 ‘영월제’ 행사이다. 남한산성 문화제 행사는 1996년 마을 주민중심의 대동굿행사에서 시작하였던 것이 2010년 광주시에서 이를 이어받아 남한산성 문화예술행사로 발전시킨 주요 행사이다(문화재청, 2013a, 310). 광주시는 마을주민 상인회에게 행사 운영 시 전통음식 홍보를 위한 마을부스를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제 활용 행사를 지원하는 등 마을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영월제’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월제로 불리기도 하는 정월보름에 진행되는 40년 이상 된 마을 주요행사이다(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2011, 10). 율놀이, 널뛰기, 소원지 쓰기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도립공원 등의 마을 주변 단체와 협업 속에 진행되고 있다.



〈그림 5〉 남한산성 영월제 행사

출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자료

#### (2) 남한산성 브랜드 음식 ‘효종갱’ 개발을 위한 노력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전승음식인 효종갱<sup>1)</sup>의 상품화를 위한 노력을 2011년부터 ‘남한산성효종갱’ 상표를 등록하여 연구해왔다. 그 과정에서 현재 상품화되어 효종갱을 팔고 있는 산성리 지역주민의 협력 속에 대중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컵 음식 또는 반 조리 식품으로의 판매방법을 최근 개발했다. 만약 성공적인 상품이 나오게 될 경우 남한산성 브랜드 상품으로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 (3)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역사문화명소 조성

2014년 6월 세계유산 등재이후 세계유산 관리를 위한 사업 운영 중에 산성리 주민의 협력체계는 소멸되었다. 하지만 2015년 9월 3일 민관협의체의 출범은 과거의 협력체계를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민관협의체는 지역주민 여론 수렴과 협의를 통해서 자연친화적 역사문화 유적지 조성, 교통체중 문제, 민관소통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민관협의체 출범 이후 산성리 마을의 많은 식당들이 자연친화적 소재로 보수·교체



〈그림 6〉 효종갱 상품개발 현황

출처: 2016년 11월 저자 촬영



〈그림 7〉 민관협의체 협의

출처: 2015년 10월 7일 저자 촬영

를 진행 중에 있으며 다양한 센터주관의 행사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11월 1일부로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로 기관이 통합된 이후 아직 정확한 운영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sup>2)</sup>

### 3. 주민참여를 위한 개선과제와 해외 우수 사례

#### 1)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개발

남한산성의 경우 문화관광개발에 있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주 업무를 담당하고 연례행사로 광주시에서 남한산성문화재 축제를 담당한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주말 상설공연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매년 10월 중순에 남한산성문화재 축제를 개최하여 세계유산으로서의 남한산성을 알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활용프로그램과 행사운영에서 산성리 주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프로그램 운영과 행사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소 협조 등의 경우 주민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특히 활용프로그램 운영은 매주 진행되기 때문에 산성내의 기반시설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원만히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나 지자체의 움직임과는 달리 주민주도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행사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주민들이 기관행사에 참여하는 수준이다.

산성리 주민의 소극적인 참여와 달리 지역주민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세계유산 활용 사례들은 다음과



〈그림 8〉 남한산성 문화제 축제

출처: 2016년 10월 23일 저자 촬영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벨기에 브뤼헤 역사지구<sup>3)</sup>의 맥주축제는 지역주민의 주도로 이루어진 행사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주민들이 스스로 홍보부스와 판매를 동시에 진행하고, 화폐대신 코인의 교환을 통해 식사와 맥주를 주문할 수 있게 하는 독특한 문화로 발전시켰다. 또한 축제현장 근처에서 브뤼헤의 대표 상품인 초콜릿을 동시에 판매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한 주민 주도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지역주민 주도의 상품개발과 판매 전략은 남한산성 산성리 주민들에게도 관광객 유치에 위한 필요한 전략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인도의 라자스탄 구릉요새<sup>4)</sup> 중 자이살메르성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관광상품의 판매 및 홍보 대부분을 담당한다. 자유로운 상권이 유지되어 성곽 내부에 다양한 상점들이 비치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주거 환경 또한 요새 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이살메르성의 활용에 있어서 주민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5〉 2015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활용 프로그램

사업명	일정	장소	내용
으랏차차 수어청	5~11월	남한산성행궁 및 수어장대	전통무예 스토리텔링
연희야 놀자	5~7월, 9~11월	남한산성행궁	농악, 무용, 번아 돌리기 체험 등
등재 1주년 기념 행사	9월 11일~13일	남한산성행궁 및 일원	talk 콘서트, 역사토론극(그 날)
활을 당겨라!	5~7월, 9~11월	남한산성행궁 후원	활쏘기 체험
다 같이 놀자! 산성 한바퀴	9~11월	남한산성 일원	남한산성 코스별 탐방
성곽 아카데미	5~6월, 10월	남한산성 일원	성곽 전문 강의, 교육
세계유산 스테이	8월	남한산성 일원	1박 2일 가족 캠프
세계유산 특별전	9~11월	남한산성 전통공원	남한산성과 세계 성곽유산 사진전
산성열정락커	4~5월, 10~11월	남한산성 전통공원	평일 상설 공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산성갤럭시	3~11월	남한산성 일원	청소년 세계유산 지킴이 양성

출처: 저자 직접 작성

산성리 주민들에게도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행사 및 활용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앞서 말한 정월대보름에 진행되는 ‘영월제’ 행사의 규모 확대가 대표적인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을주민들만을 위한 행사가 아닌 남한산성 전체의 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향후 세계유산 활용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2) 세계유산 보존관리 참여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과정에서는 ‘남한산성



〈그림 9〉 브뤼헤 맥주축제 현장

출처: 2015년 11월 저자 촬영



〈그림 10〉 브뤼헤 대표상품 초콜릿

출처: 2015년 11월 저자 촬영



〈그림 11〉 자이살메르성 내부 상업시설

출처: 2015년 11월 저자 촬영

문화유산 지킴이’라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주민 단체가 창설되었다. 하지만 세계유산 등재과정에서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인한 산성리 주민의 불참으로 인해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주관하의 봉사활동(기업, 주변지역 중·고등학생의 참여)으로 시민들의 보존관리 참여가 유지되고 있다. 기업체의 봉사활동은 환경정화 활동 위주로 진행되며 2015년에는 삼성전자, 농협, 삼립식품 등 30여개의 기업체가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유산활용사업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세계유산 지킴이의 경우 14~18세의 중, 고등학생을 주축으로 세계유산 홍보, 환경정화, 생태 모니터링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남한산성 문화유산 지킴이가 담당하던 문화재 보수·복원과정에서 직접 참여를 하고 교육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에는 직장, 나이 등의 이유로 실제적인 참가가 어렵다.

지역주민의 대표적인 보존관리 참여사례는 다음의 국가들에서 볼 수 있다. 인도의 라자스탄 구릉요새 중 란탄보르성에서는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지역주민의 직접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자스탄 구릉요새는 인도 고고학 조사 기관인 ASI (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가 직접 유산관리와 보수를 담당하고 있지만, 보수공사 시행시 지역주민들을 고용하여 기술을 가르치고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다.

일본의 시라카와고 역사마을에서도 지역주민의 보존관리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폭설로 부터 집을 지키기 위해서 갓쇼즈쿠리 양식을 만들어 냈다. 갓쇼즈쿠리는 눈의 중량을 견디기 적합한 지붕형태로 역새로 만들어져 있으며 지붕의 경사



〈그림 12〉 청소년 세계유산 지킴이 활동 2015년 산성갤럭시

출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그림 13〉 란탄보르성 주민참여 보수공사 현장

출처: 2015년 11월 저자 촬영



〈그림 14〉 갓쇼즈쿠리 지붕 양식

출처: 위키백과

가 심해 물이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는 환경에 적합한 구조형태다. 이 지붕의 교체는 30~40년에 한번씩 이루어지고 있으며, 눈이 지붕에 떨어질 때 띠도함께 떨어지는 일이 있어 일년에 한번~두번은 보수공사를 실시한다. 이런 띠 교체 작업과 지붕 보수작업은 현재까지도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작업을 한다.

남한산성의 보존관리에 있어서도 이제는 산성리 주민의 역할이 필요하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 긴급수리·보수반에서 주민 참여, 혹은 기존에 있던 남한산성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을 재개해 센터와 연계하여 보수,복원의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한다면 장기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3) 인터넷 커뮤니티의 활성화

기존의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를 통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이후 산성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운영은 현재까지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인터넷 운용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특히 세계유산을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대체 매체가 없다. 우리나라의 안동 하회마을<sup>5)</sup>의 경우 지역주민이



〈그림 15〉 안동 하회마을을 보존회 홈페이지 구성

출처: <http://www.hahoe.or.kr>

인터넷을 가장 잘 활용한 대표사례라고 볼 수 있다. (사)안동 하회마을을 보존회를 통해 마을의 역사와 문화, 체험프로그램, 식당·숙박시설의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직접 지자체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절교육과 전통 상례 시연, 주민 해설사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세계유산의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성리 주민의 경우는 주민들 간의 세계유산 교육을 위한 커뮤니티가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다양한 방문객들의 편의와 지역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인터넷의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

##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세계유산지역에서 남한산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등재 전·후 산성리 주민들의 참여와 갈등과정을 조사하고, 다양한 세계유산지역에서의 참여사례를 통해 산성리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산성리 주민들의 세계유산 등재과정에서의 역할과 참여범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교육, 행사에 참여하였으나 관리주체에 대한 역할인지 부족, 산성리 주변 상권에 대한 이해도 부족, 세계유산 관리 방법에서의 소통의 부재로 주민과 센터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물론 등재이후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개선의 노력을 보였으나 아직까지 관리주체로서의 산성리 주민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이에 우수한 세계유산 지역

주민 참여사례들과 비교연구하여 산성리 지역주민의 자체 활용프로그램 개발, 보존관리에서의 실질적 참여, 인터넷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최근 JTBC에서는 ‘남한산성 보존관리, 이대로는 괜찮은가?’를 주제로 세계유산 남한산성이 부끄러울 정도로 방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조명하였다(JTBC, 2016). 불법 노점상만 7곳, 업주들의 안하무인식 상행위, 예산을 이유로 문화재 보존관리에서의 지적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가장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은 문화재청 이하 공공기관들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산성리 주민들의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부족해서일수도 있다. 앞으로 이런 개선과제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한산성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사항들을 살펴보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참여 속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슬기롭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주

- 1) 효종갱은 최영년의 <해동죽지(海東竹枝)> 중편 음식명산(飲食名産) 중에서 廣州城內善調此羹造法(광주성 내에는 효종갱을 잘 끓인다.) 菘心[백채숙대]爲主菘芽松珥標高牛肋陽骨海蔘全鰓和土醬終日煮熱(배추숙대와 콩나물, 송이버섯과 표고버섯, 소갈비, 해삼, 전복을 통장에 섞어 종일 푹 곤다.) 夕天以線裹缸擔送于京城時宰家時值曉鐘(밤에 이 항아리를 솥에 싸서 서울로 보내 새벽종이 울릴 때면 재상집에 이른다.) 羹缸猶溫爛酒吸羹甘澹香膩(국 향아리가 아직 따뜻하고 속 풀이에 더 없이 좋다.) 名擅一世或目之以北村羹(한 때 이름을 날렸으며, 어떤 사람은 이를 북촌갱이라고도 한다.) 이라고 문헌에 기술하고 있는 대표적인 남한산성의 브랜드 음식이다.
- 2)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11월 공식 출범에 관한 기사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02776>
- 3) 브뤼헤 역사지구는 초기 고딕 양식 건축물을 유지한 유럽의 중세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도시이다. 중세의 예술발전에 영향을 주고, 사회·종교 기관의 건축학적 조화로우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안반 아이크와 한스 멜링과 같은 예술가가 활동했던 중세시대 회화의 발달과 후원의 중심지라는 명목으로 등재기준 2, 4, 6번을 만족시켜 2000년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 4) 라자스탄 구릉요새는 인도 라자스탄 주의 치토르가르성, 쿰발가르성, 란탐보르성, 암베르성, 자이살메르성, 가그론성으로 이루어진 여섯 개의 요새들로 구성되어 있는 2013년에 등재된 연속유산이다.
- 5)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하회마을과 경주시에 위치한 양동마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마을이다. 14~15세기에 조성된 씨족마을로서 마을 입지와 배치에서 유교의 양반문화를 잘 나타낸 사례로 볼 수 있다. 두 마을은 조선시대 대표적 입지인 배산임수 형태이고, 지역의 입지에 적합한 목조가옥, 정자, 서원과 서당 등이 구성되어 있다. 위계에 의해 형성된 촌락의 위치, 영향력 있는 씨족과 학자의 표상을 나타내는 두 마을은 등재기준 3번과 4번을 만족하여 2010년에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두 마을은 1984년 이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문화유산의 지정부터 보존, 관리, 활용에 이르는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 문헌

-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2011, 남한산성 무형문화유산 학술연구보고서.
-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2016, 국외 비교조사연구 결과보고서.
-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2015, ‘아시아 지역 내 세계 군사유산 학술네트워크 조성 및 활용방안 연구,’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남한산성 국제 학술심포지엄.
- 문화재청, 2013a, 남한산성 세계유산등재신청서.
- 문화재청, 2013b, 남한산성 세계유산등재신청서 부록1. 남한산성 보존관리.
- 유네스코, 2013,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 조아라 · 김숙진, 2016, 세계유산 보존관리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 참여: 화성과 남한산성의 비교,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2), 149-167.
-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http://nhss.ggcf.kr>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웹사이트 <http://whc.unesco.org/>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웹사이트 <http://heritage.unesco.or.kr>
- 위키백과, 갓쇼즈쿠리, <https://ko.wikipedia.org/wiki/%EA%B0%93%EC%87%BC%EC%A6%88>

%EC%BF%A0%EB%A6%AC

인천일보, 2014,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난관: 주민 대부분 반대...국제기구에 “성곽 복원 논란 · 규제로 생활불편” 항의서한 접수, 2014년 3월 17일자 기사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15681>

JTBC, 2016, [밀착카메라] ‘세계유산’이라기엔..남한산성의 ‘민낯’, 2016년 11월 8일자 기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51523](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51523)

UNESCO, 2002, Budapest Declaration on World Heritage. <http://whc.unesco.org/en/decisions/1217/>

UNESCO, 2007, Decisions adopted at the 31st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WHC-07/31.

COM/24).

UNESCO, 2014, Decisions adopted b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at its 38th session. WHC-14/38.COM/16.

교신: 김숙진, 05029,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대학원 세계유산학과 (이메일: sjkim@konkuk.ac.kr)

Correspondence: Sook Jin Kim, Dept. of Geography, College of Science, Konkuk University,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Korea 05029 (e-mail: sjkim@konkuk.ac.kr)

투 고 일: 2016년 12월 2일  
심사완료일: 2016년 12월 8일  
투고확정일: 2016년 12월 13일



# 세계유산연구소 학술지 편집 규정

## 제1장 총 칙

- 제 1조 (명칭) 본 규정은 '세계유산연구소 학술지 편집 규정'이라 한다.
- 제 2조 (목적) 본 규정은 '세계유산연구소'가 발행하는 '세계유산연구(Journal of World Heritage)'(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발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장 편집위원회

- 제 3조 (설치) 본 학회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 4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
- 제 5조 (임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과 심사 등 학술지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제 6조 (회의) 편집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장 투 고

- 제 7조 (투고자의 자격)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세계유산연구소 연구원에 한한다. 단, 세계유산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만한 논문의 경우에는 비회원일지라도 투고할 수 있다.
- 제 8조 (투고의 종류 및 양)
- ① 투고의 종류는 세계유산학 분야의 논문, 단보, 자료, 비평, 서평 등으로 한다.  
가. 논문: 창의적 연구결과, 일정한 주제에 관한 연구성과·동향·전망을 학술 논문의 형식에 따라 기술한 것.  
나. 단보: 논문의 내용에 준하는 연구의

중간 보고적 성격을 띤 것.

- 다. 자료: 학계에 소개할 가치가 있는 조사기록, 통계, 지도 등의 자료
- 라. 비평: 저서, 논문, 단보, 서평 등의 내용에 대한 학술적인 비평 및 논평
- 마. 서평: 국내외의 신간 서적에 대한 소개 및 논평
- ②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③ 논문은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A4용지(210\*297mm)로 국문 10매(영문 12매) 내외, 단보·자료·비평은 5매 내외, 서평은 2매를 기준으로 한다. (글자체 바탕체, 글자크기 10pt,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60%로 하고, 용지여백은 위 20mm, 머리말 15mm,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15mm, 아래쪽과 꼬리말은 각각 15mm로 한다.)
- 제 9조 (투고일) 투고마감은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다. 단, 투고된 원고가 많을 때는 투고된 순서에 따라 다음 호로 순연하여 게재한다.
- 제10조 (원고 집필 요령)
- ① 논문은 표지(제목, 저자), 요약문, 본문, 주, 참고문헌의 순으로 작성한다. 단보의 경우는 요약문과 주를 첨부할 수 있다.
  - ② 투고되는 모든 논문, 단보, 자료, 비평, 서평에는 한글과 영문으로 제목과 저자명, 저자의 소속기관명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필자의 소속 앞에 기재하도록 한다.
  - ③ 국문논문의 경우, 원고는 가급적 한글로 작성한다.
  - ④ 모든 논문은 400자 내외의 요약문(abstract)과 200단어 내외의 영문 abstract, 그리고 5개 내외의 주요어(key words)를 첫 페이지

지에 첨부한다.

- ⑤ 학술용어, 인명 및 지명의 국문용어 뒤에 원어를 밝힐 경우에는 처음 나오는 용어에 한하여 ( )속에 넣는다.
- ⑥ 항목의 순서는 아라비아 숫자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1)

(1)

①

- ⑦ 주는 해당하는 문장 또는 용어의 끝에 반괄호의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본문 다음에 별도로 일괄 작성한다.
- ⑧ 본문 중의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와 발표연도를 기재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인용한 쪽수(page)를 밝힐 수 있다.

가. 단독연구: 최재현(2006)에 의하면..., 이혜은(2011)에 의하면..., 이들 연구(최재현, 2006; 이혜은, 2011)에 의하면..., ...라는 견해도 있다(Lowenthal, 1979; Hannabuss, 1999)

나. 공동연구: 최재현 · 이혜은(2013)은 ..., Thorsell and Sigaty(2001)은 ... [2명의 경우], 강동진 등(2013)은 ..., Robins et al.(2000)은 ...[3명 이상의 경우]

- ⑨ 참고문헌은 주와 같이 일괄 작성하여 제출하며, 그 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참고문헌의 나열은 국문문헌, 일본어 문헌 · 중국어문헌, 구문(歐文)문헌, internet web자료의 순으로 하며, 국문과 일본어 · 중국어 문헌은 저자의 한글 자모음(字母音) 순으로 하고, 구문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국내고문헌은 국문문헌의 말미에 오도록 한다.

나. 동일한 저자의 문헌은 연대순으로 나열하고, 동일한 연도의 문헌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순서에 따라 연대 뒤에 a, b, c ...를 기입한다.

다. 공동저자의 경우에는 저자가 3명 이상일 경우라도 모든 저자를 열거한다.

라. 그 밖의 참고문헌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저 서]

문화재청편집부, 2007, 한국의 세계유산, 놀와, 서울.  
조윤승 · 정주년 · 신용달, 2011, (읽고 찾아가는 101) 세계유산, 신달, 서울.

Pedersen, A. 2002, *Managing Tourism at World Heritage Sites: A Practical Manual for World Heritage Site Managers*. Paris: UNESCO.

Pearson, M. and Sullivan, S. 1995, *Looking After Heritage Places*. Melbourne: Melbourne University Publishing.

Robinson, M., Evans, N., Long, P., Sharpley, R. and Swabrookes, J.(eds), 2000, *Tourism and Heritage Relationships: Global, National and Local Perspectives*. Sunderland: Centre for Travel and Tourism in association with Business Education Publishers.

[논 문]

이혜은, 2013, “모더니즘의 대표적 도시, 세계유산 브라질리아의 명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 1-11.

Rodwell, D, 2004,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the exemplary management of complex heritage sites. *Journal of Architectural Conservation*, 3, 40-60.

[참고문헌]

문화재청,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매뉴얼(2005).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이코모스 현장 선언문집(2010).

[보고서]

남한산문화관광사업단, 2012, 남한산성 무형문화유산 학술연구보고서.

[번역서]

조행복(역), 2013, 세계유산: 인류를 위한 혜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서울(UNESCO, 2012, *World Heritage: Benefits Beyond Borders*, France, UK).

⑩ 사사(謝辭, acknowledgement)는 논문의 결론 다음에 오도록 한다.

⑪ 투고되는 모든 논문, 단보, 자료, 비평, 서평에는 영문으로 제목과 저자명을 밝혀야 한다.

⑫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에 대한

기재 내용은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표기하며,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Corresponding author: Gil-Dong Hong,  
Department of Geography, Konkuk University,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143-701, Korea  
Phone: +82-2-450-3380, Fax: +82-2-3436-5433  
E-mail: kdhong@konkuk.ac.kr

**제11조 (그림과 표의 작성)**

- ① 그림(지도, 사진 및 도표)은 그대로 축소 인쇄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 ② 그림(Figure)과 표(Table)의 일련번호는 그림 또는 표 1, 2, 3, ...으로 하며 그 제목과 설명은 국문 판의 경우에도 구문으로 할 수 있다.
- ③ 그림과 표의 크기는 저자가 지정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 ④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그 하단에, 표의 제목은 그 상단에 왼쪽 정렬로 기재한다. 표의 경우 자료의 출처는 하단에 기재한다.
- ⑤ 그림과 표의 게재 위치는 필자가 해당 원고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한다.

**제12조 (원고 제출 등)**

- ① 논문과 단보(표, 그림 포함)는 원본과 사본 2부를 포함하여 총 3부를, 자료와 비평 및 서평은 원본과 사본 1부를 포함하여 총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논문과 단보를 제외한 원고의 게재 여부와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제나 내용상의 오류,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채택되지 않은 원고의 원본은 반환한다.
- ⑤ 인쇄시 초고는 필자가, 재고 이후는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 ⑥ 인쇄된 분량이 국문판의 경우 10쪽, 영문판의 경우 12쪽을 초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수 인쇄를 할 경우에도 추가되는 경비를 필자가 부담한다.

- ⑦ 별쇄는 필자의 요청에 따라 20부 단위로 제공하며, 그 비용은 필자가 부담한다.
- ⑧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논문심사**

**제13조 (논문심사평가서)**

- ① 학술지에 게재하려는 논문과 단보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② 심사 결과는(별지 서식)의 ‘논문심사평가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14조 (심사 절차)**

- ① 1차 심사: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 심사위원 2인을 위촉, 논문을 심사한다.
- ② 2차 심사: 1차 심사 결과 2인의 심사 내용이 상반될 경우 해당 분야의 전공 심사위원 1인을 새로 위촉하여 2차 심사를 실시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 (심사위원 선정)**

- ① 심사위원은 심사하려는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과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선정, 위촉한다.
- ② 1차 심사의 심사위원은 상임심사위원(편집위원)에게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심사 기준과 판정)**

- ①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연구주제의 적합성과 참신성
  - 나. 내용과 연구방법의 타당성
  - 다. 논리 전개 및 논문구성의 충실성
  - 라. 연구결과의 기여도
  - 마. 문장표현 및 편집상의 요건
- ② 심사 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특히 ‘게재 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심사의 익명성)**

- ① 논문 및 단보의 심사과정에서 필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필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8조 (심사비)**

- ① 논문이나 단보를 투고한 자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를 의뢰할 때 소정의 심사비를 지불한다.

**제19조 (심사 결과의 처리)**

-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논문 심사평가서)가 사본을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②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인 경우, 수정 완료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1차 심사 후 ‘논문심사결과처리표’의 기준에 의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 ④ ‘수정 후 재심’은 1회에 한하여 재심하며, 재심 결과의 ‘수정 후 재심’은 ‘게재 불가’로 간주한다.
- ⑤ 원칙적으로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지시를 따라야 한다. 단, 수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논문심사결과처리표

1차심사		2차심사 또는 재심	게재 여부 판정
1차심사 결과(1)	1차심사 결과(2)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심사 생략	(수정 후) 게재 함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함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함
		수정 후 재심	게재하지 않음
	게재 불가		게재하지 않음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재심	재심은 1회에 한하며, 재심 결과에 ‘게재 불가’나 ‘수정 후 재심’이 있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음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심사 생략	게재하지 않음

**부 칙**

- 1. 본 규정은 2015년 6월부터 적용한다.
- 2.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세계유산연구 투고 신청서

세계유산연구소

성 명	한 글	(한 문)	접수 일자	년 월 일
	영 문			
소 속				직위
연 락 처	주 소			
	전화번호		팩스	
	E-mail			
제 목	한 글			
	영 문			
원고종류	논문, 단보, 자료, 비평, 서평			
원고매수	본문 ( )매, 별도 제출시 그림 ( )매, 표 ( )매	희망 별쇄부수	( )부	
발표여부	학술대회명: 발표장소:	일자: 20   년   월   일		
* 편집에 대한 요망사항				

공 동 투고자	성 명	한 글			
		영 문			
	연락처	직 장			
		직 위			
		전화번호			
		이 메 일			

• 투고 신청서와 논문은 [journalworldheritage@gmail.com](mailto:journalworldheritage@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